

경북여성아카이브  
경북여성 1호 첫 번째 이야기

기록을 만드는  
경북여성

## 「경북여성 1호」라는 문패 달아주기



경북의 여성은 특별합니다. 특유의 인내와 저력으로 한 가문을 일으키고 마을을 살리며 국난 시에는 나라를 구하는데 앞장서기도 했지만 그 이름은 기억되지 못하고 역사의 뒤편길로 쉽게 사라져갔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각 분야나 직업세계에서 최고의 두각을 나타내는 여성들의 눈부신 활약상을 소개하기 바쁘지만, 불과 한 두 세대 전만 해도 여성의 사회참여와 직업세계로의 진출은 매우 어렵고도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누구의 딸로,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며느리로 ‘문(門)안의 존재’로만 인식되어 왔을 뿐 독자적인 권위나 공식적인 자격을 부여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책에 수록된 경북의 여성 1호 열여섯 분은 여성이라는 제약과 시대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치열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냈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진취적인 자세로 새로운 세계를 개척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걸어 온 생애의 면면을 들여다보노라면 서산대사가 남긴 “눈길을 걸을 때 함부로 밟지 말라 내가 걷는 이 발자국 뒷사람의 길잡이가 되리니(踏雪野中去 不須胡亂行)”라는 선시(禪詩)가 떠오릅니다.

이번에 발간한 『경북여성 1호 : 길을 만든 경북여성』은 시대를 앞서 전인미답의 길을 걸어갔던 선구적 여성들의 삶의 기록을 밝혀 역사 위에 당당히 이름을 새긴 문패를 달아주는 작업입니다.

이 책이 경북여성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고 미래의 여성들에게 주체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반이 되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성중심의 편향된 역사 기술 속에서 부족한 자료를 뒤지고 수집하여 한 권의 책으로 엮어내느라 애쓰신 집필진의 노고와 이 책이 나오기까지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눈길을 헤치며 곧고 정갈한 걸음으로 역사의 귀한 이정표를 남긴 여성 선각자와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앞을 가로막는 유리벽과 유리천장을 부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을 많은 여성들에게 격려의 마음을 담아 이 책을 바칩니다.

2013년 12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김 윤 순

## “경북여성 1호?”

헌정사상 최초로 여성대통령이 탄생하며, 여성의 진출이 가장 어렵다는 정치영역에서의 유리천장(glass-ceiling)도 깨지고 있다. 국가와 지역발전의 동인으로서 여성인력 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바야흐로 여성시대다. 하지만 불과 한 세기 전만해도 여성의 사회진출과 활동은 암흑기였다고 할 수 있다. 내외의식과 유교적 가부장제가 깊게 뿌리내려 여성의 활동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척박한 땅을 가르고, 틈새를 만들어 생명을 심고, 잎과 꽃대를 올려 마침내 열매를 맺게 한 여성들이 있었다. 일제강점기의 식민지배와 전쟁과 가난, 무지, 온갖 제약을 헤치고 길을 만들어 온 깨어있는 여성들이 있었다.

경북여성 1호 찾기 사업은 그런 여성들의 기록을 찾아내고, 조명해 보고자 시작되었다. 오늘날 우리 여성들이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뿌리를 만들어 주었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꺼내보고 싶었다.

우선은 근·현대기 경북의 의미 있었던 활동 즉, 독립운동과 여성운동의 맥아를 심어주었던 여성을 포함해 다양한 직업분야에 진출하고 도전했던 여성들, 그리고 유리벽뿐만이 아니라 유리천장을 깨기에도 주저하지 않았던 지역여성들의 이야기를 찾는 데 집중했다.

발굴단계에서 공직분야, 체육·예술 분야, 경제분야, 여성운동 등 많은 테마 속에서 다양한 경북여성을 찾아낼 수 있었지만,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된 5개의 테마에서 16명을 발굴하여 조명하였다.

근·현대 시기라는 특성상 아직 현직에 있는 인물이나 생존인물의 경우, 평가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고, 기록의 부재에 따른 조명의 어려움도 있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근·현대기 경북여성에 대한 조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작업이 매우 중요하고 또 필요해 장기과제로 추진해 나가보자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독립운동, 여성운동 등 사회활동에 참여한 1세대 경북여성과 언론·예술분야, 오늘날 ‘여성 대표성 제고’ 영역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교육·행정·정치 분야를 비롯해 의료 등 전문 분야에 처음으로 진출하거나 고위직으로 승진한 여성들을 다루었다. 각각의 테마는 ‘독립운동으로 광복의 초석을 다지다’, ‘시대를 앞서 미래를 준비하다’, ‘언론·문학·예술 분야를 개척하다’, ‘정치·행정·교육 분야의 유리천장을 깨다’, ‘전문분야에 도전하다’이다.

여성독립운동가로서는 여성으로서는 흔치 않은 의열투쟁을 전개해 독립운동포상자 중 여성으로서 가장 높은 포상을 받은 남자현과 하와이 이민1세 독립운동가인 이희경을 포함하였다. 두 번째 테마인 시대를 앞서 미래를 준비하다에서는 동양 최초, 최대의 육영사업가로 칭송받은 최송설당과 기생의 신분에서 여성운동가로 변모해 근우회 창립을 주도하고 중앙집행위원으로까지 활동했던 정칠성을 포함하였다.

언론·문학·예술 분야에서는 영남지역 1호 여성성악가 추애경, 첫 신춘문에 등용작가인 백신애, 현대가사문학의 선구자 조애영, 그리고 역사소설가이자 여성중군기자 1호로 활동했던 장덕조를 포함하였다. 정치·행정·교육 분야의 유리천장을 깬 여성으로서는 초대 대구여자경찰서장 정복향, 여교장 1호 박분악, 김천출신의 여성국회의원 김철안, 경북도 초대 여성과장 김도연을 조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분야에 도전한 여성으로서 민간여성비행사 1호 박경원, 대구경북 첫 개업여의사 김선인, 경북 첫 개업여약사 윤동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감독 박남옥을 조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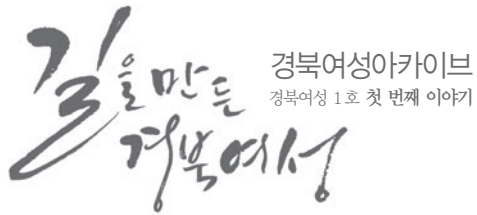
이번 작업에서 다루지 못한 다양한 인물의 발굴과 조명은 추후 과제로 지속해 나가고자 한다.

작업을 하면서 엘레노어 루즈벨트의 “여성은 티백과 같다. 뜨거운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녀가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없다”는 말이 자주 떠올랐다. 이 말은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여성들에게 기회만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을 웅변한다. 1호 찾기 사업을 하면서 만났던 여성들은 없었던 그 기회조차도 강철같은 의지와 열정으로 만들어 내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귀감이 되어 주고 있다. 아무도 시도해보려 하지 않았을 때, 아무도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했을 때, 오로지 열정과 도전의식, 할 수 있다는 자신감만으로 누구도 가지 않은 문을 열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간 그녀들의 삶을 깊이 기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여성시대라는 말답게 보다 많은 경북여성들에게 기회의 문이 열리고, 당당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집필진 일동

1. 이 사업은 여성의 사회진출과 활동이 어려웠던 시절, 남성들과 당당히 어깨를 겨루며 사회생활을 했던 경북의 1호 여성들을 찾아내 그들의 삶을 조명함으로써 경북여성 인물과 역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경북여성사 아카이브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2. 이 사업을 위해 경상북도 및 시·군, 여성단체 등 각종 기관을 통해 '경북여성 1호 인물' 제보를 받고자 노력하였으며, 일반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도민공모도 실시하였다. 특히 도움을 많이 받은 기관, 단체, 사람들은 본문의 각주와 책자의 말미에 밝혀두었다.
3. 수록인물은 근·현대기 경북도민과 도외거주 경북 출생자, 본적지가 경북도인 사람 중에서 뽑은 1호 여성들이다. 경상북도로부터 대구시가 분리된 것이 1981년이다. 따라서 1981년 이전 대구시 출생자 및 거주자도 포함시켜 발굴, 선정하였다.
4. 평가 등의 문제를 염두에 두어 가능한 생존인물은 제외하였다. 여성영화인 박남옥의 경우,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감독이라는 의미와 함께, 고향에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최근 여성영화인들을 통해 새롭게 조명되고 있기에 생존인물이지만 예외를 두고 선정하였다.
5. 원고는 기사, 회고록, 잡지, 평전 등 각종 문헌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주변인물의 인터뷰 내용을 종합해 작성했다.
6. 1차 발굴 및 조사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서 담당하였으며, 집필자 별로 추가로 자료수집, 인터뷰 등을 통해 부족한 자료를 보충하였다. 집필자는 원고 끝부분에 이름을 밝혀 두었다.
7. 원고 게재 순서는 각 테마 내에서 출생 순으로 하였다.
8. 제한된 시간, 평가문제 등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다양한 분야의 경북여성 1호 여성을 다 아우르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어 두었다.



차례

발간사  
책 머리에  
일러두기

제1장. 독립운동으로 광복의 초석을 다지다

남자현 | 최고 훈장을 받은 여성독립운동가 14  
이희경 | 하와이 이민1세 독립운동가 26

제2장. 시대를 앞서 미래를 준비하다

최송설당 | 김천고등보통학교를 설립한 육영사업의 어머니 40  
정철성 | 남녀평등을 꿈꾸었던 여성운동가, 근우회 중앙집행위원 58

제3장. 언론·문학·예술 분야를 개척하다

추애경 | 영남지역 최초의 여성성악가 72  
백신애 | 경북 첫 신춘문예 등용 작가 82  
조애영 | 전통과 혁신의 조화, 현대가사문학의 선구자 98  
장덕조 | 경북 여기자 1호이자 종군 작가 112

제4장. 정치·행정·교육분야의 유리천장을 깨다

정복향 | 대구여자경찰서 초대 서장 126  
박분악 | 경북 여교장 1호 134  
김철안 | 대구경북 첫 여성 국회의원 148  
김도연 | 경북도 부녀아동과 초대과장 162

제5장. 전문분야에 도전하다

박경원 | 민간 여류 비행사 1호 182  
김선인 | 대구경북 첫 개업여의사 200  
윤동한 | 경북 첫 개업여약사 212  
박남옥 |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감독 216

\* 인물별 연보 232  
\* 참고문헌 252  
\* 도움을 주신 분 255

# 1

제 장

독립운동으로  
광복의 초석을  
다지다

## 최고 훈장을 받은 여성독립운동가, 남자현



1962년 3월 1일, 정부는 독립유공자 58명에게 건국공로훈장 복장(제도 개편되어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수여했다. 이봉창·신채호 등 걸출한 독립운동가들이 포함되었는데, 이들과 함께 최고의 훈장을 받은 여성이 한 명 있었다. 만주 독립군의 어머니로 불리며 의열투쟁으로 독립운동사에 뚜렷한 자취를 남긴 남자현 지사가 바로 그녀다. 남자현은

전통적인 규범 속에서 성장한 '구여성'이었다. 그러나 당당히 그 껍질을 벗고, 46세의 나이에 아들을 데리고 만주로 망명하였고, 그 뒤 14년 동안 만주에서 조국광복에 헌신하였다. 그녀는 독립운동사에서 보기 드문 열혈투쟁가였다.

### 운명에 맞서 만주로 망명하다

남자현南慈賢(1873.12.7-1933.8.22)은 1873년 통정대부 남정한南珽漢과 이씨부인 사이에서 둘째 딸로 태어났다. 출생지는 영양군 석보면 지경리 393-6번지(석보로 204)이다. 남자현은 어려서부터 매우 총명하여, 일곱 살



남자현 생가터(석보면 지경리 393-6번지)

에 이미 한글과 한문을 터득하고, 14세에는 사서四書를 독파할 정도였다고 전한다.

성장하여 19세가 되던 1891년, 남자현은 같은 마을에 사는 김영주金永周와 혼인하였다. 남편의 본적지는 안동시 일직면 귀미동이다. 그녀의 결혼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는데, 1896년 의병항쟁에 나섰던 남편이 전사했기 때문이다. 남편 김영주는 1896년 7월 11일 당시 오십천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전한다.

이때 겨우 24세의 남자현은 첫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죽은 뒤 태어난 유복자를 기르며, 시어머니를 봉양하였다. 효부로 이름나 진보군 진보면에서 효부상을 받을 정도였다고 전한다. 이 무렵의 남자현은 걸으로는 다른 보통의 여인들과 다름없었다. 그러나 남편의 죽음은 그녀에

게 ‘국권회복’이라는 큰 과제를 던져주었기에, 그녀의 가슴에는 ‘남편의 원수! 나라의 적! 일본’을 향한 큰 불덩이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다.

1905년 을사늑약에 이어 1907년에는 급기야 대한제국의 황제가 강제로 퇴위되고, 군대마저 해산되고 말았다. 이 무렵 남자현의 친정아버지 남정환은 의병항쟁에 나섰고, 남자현이 이를 적극 지지하였다고 전하지만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어 1910년 나라는 기어이 무너졌고, 이는 남자현의 인생에도 큰 전환점이 되었다. 그녀는 1913년 무렵부터 독립운동가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무너진 나라를 되찾는 데 힘을 보태고자 하였다.

한 자료에 따르면 1913년부터 최영호崔英鎬·채찬蔡燦(백광운)·이하진李河鎭·남성노南聖老·서석진徐錫振·권모權某 등과 연락하며 활동을 시작하였고, 그 뒤 5년 동안 국내조직에 참가하였다. 최영호와 채찬은 당시 모두 만주에서 활약했던 인물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국내공작을 펼치는 과정에서 남자현과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채찬의 주요 활동무대는 서간도였고, 백서농장白西農庄에도 참가하였다. 백서농장은 안동출신 김동삼이 장주庄主로 활약하면서 독립군을 기르던 병영이었다.

그 뒤 47세가 되던 1919년 2월말 남자현은 고향을 떠나 서울로 향하였다. 아들 김성삼의 회고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동에 살던 김씨부인의 편지를 받고 상경하였다고 한다. 서울로 온 남자현은 연희전문학교 근처의 한 교회에서 김씨부인을 비롯한 교회신자들과 3·1운동에 참여하였다. 김씨부인이 누구인지 알려져 있지 않지만 교회와 연결된 인물로 추정된다. 남자현은 열흘 남짓 서울에서 활동하다가 3월 9일 만주로 향하였다.

만주에서 남자현의 자취가 처음 드러난 곳은 통화현通化縣이다. 그곳 미동尾洞 김기주金紀周의 집에 아들을 맡겨두고, 그녀는 본격적인 활동무대를 찾아 나섰다.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구체적인 자취를 알 수는 없지만, 대개 서간도일대가 그 무대였을 것이다.

이 무렵의 만주는 희망의 물결로 일렁였다. 잇따른 독립선언과 불길처럼 일어난 3·1독립만세! 이는 한국이 독립국이고 한국인이 자주민임을 세계 만방에 천명한 것이었다. 3·1독립선언 뒤 많은 청년들이 만주로 들어왔다. 이에 만주의 독립운동지도자들은 늘어나는 망명인들을 추스르고 독립전쟁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신흥무관학교를 확대 개편하는 한편 자치단체 한족회를 꾸리고, 독립군단 서로군정서를 만들었다. 남자현이 처음 몸을 담은 곳은 바로 이 서로군정서로 보인다.

이어 청산리전투에 참여하여 독립군을 간호했다는 기록도 보인다. 그 뒤 남자현은 활동무대를 북간도로 옮겨, 주로 교회를 중심으로 여성교육에 나섰다. 50세가 되던 1920년대 중반까지 교회를 설립하고, 여자교육회를 조직하였으며, 순회강연을 통해 여성들에게 민



「신경 남자현의 근황」, 『조선중앙일보』 1933년 8월 26일, 2면 5단

죽의식을 붙여넣는데 온 힘을 쏟았다.

## 의열투쟁으로 만주를 울리다

남자현의 이름이 만주지역 독립운동사에 널리 드러난 것은 1927년에 일어난 ‘길림사건吉林事件’이다. 이는 안창호를 비롯한 독립운동계 지도자 300여 명이 중국 관헌에게 붙잡혀 갇힌 일이다. 당시 독립운동계는 대동단결을 다지기 위해 길림에서 큰 집회를 열었는데, 그 때문에 중국관헌에게 체포된 것이다. 이들 가운데 최종 47명이 길림감옥에 갇혔다. 그런데 문제



「애국투사, <국민보>, 1929년 5월 27일, 6단

는 이들이 일제의 손에 넘어가면 독립운동계로서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비롯한 독립운동계가 구명운동에 나섰다. 이때 남자현은 이들을 옥바라지하며, 이 일을 여러 곳에 알리고, 비상대책반을 꾸리는 등 뛰어난 활약상을 보였다. 남자현과 독립운동계의 이러한 노력으로 독립운동기들은 무사히 풀려나게 되었다.

길림사건 전후로 남자현의 활동은 큰 변화를 보였다. 교육활동에서 의열투쟁으로 전환한 것이다. 의열투쟁이란 적의 주요기관이나 주요인물을 직

접 공격하는 투쟁방법으로서 불특정 다수를 공격하는 테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략이다. <조선중앙일보> 1933년 8월 26일자에 따르면 남자현은 사이토오齋藤實총독을 처단하려 나섰다. 1927년 4월 박청산朴靑山·김문거 金文居·이청수李靑守 등과 함께 길림성 안에서 계획을 세웠다. 4월 중순 드디어 남자현은 김문거로부터 권총 한 자루와 탄환 8발을 받아 직접 서울로 숨어들었다. 혜화동 28번지 고아무개高某 집에 머물며, 교회신자로 변장하고 총독 암살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남자현은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만주로 돌아갔다.

그 뒤 남자현의 움직임이 다시 드러난 것은 일송一松 김동삼金東三이 체포된 때였다. 1931년 10월, 만주지역 독립운동계의 최고 지도자 김동삼이 일제 경찰에 붙잡혀 하얼빈 주재 일본총영사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남자현은 친척으로 가장하여 김동삼을 면회하고, 안팎으로 소식을 알렸다. 마침 김동삼이 신의주로 이송된다는 소식을 들은 남자현은 구출작전을 세웠다. 그러나 날씨가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1932년 들어 남자현의 활동 무대였던 만주의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1932년 3월 1일, 만주가 완전히 일본 손에 넘어갔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의 만주침략을 비난하는 국제여론이 일어났다. 이에 국제연맹은 그 현장을 조사하기 위해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남자현은 독립의 뜻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판단하고, 우리민족의 독립의지를 담은 혈서를 써서 전달하기로 하였다. 그녀는 국제연맹조사단장 릿튼이 방문하는 1932년 9월 19일을 혈서 전달 날짜로 잡았다.

남자현은 하얼빈 남강에 있던 한 중국인 음식점에서 왼쪽 무명지 두 마디

를 잘랐다. 그리고 ‘한국독립원韓國獨立願’이란 다섯 글자를 썼다. 독립을 원하는 우리 민족의 뜻을 붉은 피로 쓴 것이다. 그리고 잘린 손가락을 함께 싸서 국제연맹 조사단에게 전달할 기회를 살폈다. 그러나 경계가 엄중하여 쉽게 기회가 오지 않았다. 생각 끝에 남자현은 인력거꾼에게 1원을 주어 전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비록 뜻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남자현이 보여준 기개와 용기는 남성들도 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 의거 뒤 남자현은 만주에 파견된 일본 전권대사 부토武藤信義를 처단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만주국 1주년 행사가 열리는 1933년 3월 1일을 거사일로 정하였다. 1933년 1월 20일, 남자현은 우선 무기 확보를 위해 부하 정춘봉鄭春奉을 비롯한 몇 명의 중국인과 무기 조달방법을 논의하였다. 마침내 권총 한 자루와 탄환, 그리고 폭탄 두 개 등을 전달받기로 하였다. 거사를 며칠 앞둔 2월 22일, 남자현은 사진관에서 최후의 기념사진을 찍었다. 다음날 오전 10시 남자현은 거사장소를 확인한 뒤, 노파로 변장하고 무기와 폭탄 운반에 나섰다. 그러나 밀정의 밀고로 거사 직전인 2월 27일, 하얼빈에서 일제경찰에 체포되고 말았다.

### 마지막 뜻 “독립은 정신으로 이루어진다”

남자현은 하얼빈 주재 일본총영사관 감옥에서 여섯 달 동안 가혹한 고문에 시달렸다. 당시 일본총영사관 지하에는 500㎡나 되는 감방이 있었다. 100여 명을 수감할 수 있는 규모였고, 독감방도 11개나 되었다. 30㎡나 되는 고문실이 따로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갖가지 고문이 이루어졌다. 김동삼



하얼빈 주재 일본총영사관 터 (현재 회원소학교)

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거목들이 이곳에 갇혀 고초를 겪었다. 끝내 굴복하지 않다가 목숨을 잃은 이도 있었고,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의 초죽음이 되어 감방으로 돌아왔다. 당시 감방 한쪽 구석에 놓여있던 담요는 검붉은 피에 늘 젖어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61세의 남자현도 온갖 고초를 겪었다. 그러다가 이렇게 욱되게 사느니 차라리 죽음으로 항거하자는 결단을 내리고, 단식투쟁을 시작하였다. 남자현은 음식을 끊은 지 9일 만에 병보석으로 풀려났지만 가혹한 고문과 단식으로 몸 상태는 최악이었다.

감옥을 나온 남자현은 한 여관에서 아들과 여러 동지들의 간호를 받았다. 그러나 끝내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고, 그녀는 몇 가지 유언을 남겼다. 하나는 조선이 독립되는 날 자신의 돈 200원을 독립축하금으로 바치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손자에게 교육을 시켜 내 뜻을 알게 하라는 유언이었다. 그리고 “독립은 정신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을 남겼다고 전한다.

혼수상태로 풀려난 지 닷새만인 1933년 8월 22일, 그녀는 61세로 순국하

였다. 장례는 바로 다음날 오후에 진행되었다. 8월 23일 오후, 유지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조선여관에서 영결식이 치러졌고, 마기구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 하루 만에 치러진 장례였다. 5일 뒤 '부토武藤信義 모살범謀殺犯'이라는 제목 아래 그녀의 순국 사실이 국내 언론에도 보도되었다.

만주를 유일한 무대로 조선OO운동에 종사하던 남자현(여자)은 당시 감옥에 구금중이든 바, 단식 9일 만인 지난 17일에 보석 출옥하였는데, 연일 단식을 계속한 결과 22일 상오(하오) 12시 반경에 당지 조선서관에서 영면하였다.

〈조선중앙일보〉 1933년 8월 27일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녀를 기리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50일 뒤인 1933년 10월 12일 오후, 하얼빈의 외국인 공동묘지에 묻힌 남자현 묘 앞에 비석이 세워졌다. 하얼빈시 남강구南崗區 동대직가東大直街 1호, 남강南崗 러시아공동묘지 서쪽 한인묘역이 그곳이다. 순국 1주기에는 당시 교하蛟河에 거주하던 아들 김성삼의 집에서 추도회가 열리기도 했다.

1934년 1월 간행된 한국독립당 기관지 『진광震光』창간호(중국 항주 발행) 「여걸



순국직전 모습

남자현 선생전」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렸다.

경술국치 이후에는 비록 김섬·애향·계월향 같은 의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신희의 여운을 버리고 조국을 위해 의병을 조직하여 국내와 만주를 돌며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적과 맞서 수십 년을 일관되게 투쟁한 여걸이 출현하였다. 이 여걸을 중국의 문단에서는 '혁명의 어머니'라 칭하였고, 적의 신문에 게재된 평론에서는 '천을할 노파'라 하였다. 그가 바로 근대 한국의 여걸로 손꼽히는 남자현이다.

'혁명의 어머니' · '천을할 노파' 남자현의 투쟁을 기리는 작업은 해방 뒤 한국여성단체에서 이어갔다. 1946년 8월 22일 인사동 승동예배당에서 독립축성애국부인회가 회를 개최하였다. 남자현은 여성운동사에서는 상징적인 인물로 평가 받기에 충분하다. 남자현은 전통적인 규범 속에서 성장한 '구여성'이었다. 그러나 당당히 그 껍질을 벗고, 46세의 나이에 외아들을 데리고 만주로 망명하였다. 그 뒤 14년 동안 만주에서 조국광복을 위해 헌신하였다. 그녀는 독립운동사에서 보기 드문 열혈투쟁가였다. 나라에서는 그 뜻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1998년 여름, 손자 김시련이 할머니의 묘지를 찾기 위해 하얼빈으로 향했다. 그의 손에는 아버지 김성삼이 남자현의 묘지 앞에서 동지들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 한 장이 들려있었다. 그러나 묘지는 이미 40년 전에 사라지고 없었다. 1958년 하얼빈시 도시건설 '대약진' 때에 시내에 있던 묘지를 모두 황산皇山 공원묘지로 옮겼는데, 이때 남자현의 묘는 '주인 없는 묘'가 되



남자현 묘지

어 없어졌다고 전한다. 김시련은 이곳에서 한국인 묘역을 돌보던 9명의 할머니를 만나 아쉬움을 달래고 고국으로 돌아왔다.

히얼빈에 있던 그녀의 흔적은 사라졌지만 고향인 경상북도 영양군에서는 남자현을 기리는 일이 추진되었다. 1954년 삼의열사기념사업회三義烈士紀念事業會에서 영양의 3의사를 기리는 삼의각三義閣을 건립하였다. 3의사는 김도현과 엄순봉, 그리고 남자현을 이른다. 이어 1977년 삼의사비三義士碑를 세우면서 남자현지사 항일순국비를 세웠다. 그 뒤 장소를 옮겨 새

로 세웠고, 지금은 영양호국공원에 자리하고 있다. 1999년 11월, 영양군은 남자현지사 생가를 복원하였다. 위치는 영양군 석보면 지경리 394번지(석보로 208) 일원이다. 원래 생가지가 있었던 393-6번지 바로 옆이다. 본채·문간채·추모각 등의 건물과 기념비를 세웠다.

강운정(안동독립운동기념관 학예연구실장)



남자현지사 항일순국비(영양읍 석보면 지경리 소재)

## 하와이 이민 1세 독립운동가 이희경



2013년은 한국인의 하와이 이민 110주년이 되는 해이다. 1902년 말 인천을 출발한 배가 하와이 호놀룰루항에 도착한 것은 1903년 1월 3일이다. 그로부터 1905년까지 7,200여 명의 한인이 노동이민을 떠났다. 경북지역에서 하와이로 이민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 흔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 영양출신 권도인이 있었고, 그의 사진만 보고 1912년 19세의 이희경

은 공부할 수 있다는 꿈을 갖고, 하와이로 갔다. 이들은 역경을 극복하고 도전을 멈추지 않았고, 성실성 하나로 가구사업에 성공을 거두었다. 그리고 민족이 처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이들 부부는 독립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희경은 미주지역을 대표하는 여성독립운동가로 우뚝한 공적을 남겼다.

### 사진신부 이희경, 하와이로 향하다

1912년 10월 하와이로 향하는 한 소녀가 있었다. 중학교를 갓 졸업한 19세의 이희경(1894.1.8~1947.6.26)이다. 사진 한 장에 기대어 공부할 수 있다



권도인·이희경 부부는 하와이에서 가게를 경영하며 독립운동을 도왔다. 부부가 Poinciana Blind (아름다운 커튼이라는 뜻)라는 상표로 경영하던 가게에서 찍은 사진. (매일신문 2010.01.11)

는 꿈을 갖고 결혼을 작정하고, '태평양의 낙원' 하와이로 향하는 걸음이었다. 남편 될 사람은 경북 영양출신의 25세 권도인이었다.

권도인權道仁(1888~1962)은 1888년 9월 27일 영양군 석보면石保面 북계동北溪洞(현 소계동)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권하일權河一, 어머니는 김봉주金鳳周이다. 세 아들 가운데 맏이었던 그의 어린 시절은 알 길이 없다. 그에 관한 기록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만16세 되던 1905년이다. 그 해 권도인은 하와이로 이민을 떠났다.

한인들의 하와이 이민이 시작된 것은 1902년 12월 22일부터이다. 이날 121명의 한인이 인천항을 떠나 하와이로 향하였다. 그 뒤 1905년 4월 3일 일제가 '해외이민금지령'을 내려 이민이 전면 중단될 때까지 모두 7,200여



1902년 12월 미국으로 떠난 첫 이민자 수송선인 갤릭호의 모습.  
1912년 권도인이 탄 시베리아호도 이와 비슷한 것이었다. (사진 출처: 매일신문 2010. 01. 11)

명의 한인이 미국으로 떠났다. 11척의 선박이 65차례를 오가며, 이들을 실어 날랐다. 이민자들의 출신지는 서울·수원·인천 등 기호지역이 반수를 넘었고, 관서지역과 영남지역이 그 뒤를 이었다.

하와이 이민의 성격은 노동이민이었다. 처음 떠난 배가 하와이에 도착한 것은 1903년 1월 13일이었다. 그 뒤 한인들이 잇따라서 하와이로 들어왔고, 이들은 모두 하와이의 여러 농장에 배속되었다. 40여 개의 농장에 배치된 이들은 30여 명에서 2~3백 명씩 집단으로 거주하였다. 한국노동자들은 농장 감독 루나(십장)의 우레바(채찍)를 맞아가며 하루 10시간 노동에 시달렸다. 개간, 종묘심기, 김매기, 관개사업, 사탕수수 운반 등의 일을 했지만, 임금은 턱없이 적었다. 일요일은 휴식하고, 월 25일 작업으로 받게 되는 한 달 임금이 16~18달러에 불과했다.

하와이 이민 1세 이흥기李鴻基는 “30분정도의 점심시간을 빼고, 하루 10시간 일하는 동안 허리를 펴거나 담배 피울 겨를도 허락되지 않았다. 루나는 우리들을 마치 소나 말처럼 채찍으로 다루었다. 이름은 없었고, 오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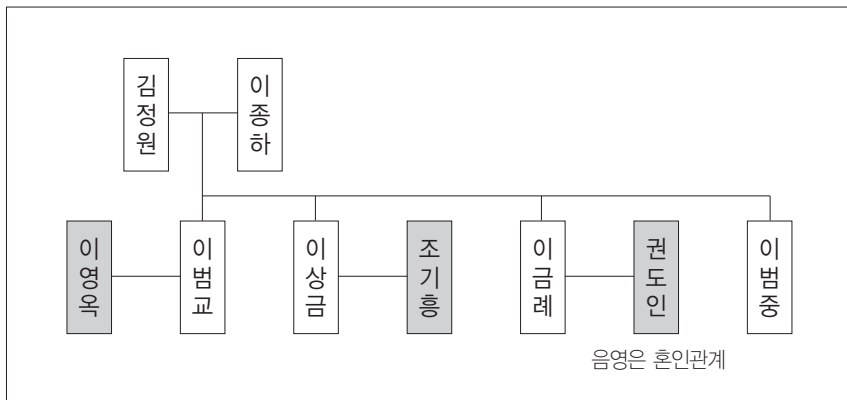
죄수처럼 번호로 불릴 뿐이었다.”고 증언하였다. 주거 환경도 군인 막사 같은 곳이라 매우 열악했다. 이들은 이 같은 악조건에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버틸 수 밖에 없었다. 이민 경비 170달러를 3년간 상환해야 하는 계약에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견디기 어려웠던 이들은 상황이 끝나자 ‘아메리칸 드림’을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1910년까지 귀국한 이민자는 983명에 이르렀는데, 이는 전체 이민자의 10%이다. 2천여 명은 더 나은 조건을 찾아 미국 본토로 떠나기도 했다.

권도인이 하와이 이민 대열에 나선 것은 1905년이다. 그는 고향을 떠나 인천으로 가서, 시베리아호를 타고 1905년 2월 13일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하였다. 이 때 권도인의 나이는 겨우 만16세였다. 당시 이민자 대다수가 20~30대였음을 감안한다면 매우 어린 나이였다. 나이가 이민 조건에 미치지 못한 터라,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다고 전한다. 호놀룰루 도착자 명단에 적힌 그의 나이는 18세이다. 하와이에 도착한 권도인이 처음 실려 간 곳은 카우아이(Kauai)섬의 콜로아(Koloa)였다. 그는 4년 넘게 그곳 사탕수수밭에서 일했다.

사탕수수밭 노동자로 살던 권도인의 이름이 독립운동사에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1909년이다. 1909년 안중근의 의거 소식에 미국에서는 의연금 모집이 벌어졌고, 그 성금으로 『대동위인안중근전大東偉人安重根傳』을 편찬하였다. 바로 그 부록에 권도인이 1원(현재 20달러에 해당)의 성금을 냈다는 기록이 있다. 이어 1년 뒤 1910년 9월 4일, 그는 대한인국민회 콜로아 지방회의 회장에 취임하였다. 이민 온지 5년 만이자, 갓 20세가 넘은 나이였다. 그 뒤 권도인은 호놀룰루로 이동하여 시내에서 점원으로 일하였다.

1910년 11월, 하와이 한인사회가 술렁거렸다. 하와이에 첫 사진 신부들이 도착한 것이다. '사진 신부'란 사진만 보고 혼인이 결정된 신부를 말한다. 초기 노동이민자 가운데는 부녀 637명과 아이 541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대부분 노동이민자의 가족이었다. 그런데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은 일제가 한인 이민을 금지하면서, 한인사회는 독신청년들로 넘쳐났다. 이에 가족 없는 노동이민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1910년부터 사진결혼이 이루어진 것이다. 1910~24년 사이 많게는 951명의 사진 신부가 하와이로 갔다는 통계가 있다. 이 밖에 미국 본토에도 115명의 사진결혼 여성이 정착하였다.

사진 신부들이 하와이로 들어오자, 권도인도 자신의 사진을 국내로 보냈다. 이를 본 이희경은 소극적인 언니를 제쳐두고 결혼하겠다고 하와이로 향하였다. 이렇게 하여 1912년 10월, 25세의 권도인과 19세의 이희경은 이국 땅에서 부부의 연을 맺었다.



이금례의 가계도

이희경은 1894년에 대구 명치정明治町 2정목丁目(현재 중구 계산동桂山洞 2가) 89번지에서 전주이씨 이종하李淙夏와 김정원金正元 사이에서 2남 2녀 가운데 셋째로 태어났다. 위로 오빠 범교範敎와 언니 상금尙今, 아래로 남동생 범중範仲이 있었는데, 남동생은 어린 나이에 사망하였다. 이희경의 본래 이름은 이금례李今禮이다. 그 뒤 하와이로 가서 이혜경(Hea Kyung)이란 이름을 사용하다가, 다시 이희경으로 바꾸었다.

이희경은 대구 신명여학교 1회 졸업생이다. 신명여자고등학교 동창회 명부에는 1912년 5월 31일에 졸업한 1회생 3명 가운데, 첫 번째로 이금례李今禮의 이름이 올라있다. 그런데 신명여자중학교 「졸업생명부」에는 이희경李熙卿으로 나와 있고, “卒業後卽 布哇로 去하여 結婚하다”라는 기록과 함께, 1923년 3월에 조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 포왜布哇, 즉 하와이로 가서 결혼했다는 뜻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대구 신명여학교를 제1회로 졸업한 이희경은 졸업 후 얼마 되지 않아 사진 신부로 하와이로 건너가 1912년 10월 경북 영양출신 권도인과 결혼하였고, 하와이 정착 이후 본명인 이금례를 이희경으로 바꾸었음을 알 수 있다.

### 가구사업가로 성공하다

이희경 부부는 신혼시절 Punchbowl Street에 살았다. 어려움도 많았지만 부부는 역경을 딛고 가구사업가로 성장하였다. 권도인이 처음 가구와 인연을 맺은 것은 결혼 후 Coyne Furniture Company에서 가구장식 견습생으로 일하면서 부터였다. 그는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자신의 집 지하 작업실에서 밤늦도록 실용가구 제작에 몰두했다. 그러다가 Pele Street에 살

던 시절, 'Chimney Plate'라는 새로운 가구를 만들었다. 이어 1924년 6월에는 미국 특허를 획득하는데 성공하였고, 1928~29년 드디어 첫 가구점인 King Furniture store를 열었다. 결혼한 지 16년이 지난 무렵이다.

신상품 개발과 특허 획득으로 이들 부부의 생활은 많이 나아졌다. 그러나 사업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첫 가구점인 King Furniture store를 열자마자 불어 닥친 세계경제공황은 이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부부는 다시 일어났고, 1936년에는 South Beretania Street 819호에 다시 가구점을 열었다. 이어 1937년 5월에는 사업을 크게 확장하였다.

신상품 개발에 대한 권도인의 의지와 열정은 남달랐다. 섬 없는 노력은 근면성의 상징이라 여겨질 정도였다. 연구에 몰두하느라 일요일 예배마저 빠지는 일이 있자, 아내 이희경은 “마귀의 세계로 빠져들었다.”고 핀잔을

주기도 했다. 신상품 개발과 특허 획득은 권도인의 이러한 노력이 가져다 준 결실이었다. 그가 만든 제품 가운데 최고의 히트상품은 Poinciana Drapery였다. 라틴어로 ‘아름다운 커튼’이라는 이 제품은 대나무를 잘게 쪼개 발처럼 만들어 옆으로 펼치는 커튼이다. 거기에 그림까지 그려 넣어 매우 아름다웠다. 이 때문에 호응이 높아 샌프란시스코에 공장을 세울 정도였다.

그는 우수한 품질의 대나무를 구하



이희경(중앙). The Korea Times(2011.9.19)

기 위해 1940년 일본 나라지역의 대나무 밭을 직접 방문하였다. 그러나 1941년 태평양전쟁으로 원료공급은 물론 소비자층이 많았던 미국 본토와도 연결이 어렵게 되었다. 틀림없는 위기였지만 그는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커튼을 만들고 남은 대나무 조각을 이용하여 핸드백을 만들었고, 밖으로 빛이 새어나가지 않는 Black Curtain을 개발하여 다시 인기를 얻었다. 특히 Black Curtain은 전쟁 중이라 불을 꺼두어야 했던 가정에 빛을 가져다주었다.

사업가로 성장하는 한편 이들 부부는 함께 독립운동을 이어갔다. 남편 권도인의 독립운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국민회를 비롯한 단체의 간부를 맡아 한인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자금 지원이었다. 권도인은 1910년 9월 4일 대한인국민회 콜로아(Koloa) 지방회의 회장에 취임한 이후, 1945년 1월 20일 국민회대의회에서 카와이·라나이 지역 참의원으로 피선되는 등 국민회의 임원으로서 활약하였다. 또한 독립운동지원을 위해 많은 돈을 기부하



신명여고 1회 졸업앨범. 앞줄 세 명이 졸업생이고 뒷 줄 두 명은 선생이다. 밑에 의하면 앞줄 왼쪽 첫 번째가 이희경이라고 했다.

였다. 기부금액의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으나, 1935년 이후 해방 때까지 신문 <국민보>에 권도인의 이름으로 기부된 것만 헤아려도 1만 달러 가깝다. 이로 미루어보아 실제로 기부한 자금은 미주지역 전체를 대표할 만큼 많은 금액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권도인은 태평양전쟁이 나자 직접 민병대로 나서, 자신의 트럭으로 물자를 수송하는 일을 맡았다. 더불어 두 아들을 입대시키기도 했다. 이는 그의 항일의식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 미주지역의 여성독립운동가 이희경

이희경은 대단히 활동적인 인물이었다. 호놀룰루에 도착한 뒤 활발한 교제력을 발휘하여 영남부인회와 감리교회 및 대한부인구제회 등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였다. 이희경은 1919년 4월 1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창립된 하와이 부인단체의 통일기관인 대한부인구제회大韓婦人救濟會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독립운동에 필요한 후원금을 모집·제공하였으며, 애국지사 가족들에게 구제금을 송금하는 등 구제사업을 펼쳤다. 그 뒤 1928년 경상도 출신 부인들과 함께 대한부인구제회를 탈퇴하고, 영남부인회嶺南婦人會를 조직하였다.

영남부인회는 1928년 9월 27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이희경, 김보배, 박금우, 광명숙, 박정숙, 이양순 등 경상도 출신의 사진 신부들이 주축이 돼 만든 것이다. 영남부인회가 결성된 계기는 이극로의 환영을 둘러싸고 일어났다. 이극로(1893~1978)는 경남 의령 출신으로 마산 창신학교에서 수학한 후 만주에 있는 동창학교와 백산학교의 교사로 활동하였고, 상해로 건너가서는 동제대학에서 수학하였다. 이후 그는 신채호의 추천으로 제3차 국제공산당

대회 참가차 모스크바로 떠나는 고려공산당 대표 이동휘와 박진순의 통역으로 동행하였다. 이를 계기로 1922년 독일 베를린대학으로 유학해 1927년 5월 「중국의 생사공업」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학위 취득 후 1928년 6월부터 고국으로 돌아오는 1929년 1월까지 런던·아일랜드·하와이·일본 등지를 방문하였다. 그가 하와이를 방문한 것도 바로 이 무렵이다.

경상도 출신 여성들은 이극로의 하와이 방문을 열성적으로 환영하였다. 그런데 이승만은 이러한 모습을 못 마땅하게 여긴 것 같다. 당시 하와이 한인들 사이에서는 이승만이 “경상도 사람이 박사면 아는 것이 얼마나 되며, 국어는 얼마나 안다고 강연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이극로를 비판하며, 국어강연회 장소로 신청한 교민단체관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이러한 소문은 경상도 출신 여성들의 지역감정을 불러 일으켰고, 끝내 지역 정서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여성단체인 영남부인회가 결성되었다.

영남부인회는 곧이어 영남부인실업동맹회로 이름을 바꾸었다. 일시적인 지역감정을 배제하고, 보다 나은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였다. 명칭 변경 시기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1930년 전후로 보인다. 실업동맹회는 아래와 같은 조직 목적을 설정하고, 실업 발전과 동포간의 친목 증진을 통해 독립을 달성하는 것으로 발전시켰다.

1. 본 회의 목적은 저금을 장려하며 국산을 수입하여 실업발전에 노력한다.
2. 동포간의 사교와 친목을 증진한다.
3. 회원간의 상부상조를 장려하여 안녕을 보장한다.

이러한 목적과 방향 설정은 1940년 12월 조직된 '하와이한인여성상의회'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는 영남부인실업동맹회의 활동이 하와이 한인 여성들의 경제활동에 큰 밑그림을 그린 중요한 단체였음을 의미한다. 회원 수는 150여 명이었고, 주요 핵심 인물은 박금우, 김보배, 이희경, 박정숙, 전응용, 박정금, 정순이, 이양순, 김봉순, 서복수 등이었다.

이희경은 이 회의 회장을 역임하면서 15년간 한인부인사회의 발전과 독립운동 후원, 재미한인사회의 구제사업 활동에 적지 않은 공헌을 하였다. 특히 1930년대 후반부터 독립금과 중경특파원重慶特派員경비·의연금·부인구제회 의무금·혈성금·중국구제금·승전후원금·군사금 등 각종 의연금과 군자금을 지원하였다. 이어 1940년대 초반에는 부인구제회 호놀룰루 지방회 대표로서 부인구제회 승전후원금 모집위원, 부인구제회 사료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대한국민회의 회원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총 수백여 원의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하였다. 나라에서는 고인의 이러한 공헌을 기리어 2002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 하와이에 뿌리 내린 후손들

해방이 되자 이들은 몇 차례 귀국을 시도하였다. 하와이로 시집간 이희경이 처음 고국을 방문한 것은 1919년이었다. 이어 1935년 말부터 1936년 사이에 다녀갔다. 해방직후인 1945년 10월 이희경은 고국 땅을 밟았지만 오래 머물지 못했다. 그토록 바라던 광복은 찾아왔지만, 부부는 쉽게 귀국할 수 없었다. 하와이에서 반 이승만 노선을 걸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2년 뒤인 1947년 이희경은 세상을 떠났다. 아내가 떠난 뒤에도 권

도인은 귀국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도쿄까지 가서 여러 번 귀국을 시도했다. 그러나 영사관에서 끝내 비자발급을 거부했다. 1950년부터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고생하던 권도인은 만75세가 되던 1962년 4월 24일 결국 호놀룰루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가 떠난 뒤 1998년 나라에서는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고, 2002년 이희경에게도 건국포장이 추서되었다. 그리고 고국을 떠난 지 100년이 되던 지난 2004년 4월 부부는 그토록 염원하던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다.

이들이 어려움을 딛고 하와이에서 뿌린 씨앗은 튼실한 열매를 맺었다. 노동이민자 권도인과 그의 사진 신부 이희경은 이국에서 2남 2녀의 4남매를 잘 길러냈다. 4남매는 모두 고등교육을 받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였다. 이들 2세대에 이어, 3세대(7남 4녀)가 자리를 잡았고, 4세대(19명)가 성장하고 있다. 이제 100년이 지난 지금 5세대가 태어나 자라고 있다. 하와이에서 시작된 이들의 터전도 미국 본토로 확산되었다.

경북 영양의 조그마한 시골마을에서 태어나, 10대에 노동이민을 간 권도인과 사진만 보고 그를 선택했던 이희경이 뿌린 씨앗이다. 이들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고, 성실성 하나로 가구사업에 성공을 거두었다. 그리고 민족이 처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독립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 과정에서 이희경은 권도인의 내조자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미주지역의 대표적인 여성독립운동가로 우뚝한 공적을 남겼다.

강운정(안동독립운동기념관 학예연구실장)

제 2 장

시대를 앞서  
미래를  
준비하다

## 김천고등보통학교를 설립한 육영사업의 어머니 최송설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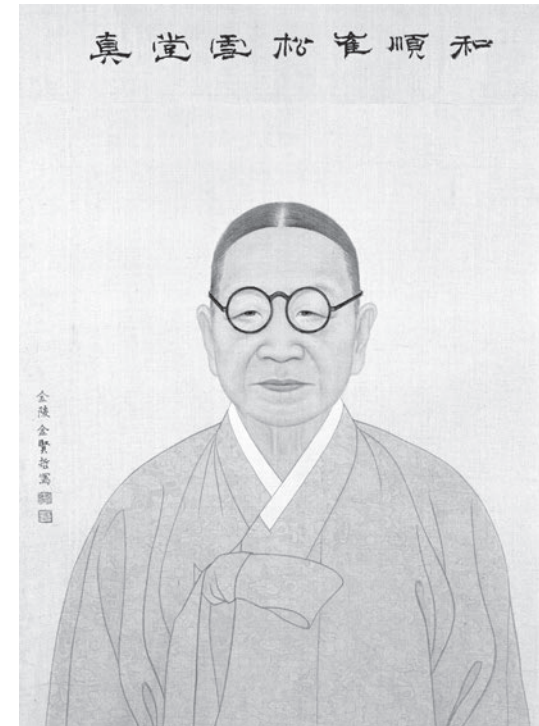


조선의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의 보모로 잘 알려진 최송설당은 전 재산을 쾌척하여 경북 김천에 인문계 고등학교인 김천고등보통학교를 설립해 우리민족의 앞날에 꿈과 희망을 심은 한국육영사업의 어머니다. 경상북도 내 여성 육영 사업가 1호이다.

### 가문의 과업을 짊어지다

최송설당崔松雪堂(1855.8.29~1939.6.16)은 철종 6년 김천시 문당동에서 아버지 최창환과 어머니 정옥경 슬하 3녀 가운데 장녀로 태어났다. 최송설당의 아버지 최창환은 원래 전라도 고부에 살다가 선조의 세거지를 찾아 김천으로 옮겨왔다. 고부는 송설당의 증조부 최봉관이 홍경래 난과 평안도 선천군 반군 사건 등에 연루되어 옥사한 뒤 ‘역적’이라는 멍에를 안고 후손들이 쫓겨간 유배지였다.

송설당 집안은 원래 빼대있는 양반가였다. 11대조는 남명 조식의 수제자인 수우당 최영경, 6대조 최세호는 예조좌랑, 고조부 최천성은 함흥중군, 증조부 최봉관은 부호군을 지낼 정도로 명문이었다. 증조부 최봉관이 평안



최송설당 초상화(김현철 작)

도에서 부호관을 지내던 1811년 홍경래 난이 터졌다. 부호관인 증조부는 당연히 난을 진압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최봉관의 외가 강릉 유瀏씨가 오히려 난군에 기담했을 뿐 아니라, 최봉관 자신도 평안도 선천군이 반군에 의해 함락될 때 항전하지 않았다가 체포되어 옥사했다. 최봉관이 죽고 맞아들 최상문(송설당 할아버지)을 비롯한 네 아들은 전라도 고부 땅으로 유배당했다. 최송설당의 아버지 최창환에 이르러서야 선대들이 살던 경북 김천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다. 나중에 최송설당이 ‘고부 할매’라고



영친왕 보모시절을 회상하는 최송설당(경암 이양원 작)

불린 연유도 여기서 비롯됐다.

유배지에서 선조들이 살던 김천으로 되돌아와 훈장 노릇을 하던 아버지 최창환을 위해 송설당은 집안의 가장 큰 과업 두 가지를 해결해 나갔다. 하나는 딸 셋뿐인 형편이라 가문을 이을 양자를 들이는 일과 다른 하나는 멀 문지화를 당한 가문의 명예를 되찾는 것이었다. 첫 번째 과업은 아버지 타계 4년 전, 작은 아버지(최창복)의 아들(최광익)을 받아들이면서 해결됐다. 신원伸冤 문제는 송설당에게 가장 큰 문제로 남았다.

## 계단식 성장법을 택하다

송설당의 생애는 크게 세 시기로 나뉜다. 첫 시기는 고향인 김천에서 주로 머문 시기로 1855년 태어나서 1894년 상경하기 전까지 약 40년 간이다. 두 번째 시기는 상경 이후 1930년까지 36년간이다. 이 시기에 송설당은 서울에 정착해서 김천을 오가며 살았고, 영친왕의 보모로 지내며, 또한 가문의 신원을 이뤘고, 부를 일궈냈으며, 정권의 핵심인 고종, 엄비와 친분을 맺었다. 세 번째 시기는 경성에서 고향 김천으로 되돌아와서 여생을 마무리한 약 10년으로 이 시기에 한국 육영사업의 한 획을 그었다. 송설당은 세 시기 별로 살아간 자취도 확연히 차이난다.

첫 시기 전반부는 주로 아버지 슬하에서 한학과 한글을 공부하던 어린 시절이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직접 장사길에 나서서 천신만고 끝에 거부는 아니지만 어렵지 않을 만큼 부를 일군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아버지로부터 대물림한 집안의 신원 문제에 대해서 방법을 모색했다. 최송설당이 고부댁이란 술집을 차려 큰 돈을 벌었다는 주장도 사실이라면 이 시기일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시기는 상경과 함께 인생의 승부수를 던진 시기였다. 상경 초기에는 조상 신원문제 해결에 몰두했고, 입궁해서 영친왕의 보모로 지근거리에서 엄비와 고종을 뵈던 시기였다. 대한민국 첫 여기자인 최은희가 쓴 ‘잊지 못할 여류명인들’(한국일보, 1962년 5월24일)에 보면 최송설당은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계단정책으로 고종에게 다가갔다. 백년 묵은 집안 신원문제를 해결하려면 최고 권력자의 힘을 빌리는 수밖에 없었다. 당시 최고 권력자인 고종에게 다가서려면 고종의 총애를 받는 엄상궁의 마음을 먼

저 얻어야 했다. 당시 엄상궁은 고종의 후예를 잉태하기를 기원했다. 송설당은 이런 엄상궁의 마음을 읽기라도 하듯, 엄상궁이 아들 낳는 꿈을 현몽했고 엄상궁 동생과 친분을 맺은 후 강남 봉은사에 드나들며 엄상궁의 아들 수태를 위한 백일 불공을 드렸다. 출산일이 다가와 최고급 출산용품까지 진상하자 최송설당은 엄상궁의 아들 이은李垠(영친왕)의 보모가 되며 덕수궁으로 입궐했다. 덕수궁에 들어간 지 4년 만에 역적 집안의 족쇄는 풀리고 조상 신원의 꿈을 이루었다.

### 89년 만에 역적누명을 벗다

광무 5년(1901년 11월) 고종이 ‘물적沒籍의 복권’을 내주면서, 89년 만에 ‘역적 집안’이라는 낙인을 떼냈다. 송설당은 헤이그밀사사건으로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고, 영친왕이 이토 히로부미에 의해 일본에 볼모로 끌려가면서 ‘영친왕 보모’ 역을 마감하였다.

약 10년에 불과하지만 송설당의 궁궐생활은 결정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왔다. 송설당이 궁궐에서 나온 직후 무교동 94번지에 지은 ‘송설당’이라는 큰 집과 곳곳에 낸 의연금 규모를 보면 상당한 재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영친왕을 낳고 경선궁이라는 궁호를 받은 엄비가 경선궁에 속한 상당수 토지와 영친왕궁 소속 토지 일정량을 ‘영친왕 보모’ 임무를 마치고 궁궐을 나가는 송설당에게 물려주었기 때문이라 짐작된다. 더불어 송설당의 배우자로 불리는 이용교가 창원 및 김해, 진주 군수로 지내던 시기에 확보한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박성수의 ‘조선의 부정부패 그 멸망에 이르는 역사’(규장각, 1999)에는 이용교가 탐관오리라고 적고 있다.



김천고등학교에 세워져 있는 최송설당 동상

송설당이 재력을 지닌 시점은 궁궐에서 나온 전후이다. 송설당은 1907년 6월 헤이그 밀사사건이 터지고, 그해 9월 17일 고종 퇴위와 순종 등극 그리고 영친왕 일본 볼모행 등으로 여러 일을 겪으면서 어머니와 이별하고 11년에 걸친 영친왕 보모 일도 끝났다.

경선궁이라는 궁호를 받은 어머니는 경선궁에 주어진 토지를 교육사업에 쓰기 시작했고, 그 영향을 송설당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어머니가 교육에 뜻을 두고 진명여고 건립에 기부한 땅은 모두 경선궁 소유 땅들이다. 경선궁 소유 토지뿐 아니라 영친왕궁에 속한 토지의 일부를 송설당에게 불하하였으리라 역사학계는 보고 있다. 송설당이 김천고를 설립하기 위해서 만든 송설교육재단에 기부한 토지는 몇 지역에 집중되는데, 김천이 대표적이고 김해에도 154 필지나 된다.



최송설당이 생전에 기거하던 정결재에 모인 김천고보생들



정결재. 최송설당은 만년에 송정 뒷산 정결재에 기거했으며, 정결재 정침에서 타계했다.

## 환갑 넘어 사회환원 본격화

최송설당은 중년이 되면서 '나눔'에 본격적인 관심을 쏟기 시작했다. 송설당이 실천한 첫 나눔기사는 1908년 대한매일신보에 등장한다. 이때가 지천명知天命을 넘긴 54세 때였다. 당시 미국 동포가 간행하는 공립신보를 보다가 의연금을 모집하는 취지서를 읽고 감동해서 4원을 기탁한 데 이어 1912년에는 김천 교동 주민을 위해서 벼 50섬을 희사했다. 1915년에는 여성운동을 하는 경성부인회에 거액을 기부했고, 1917년에는 김천공립보통학교, 금릉유치원, 금릉학원 등에 유지비를 냈다. 소작인에게는 1년 추수를 그대로 내줬다는 미담기사도 보인다. 불심이 깊었던 최송설당은 비구니들이 청암사를 복원하는 데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순耳順이 되던 1914년 몸을 조리하면서 약을 먹기 위해 청암사를 방문했던 송설당은 쇠락한 청암사 극락전을 중건하는 데 큰 시주를 했다. 청암사 외에 법주사, 유점사, 표훈사, 정양사 등에도 시주를 아끼지 않았다. 이들 사찰에 '송설당'을 새

긴 각석이 그녀의 보시를 짐작하게 한다.

마지막 세 번째 시기는 1930년 6월 29일 김천으로 내려와서 육영사업을 펼치며 여생을 마무리하던 때이다. 늘 절에 다녔던 송설당은 한때 재산을 정리해서 해인사에 기부하려고 작정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일제 치하라 사찰에 친일 세력들이 있다는 만해 한용운의 견해를 따라 절에 기부하는 대신 육영사업에 쓰기로 결심했다. 깨끗한 돈(정재淨財)으로 육영사업에 투자하라고 당부한 어머니의 유언도 크게 작용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으려면 무엇보다 시급하게 인재를 키워야한다고 판단을 한 송설당은 김천에 인문계 고보를 짓기로 결정했다. 고향에 인문계고를 짓기 위해 1930년 신년 벽두에 김천으로 내려오는 송설당 앞에는 취주약대를 앞세운 환영인파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송설당이 김천고보를 지을 땅 산록에 자리잡은 정결재로 향하는 길에도 반기는 사람들로 넘쳐났다.

## 백미 1만섬 규모 서슴없이 쾌척

송설당이 김천고 설립을 위해 기부한 재산은 김천, 김해, 대전 세 곳에 흩어져 있는 20만2천100원 상당의 토지와 10만원의 은행예금까지 모두 30만2천원이었다. 당시 백미 1섬은 29.77원이었으니 32만원이면 1만섬 이상을 살 수 있던 엄청난 규모였다. 하지만 어떤 대가도 바라지도 않는 순수한 기부였다. 우리나라 교육사에 길이 남을 여성 육영사업가가 탄생한 것이다.

최송설당이 처음부터 고등학교 설립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다. 1920년대 들어 전국 주요 도시에서는 고등보통학교 설립붐이 일어났다. 김천에서도 1923년 1월 고등보통학교설립기성회가 논의되어 기금운동을 폈으나 성

과를 거두지 못했다. 1928년에 김천고보기성회가 창립됐으나 이때만해도 송설당은 고아원과 유치원 설립을 구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생각을 바꿨다. 빼앗긴 나라를 건지려면 인재를 길러야했다. 인문계 고등학교를 만들고 싶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제 학무국이 설립을 허가하지 않았다. 상고나 농고를 만들라는 것이다. 물러날 송설당이 아니었다. “인문계 고보 설립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기부를 취소하겠다.”고 나서는 한편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다. 총독부 방침을 고치지 않은 채 인문고를 건립한다는 목표는 힘들 것으로 판단했다. 집안 신원을 위해서 엄비에게 다가갔듯이, 인문고 허가를 받기 위해 사이토오齋藤實 총독의 아내를 만나 간곡하게 뜻을 전했다. 결국 총독부는 1930년 10월말, 김천고보 설립을 허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듬해 1월, 고등보통학교 규정 일부를 개정하여 인문고에 실업과목을 첨가하였다. 그런데 밀고 당기면서 개교가 일 년 늦어지는 바람에 설립 자금 충당에 차질이 빚어졌다. 원래 송설당이 기부하기로 했던 재산이 302,000원에 1930년도 수익예상금이 26,000원이었는데, 세계 대공황의 여파로 쌀값이 폭락하는 바람에 16,000원의 부족분이 발생했다. 당장 총독부 학무국이 제동을 걸고 나왔다. 그러나 최송설당은 물러서지 않고, 마지막 남은 처소인 무교동 55간 짜리 ‘송설당’ 집을 내놓겠다고 선언했다. 무교동 집 평가액이 23,000원이어서 총독부의 이익제기를 막기에 충분했다.

1931년 2월 5일, 재단법인 송설당교육재단이 인가를 받았고, 3월17일에 김천고보 설립이 총독부 학무국에 의해 정식 승인(총독부 고시 제145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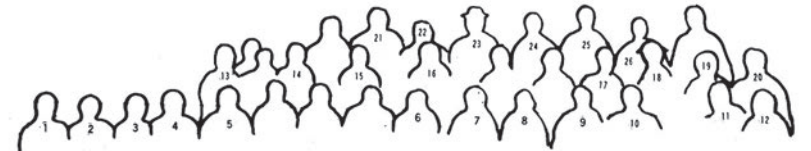


최송설당 동상 건립식에 참석한 송진우(왼쪽), 여운형



개교5주년기념행사 및 교주 동상 제막식

銅像除幕式을 마치고



- |           |         |         |         |         |
|-----------|---------|---------|---------|---------|
| 1. 백관수    | 7. 김병익  | 13. 이정택 | 19. 권상집 | 25. 최동열 |
| 2. 최규동    | 8. 강석준  | 14. 신상태 | 20. 석태인 | 26. 김도무 |
| 3. 김천여고교장 | 9. 이창구  | 15. 정열모 | 21. 여운형 |         |
| 4. 송진우    | 10. 선응수 | 16. 심상민 | 22. 최석태 |         |
| 5. 전성오    | 11. 서춘  | 17. 황찬주 | 23. 이한기 |         |
| 6. 오국영    | 12. 이인  | 18. 고덕환 | 24. 김종호 |         |

## 적막한 김천을 활기찬 김천으로

동아일보 1931년 4월 25일지는 “최송설당의 김천고보 개교는 적막의 김천을 활기의 김천으로, 초야의 김천을 이상의 김천으로 만들었다.”고 평가하였다. 김천고보 초대교장은 안일영이었다. 학생을 받기 위해, 1931년 3월 27일과 28일 입학시험을 치렀다. 5월 9일 강당을 준공했다. 아직 본관을 짓고 있던 터라, 강당에서 입학식을 치르고 수업을 시작하였다. 5학급으로 시작했다. 나라를 구할 인재양성이 목표였던 김천고보는 개교하면서 학생을 정원보다 50%나 더 뽑았다. 빨리 더 많은 인재를 길러내려는 파격이었다. 교사도 전국 최고를 모셨다. 서울 월급의 배를 주면서 최우수 교사로 진용을 갖췄다. 1932년 1월 15일, 제2대 교장 정열모가 부임했다. 애국적 국어학자 정열모 교장은 1942년 10월 20일 조선어학회사건으로 투옥되어 1944년 9월 30일까지 옥고를 치를 정도로 치열한 민족정신을 지닌 인물이었다. 정열모 교장의 가르침 아래 수많은 구국 동량들이 김천고보로 몰려왔다. 김천고보 지원자는 김천 뿐 아니라 상주, 의성, 선산, 성주, 고령에서도 찾아왔다. 민족을 구할 인재 양성에 무게중심을 둔 김천고보의 개교는 송설당의 성공작이자 나라를 위한 든든한 투자였다.

김천고가 있어서 일제 암흑기 김천은 희망이 있었다. 송설당이 81세가 되던 1935년 11월30일, 동상건립 얘기가 나왔다. 전국에서 뜨거운 호응을 보내왔다. 조만식, 방응모, 윤치호 같은 저명인사는 물론이요, 신의주고보, 동래일신여학교, 대구계성학교, 금오산공립보통학교 등 학교 단위에서도 성금을 보내왔다. 심지어 만주에서도 성금을 보내왔다. 경향 각지 502명이 5,945원을 동상 제막식 경비로 냈다. 적게는 10전부터 많게는 50원까지 성

금을 보내왔다. 제막식 당일엔 장관이었다. 전국에서 하객이 물밀듯 몰려들었다. 김천고보 운동장에는 교직원 37명, 전교생 250명의 세공절이 넘는 하객 7~800명이 운집했다.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오카자키(岡崎) 경북도지사, 와타나베(渡邊) 학무국장, 송진우 동아일보 사장, 여운형 조선중앙일보 사



최송설당여사의 첫동상은 일제강점기에 공출됐고 교정뒤면에 새로 세워진 흉상

장, 방응모 조선일보 사장, 초대 법무부장관 이인 변호사 등 경향 각지의 저명인사가 총출동했다. 대구가 낳은 겨례의 큰 스승 이인(1896~1979) 변호사는 만해와 함께 송설당을 설득하여 김천고보 설립으로 마음을 돌리게 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 사막의 오아시스 김천고

제막식에서 여운형은 최송설당이 세운 김천고보를 ‘사막의 오아시스’에 비꼴다. 일제 탄압이라는 어두운 사막에서 김천고보는 살아갈 희망을 샘솟게 한 오아시스나 마찬가지였다. 살아생전 큰 복을 지은 송설당은 기라성 같은 인사 1,000여 명의 축하를 받으며 동상을 봉정받았다. 이 모든 것이 감사했던 최송설당은 마지막 남은 한 점 재산까지 다 모아 특별교실(과학



교정을 내려다 보며 영면중인 송설당

관) 건립비용으로 냈다. 무일푼 송설당이 생활비를 아껴 마련한 돈이었다. 그렇게 모든 것을 기부한 송설당은 1939년 6월 16일 오전 10시 40분 재단 이사를 비롯한 간부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85세를 일기로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학생들이 울고, 김천이 흐느꼈다. 학교장으로 임수된 장례식은 휘날리는 만장과 조화, 조건, 조문객으로 진풍경이 펼쳐졌다. 김천고 학생과 동창생 3백여 명이 조가를 올리는 악대 뒤를 따랐고, 운구행렬이 끝없이 이어졌다. 운구행렬은 발인 현장인 김천고보에서 장례식장인 공설운동장(현 모암초교)까지 약 5km나 이어졌다. 한 점 남김없이 모든 것을 2세 교육에 희사한 육영사업가 최송설당의 영생을 기원했다. 송설당의 묘소는 학교 뒷산에 있다.

“치마를 둘러서 여성이지 사내 대장부”라는 말을 들은 송설당은 늙름한 기상과 넓은 도량, 맑은 천품과 우렁찬 목소리로 상대방을 압도했지만, 언제나 작은 것부터 절약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쌀 뜨물에 쌀이 한 톨이라도 들어있으면 야단을 쳤다. 농부의 수고를 모르면 안된다는 것이다.

송설당은 수많은 가사도 남겼다. 모산 심재완은 『최송설당의 가사』에서 송설당 가사 49편과 한시문까지 소개하였다. 문장에 구김살이 없으며 유창하다. 여성다운 다정다감한 정서를 드러내거나 관조적 시세계를 구현하였고, 절절한 가문의식과 조상을 위하는 마음도 담았다. 대부분의 가사는 이순 넘어 여유가 있을 때 지었다. 자연예찬이나 인생무상, 여성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소회를 담고 있다. 표현기교는 섬세하며, 해박한 용어를 구사하였고, 언어구사가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 배우지 않으면 옷 걸친 소

3권 3책의 석판본으로 1922년 12월 1일에 발간된 『송설당집』에 실린 송설당의 한시는 모두 167수이다. 송설당이 한시를 지은 시기는 선조의 설원을 성취한 때(1901년)를 전후하여, 1912년 송설당을 건립하고 1922년 문집을 발간하기 이전이며 시적 공간은 주로 나라를 잃은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송설당 한시에는 현실을 직시하여 인간답게 사는 일로부터 나라를 회복하고 세계의 평화를 염원했던 애민, 애국, 우국의 간절한 정회가 담겼다. 한마디로 시문에 능하여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절로 뛰어난 글을 이루었고, 굳은 절조와 장부다운 기상이 있어 우국의 정서를 시에 담기도 했다. 또한 우아하고 속기가 없는 시를 썼다. 송설당은 배우지 않으면 옷 걸친 마소가 된다고 항상 경계하였으며, 평소에도 독서에 열중하였음을 한시 ‘월야’에서 알 수 있다. 특히 송설당은 교육은 인격을 닦는 바탕임을 강조하였는데, 이한모가 돌 다듬는 것을 보고 쓴 <관이한모치석觀李漢模治石>이라는 한시에서는 갈고 닦아 빛을 낸다는 절차탁마가 곧 학문의 과정이며, 절차탁마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군자가 되는데 있다고 노래했다. 또 송설당은 인간 존재의 가치는 유용한 존재가 되는데 있음을 <송松>이라는 한시에서 은유하였다. 소나무가 자라 마룻대와 돌보감이 될 때까지 지금 키우는 사람은 늙어서 못 보리라는 것이다. 곧 사람의 교육은 인재를 양성 하되, 그 인재를 다음 세대의 주역들이라고 노래했다.

송설당 사후 김천고보는 시련을 겪으면서도 발전을 거듭했다. 1942년 10월에 터진 조선어학회 사건에 제2대 교장 국어학자 정열모가 연루되자 학

교는 강제 폐교됐다. 김천고보를 빼앗긴 송설당교육재단은 공립 김천중학교의 후원단체로 전락했다가 1953년에야 학교를 되찾았다. 김천의 정신으로 자리잡고 있는 김천고보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한 최송설당은 한국어 성사 또는 조선문화사의 첫머리를 장식하기에 충분하다.

1932년 6월 2일자 《동광》에서 춘원 이광수는 “최송설당 등 사회봉사자들의 가룩한 행위가 서양식 개인주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전설적 조선정신에서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미화(매일신문 논설실장)

## 남녀평등을 꿈꾸었던 여성운동가, 근우회 중앙집행위원 정칠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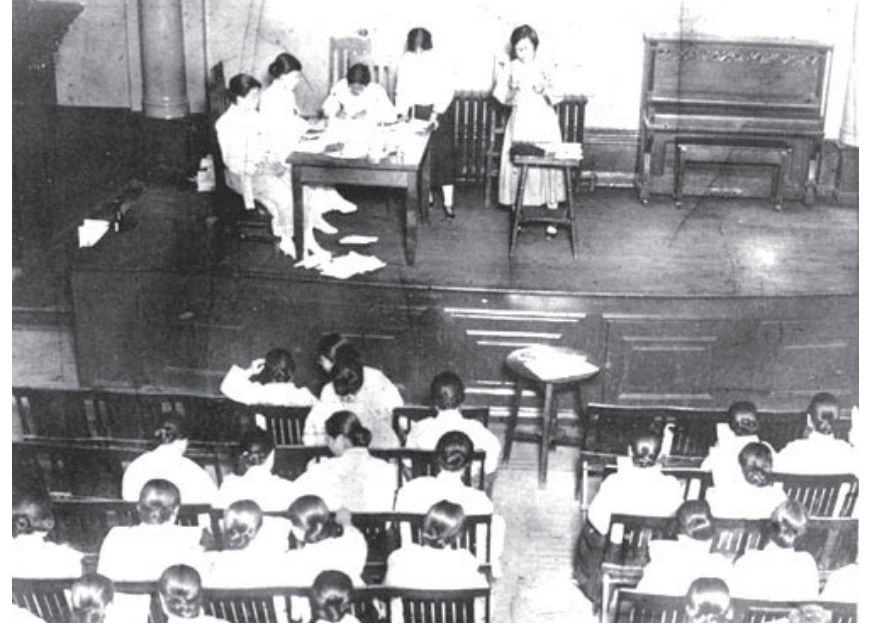


정칠성은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여성운동가이다. 20대 중반까지 기생이던 그녀는 3·1운동 이후 여성운동가로 변신하였다. 1927년 전국적 여성 통일기관인 근우회를 이끌며, 계몽운동과 여성권익 향상, 나아가 항일운동을 펼쳤다. 일제강점기 사회주의 여성운동가들은 여성운동의 방향을 제시하여 사회운동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 중심에 바로 정칠성이 있었다.

### 기생으로 성장하여, 여성운동가가 되다

금죽錦竹이라는 기생 이름을 가진 정칠성丁七星(1897~1958)은 대구 출신이다. 그녀는 일곱 살의 어린 나이에 기생학교에 들어갔다. 보통은 12~13세나 되어야 기생이 되는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그녀의 어려운 가정형편을 짐작할 수 있다. 1915년까지 대구에서 생활하던 그녀는 18세에 서울로 올라가, 한남권번漢南券番에 등록하였다.

한남권번은 1917년 다동기생조합에서 독립한 한남기생조합에 뿌리를 두



근우회

고 있다. 엄격한 수련을 거쳐 사람들 앞에 나갔던 전통의 기생제도는 일제강점과 함께 변화를 맞이하면서 기생조합이 생겨났다. 1908년 일제는 '기생 및 창기 단속시행령 제정건'을 내려, 모든 기생은 조합을 통해 영업을 하도록 규제하였다. 이에 따라 그 해 말부터 기생조합소가 만들어졌고, 3, 4년 뒤 다시 기생조합으로 바뀌었다. 이 기생조합이 1917년부터 '권번'이라는 일본식 이름으로 바뀌면서, 한남기생조합은 한남권번이 되었다. 이곳은 말 그대로 한강 이남에서 올라온 여자아이들이 있었다.

기생으로서 정금죽에 대한 기록은 그리 많지 않지만, 그녀의 존재는 단연 두드러졌다. 『별건곤』 8월호(1927년)에 따르면 정칠성은 17세에 승마를 배우는 파격성을 보이기도 했다. 또 《개벽》에 실린 「경성의 화류계」라는 제목의 글에는 그녀가 단발미인으로 장안에 화제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칠성은 기생의 삶에 안주하지 않았다. 그녀는 3·1만세운동 뒤 '기름에 젖은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고' 홀연히 일본으로 떠났다. 온 민족이 독립



## 근우회 중앙집행위원이 되다.

정칠성은 1924년 조선여성동우회를 조직하고, 집행위원이 되었다. 이는 그녀가 사회주의를 수용하고, 본격적인 여성운동가의 길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조선여성동우회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해방을 내세우며, 정종명·허정숙·주세죽·정칠성 등이 1924년 5월에 조직한 최초의 사회주의 여성단체였다. 이회는 한국의 여성이 노예상태에 있음을 지적하면서, 여성의 인간적·경제적 평등권을 주장하였다. 그들의 이상은 「조선여성동우회 창립선언」에 잘 드러난다.

사람으로서 사람다운 생활을 하지 못하고 권리없는 의무만을 지켜오던 여성 대중도 인류역사의 발달에 따라 어느 때까지든지 그와 같은 굴욕과 학대만을 감수하고 있을 수는 도저히 없게 되었다. 우리도 사람이다. 우리에게도 자유가 있으며 권리가 있으며, 생명이 있다.(중략) 우리는 성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남성의 압박 노예가 되고 말았다.(중략)아! 우리도 살아야 하겠다. 우리도 잃었던 온갖 우리의 것을 찾아야 하겠다. (조선여성동우회 창립선언)

“여성도 자유가 있으며 권리가 있으며, 생명이 있는 똑같은 존재이다. 그러나 남성의 압박에서 벗어나 잃었던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내용이다. 여성동우회는 이러한 의식 아래 여성문제를 다룬 강연회와 여성노동자를 위한 위로음악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그들의 사업은 순탄치 않았다. 강연회 등은 일제 당국으로부터 금지조치를 당하기 일쑤였다. 정칠성은 이 회를 조직하고, 중앙에서 활약하는 한편

1925년 3월 경북 도단위 사상단체 사합동맹四合同盟 결성에 참여했다. 이어 그녀는 다시 일본으로 건너갔다. 두 번째 일본행이었다.

동경으로 건너간 정칠성은 1925년 3월 동경 여자기예학교에 입학하였다. 그리고 여성사상단체 삼월회三月會를 조직하였다. 이회는 1925년 3월 동경에 유학하고 있던 정칠성·이현경·황신덕 등 여자 유학생들이 조직한 사회주의 여성단체이다. 설립 목적은 조선무산계급 및 여성의 해방이었다. 삼월회는 1925년 12월 총회를 열어 “조선 여성은 계급적 봉건적·인습적 압박의 철쇄에 얽매어 있으므로 무산계급 남성과 손을 잡고 인류의 압제를 근본적으로 모두 없애고, 대중 중심의 새 사회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선언하였다. 이러한 방침 아래 조선인 노동자 학살사건이 있자 조사회를 만들기도 하고, 조선무산계급단체에 자금을 기부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

정칠성은 1926년 1월 삼월회 간부로서 <조선일보>에 「신여성이란 무엇」

**大邱女子青年**  
嗚々の聲을始發

大邱에는 지금까지女子界의團體가 없었고 오직宗教附屬의 一 二 個의女子青年會라는 것이 있었지만此亦微弱하나女子界의消息을 말하야 앞을 내다볼 수 있다 이에 뜻있는新女子徐福珠金貴祚趙永守丁七星李元任等諸氏가奮然히起하여大邱女子青年會를組織하여去十七日午後八時明新女學校講堂에서創立總會를開하는嗚々の聲을發하였다 定刻이 되어 淸雅한金貴祚嬢의獨唱의一曲으로會を開하고臨時會長臨時書記를推薦한後도한會歌의獨唱이有하였스며次에趣旨說明規則通過委員과顧問의選舉를終了하고同十時에閉會하였는데總務顧問選舉件은委員會에一任하기로하였는바被選委員은如左

徐福珠 金貴祚 李元任 趙永守 丁七星 李元任 李春壽(大邱)

대구여자청년(동아일보 1923.10.24)

인가를 발표하여, “진정한 신여성은 옛 제도의 불합리한 환경을 부인하는 강렬한 계급의식을 가진 무산여성으로서 새로운 환경을 창조하고자 하는 정열이 있는 새 여성”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강렬한 계급의식을 가지고 옛 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환경을 만드는 무산 여성만이 진정한 신여성이 될 수 있다고 정의를 내린 것이다. 일본에서 사회주의 사상의 이론적 기반을 착실하게 쌓은 정철성은 1926년 봄 귀국하였다. 이 무렵 사회주의계 여성운동은 분파로 인해 약화되어 있었다. 그녀는 침체된 조선여성동우회의 활성화에 노력하였다.

이어 정철성은 1927년 5월 근우회 결성에 참여하여, 중앙집행위원이 되었다. 이는 여성운동의 전국적 통일기관이었다. 민족유일당으로서 신간회가 탄생하자 여성운동계도 통합을 추진하여, 1927년 5월 27일 근우회를 창립시킨 것이다. 근우회의 창립은 한국근대여성운동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발기총회는 1927년 4월에 40인의 발기인



부인교양동아일보 1930.1.2)

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에 정철성이 참여하였다. 이어 1927년 5월, YMCA 강당에서 회원 150명과 방청인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가 열렸다. 여기에서 21명의 집행위원이 선출되었는데, 정철성은 박신우·유각경·정종명과 함께 조직선전부를 맡았다. 기생 출신의 정철성이 어느덧 여성운동계의 지도자급으로 성장한 것이다.

근우회는 ① 강연회와 토론회·강좌 등을 통한 선전계몽활동 ② 노동여성 조직화 노력 ③ 여학생운동 지원 등의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근우회 운동에 대한 일제의 계속되는 탄압으로 인해 활발한 활동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지도부는 여러 차례 고초를 겪었다. 1930년 1월 정철성은 학생운동 지도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허정숙·박호진·박차정 등과 함께 붙잡혀 구금되기도 했다.

어렵게 명맥을 유지하던 근우회는 신간회와 더불어 해소(해산)을 결정하였다. 해소를 위한 회의가 개최되자 여기에 참여하여 중앙집행위원으로 활약하기도 했다. 그러나 모든 여성운동이 근우회로 집중되었던 만큼 근우회 해소는 한국여성운동계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근우회 해산이후 1930년대 여성운동은 일제의 파쇼체제의 강화로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정철성 또한 30년대부터 경성·평양·대구·통영에서 편물강습 등으로 생활하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 조선부녀총동맹 중앙위원이 되다

기생에서 여성운동가로 변모한 정철성은 오롯이 여성운동에 온 힘을 다했다. 그는 일본유학시절 한 기자로부터 로맨틱한 순간이 없었느냐는 질문

을 받고, 아래와 같이 답하였다.

나는 남들과 달리 어려서 실컷 고생도 하고 여러 가지로 사회의 현실 면에서 많이 거쳐 나온 뒤에 나이를 상당히 먹고 처음으로 학교에 들어갔기에 어린 학생들이 흔히 가지는 터무니없는 공상이라든가 또는 로맨틱한 달콤한 꿈같은 것은 꾸어보지도 않았어요. 나는 학생시대를 실로 가치 있고 유익하게 지냈다고 볼 수 있어요. 《삼천리》 1935년 12월

정철성은 '낭만적 사랑을 꿈꾸는 여성', '남성에게 사랑받는 여성'으로 살기보다는 주체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기를 희망하였다. 그녀가 두 차례의 일본유학을 감행한 이유 또한 교육을 통해 주체적인 자아로 살기 위해서였다. 나아가 다른 여성들에게도 그 길이 열리기를 희망하며, 여성운동에 나선 것이다.

이러한 정철성의 생각은 1929년 9월 《삼천리》에 실린 글에서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이 글은 「일상생활에서 가정적 의무와 사회적 의무가 충돌할 때 조선여성은 어느 쪽을 더 따라야 하는가?」라는 한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이다.

그야 여자란 병풍 속에 그런 닭같이 인형의 집 안에서 고요히 들어앉아서 밥이나 먹고 잡이나 지던 옛 시대에는 가정 이외에 또 남편 이외에 더 소중한 것이 없어서 여성의 의무란 거의 그 가정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 전부였겠지요. 그러나 급격한 호흡을 쉬고 있는 현대 같은 어느 과정에선 사회에서 여자의 동원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큰일에 나와 달라고 희생하여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이 청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떳떳한 이치 인데요. 어쨌든 가정은 소(小)한 것이되다. 사회는 대(大)한 것이다. 그러나 까의례히 우리들 신여성이나 나아갈 길이란 분명하지 않습니까?

《삼천리》 1929년 9월

정철성은 서슴없이 신 여성은 가정이라는 '소小' 보다는 사회라는 '대大'를 위하여 일해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현대사회는 여성의 참여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확신하였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정철성을 사람들은 '사상기생'이라 불렀다. 이 무렵 '사상기생'들이 적지 않았지만, 그녀의 행보는 단연 두드러진다. 단순히 남성운동을 돕기 위해 헌신적인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감상적 신여성'도 아니었으며, 여성으로서 넘을 수 없는 한계를 안타까워하며 애끓는 마음을 글로 쏟아내던 낭만적 '문학기생'과도 달랐다.

해방 뒤인 1945년 9월 정철성은 조선공산당 경북도당에 참여하고, 부녀부장이 되었다. 이어 10월에는 조선부녀총동맹 중앙위원이 되었다. 아무리 평등과 자유가 넘쳐나던 해방 직후라고 하더라도 기생 출신으로 여성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은 분명 놀라운 일이었다. 이 무렵 남녀평등을 염원하는 정철성의 목소리는 한층 고조되었다. 「조선의 남편들이여, 여성계몽에 힘쓰는가?」라는 주제아래 정치적 압제와 더불어 남성들의 무관심에 대해 비판하였다.

그 중에도 이중삼중으로 억눌리고 질식하는 여성들의 운명은 언제까지든지 기구만 하구려. 정치적 압력은 우리들의 직접적인 투쟁대상이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 더욱 절박한 고통을 주는 것은 조선의 남편들이예요. 소위 민주진영의 일꾼들까지 가정 내의 민주주의는 영 모르고 아내를 계몽하지 않고 독서나 집회를 위해서 시간을 주지 않고 이려고는 여성운동이 활발하지 못한 것만 개탄하잖아요. <독립신보> 1946년 11월 14일자

이러한 정철성의 외침은 1947년 월북을 선택하면서 우리의 기억 속에서



국제부인일 기념(자유신문 1946.3.9)

사라졌다. 더구나 그녀가 꿈꾸던 사회주의는 현실정치에서 사실상 막을 내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녀의 삶을 끄집어내는 것이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녀가 간 길은 일제강점이라는 극악한 상황 속에서 누구나 갈 수 있는 쉬운 길은 아니었다.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 일찍부터 남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전선에 뛰어든 그녀가 느꼈던 사회의 벽, 민족의 벽은 참담 그 자체였을 것이다. 그러나 정철성은

환경에 굴하지 않고 새로운 사회를 꿈꾸었으며, 그 새로운 사회를 모든 여성들에게 주기위해 온 힘을 쏟았다. 차별과 억압에서 벗어나 모든 여성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사는 세상을 열망하며, 거침없이 달려갔던 정철성의 행보는 분명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길이였다.

페미니즘(feminism) 또는 '여권주의女權主義' 라고도 표현되는 여성운동은 인격의 확립과 생활의 독립을 목표로 하여 종래의 속박과 압제로부터 여성의 자아해방과 생활영역 확장을 일궈내고자 하는 운동이다. 그러나 한국의 여성운동은 일제의 식민지라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특수성과 독자성을 확보하였다. 즉 여성운동이 봉건적 질서에서 벗어나 여성의 권리와 정치·경제·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일반적인 세계여성운동의 흐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민족운동의 일익을 담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성들은 여성 스스로의 몫을 찾아야 할 뿐만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여권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한국 여성들은 개항기부터 국권회복운동에 나선 것이다. 그 가운데 사회주의 여성운동가들은 여성운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운동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정철성은 그 대표적인 사례에 속한다.

강운정(안동독립운동기념관 학예연구실장)

제 3 장

언론·문학·  
예술 분야를  
개척하다

## 영남지역 최초의 여성성악가 추애경



대구 신명여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이화학당에서 성악을 전공한 추애경은 영남지역 최초의 여성 성악가이다. 신명여학교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음악활동을 했으며, 일본과 미국에 유학하여 피아노와 성악을 전공했다. 특히 미국에서 음악대회에 출연하여 호평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시대상황으로 인해 한국으로 귀국하지는 못했지만 제1세대

서양음악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며 후배 여성들이 음악가로서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초석을 놓았다.

### 교회를 다니며 성악가로서의 꿈을 키우다

제1세대 서양음악가 추애경秋愛卿(1900.7.18~1973.??)은 대구시 중구 동산동 10번지에서 아버지 추영옥秋永玉과 어머니 최복경崔福卿의 2남2녀 중 세 번째 2녀로 태어났다. 당시 아버지 추영옥은 서문시장에서 건어물상회를 운영하였는데, 상호가 청송이라 청송덕으로 불렸다고 한다. 추애경의 원래 이름은 추동암秋東岩이었다. 어릴 적부터 신명여학교를 다닐 때까지(1915~1918)는 추동암으로 불렸지만, 신명여학교를 졸업한 후 이화학당에

입학하면서부터는 추애경이란 이름으로 개명하였다.

추애경은 대구사립고등보통학교를 4년간 다녀 졸업했는데, 당시 보통학교의 모든 과정은 4년간이었다. 정확히 언제 고등보통학교를 다녔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1915년에 중학교 과정인 신명여학교에 입학했으므로, 1911년에 입학하여 4년간 보통학교 과정을 마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당시 집안사람들 모두가 교회에 다니지 않았지만 추애경은 1914년부터 제일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였다. 당시 신명여학교에 입학하려면 교회에 출석하고 있어야만 가능했기 때문이다. 추애경은 이곳 제일교회에서 장래 남편이 되는 김태술金泰術(1899~1979)을 비롯하여 성가聖歌를 좋아하고 즐겨 부르는 음악가 박태원朴泰元(1897~1921), 박태준朴泰俊(1900~1986), 권영화權永和(1899~1935) 그리고 현제명玄濟明(1903~1960) 등을 만나게 된다. 당시 이들은 모두 잘 아는 친한 사이였다. 박태원은 1897년생이고, 그의 동생 박태준은 추애경과 같은 1900년생이다. 또한 김태술과 권영화는 1899년생으로 자신보다 한 살 많고, 현제명은 1903년생으로 세 살이나 적다. 이렇듯, 서로 몇 살 차이가 나지 않으며, 같은 종교를 가졌고, 더욱 성가를 통한 모임으로 인하여 서로 잘 아는 관계가 된 것 같다.

### 이화학당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교사가 되다

1914년, 곧 대구사립고등보통학교 4학년 재학 때부터 종로에 위치한 제일교회에 다닌 추애경은 이듬해(1915년) 같은 기독교계 학교인 신명여학교에 입학하여 고등보통과 4년 과정을 마치고 1919년에 졸업하였다. 곧 신명여학교 제7회 졸업생(3월 19일 졸업)이 되는데, 그해 3월 8일 3·1운동의 시

私立信明學校學籍簿									
學 籍					學 生				
年 級	年 次	年 月	日	名 稱	姓 名	年 齡	入 學	退 學	備 註
第一學年	第一學年	第一學年	第一學年	第一學年	李 某	15	1919. 3. 1		
第二學年	第二學年	第二學年	第二學年	第二學年	金 某	16	1920. 3. 1		
第三學年	第三學年	第三學年	第三學年	第三學年	安 某	17	1921. 3. 1		
第四學年	第四學年	第四學年	第四學年	第四學年	韓 某	18	1922. 3. 1		
第五學年	第五學年	第五學年	第五學年	第五學年	李 某	19	1923. 3. 1		
第六學年	第六學年	第六學年	第六學年	第六學年	金 某	20	1924. 3. 1		
第七學年	第七學年	第七學年	第七學年	第七學年	安 某	21	1925. 3. 1		
第八學年	第八學年	第八學年	第八學年	第八學年	韓 某	22	1926. 3. 1		
第九學年	第九學年	第九學年	第九學年	第九學年	李 某	23	1927. 3. 1		
第十學年	第十學年	第十學年	第十學年	第十學年	金 某	24	1928. 3. 1		
第十一學年	第十一學年	第十一學年	第十一學年	第十一學年	安 某	25	1929. 3. 1		
第十二學年	第十二學年	第十二學年	第十二學年	第十二學年	韓 某	26	1930. 3. 1		
第十三學年	第十三學年	第十三學年	第十三學年	第十三學年	李 某	27	1931. 3. 1		
第十四學年	第十四學年	第十四學年	第十四學年	第十四學年	金 某	28	1932. 3. 1		
第十五學年	第十五學年	第十五學年	第十五學年	第十五學年	安 某	29	1933. 3. 1		
第十六學年	第十六學年	第十六學年	第十六學年	第十六學年	韓 某	30	1934. 3. 1		
第十七學年	第十七學年	第十七學年	第十七學年	第十七學年	李 某	31	1935. 3. 1		
第十八學年	第十八學年	第十八學年	第十八學年	第十八學年	金 某	32	1936. 3. 1		
第十九學年	第十九學年	第十九學年	第十九學年	第十九學年	安 某	33	1937. 3. 1		
第二十學年	第二十學年	第二十學年	第二十學年	第二十學年	韓 某	34	1938. 3. 1		

신명여학교 학적부

발점이 되는 대구 서문시장에서 주도적으로 앞장서 만세를 부르기도 하였다.

신명여학교를 1919년 3월에 졸업한 추애경은 2년 후 1921년에 이화학당 대학예과(1917년 이전에는 중등과)에서 성악(소프라노)을 전공하여 1923년 제16회로 졸업하였다. 그리고 이화학당 본과에 다닌 추애경은 그해 8월에 개최된 만국기독교청년회萬國基督青年會 주최의 하령회夏令會(A Summer Church Conference)에 대구대표로 참석한 바 있다.

이후 1925년에 본과과정을 마치고(제11회 졸업) 신명여학교에 교사로 재직하게 된다. 당시 일간지에 교육자로서 자신의 포부를 밝히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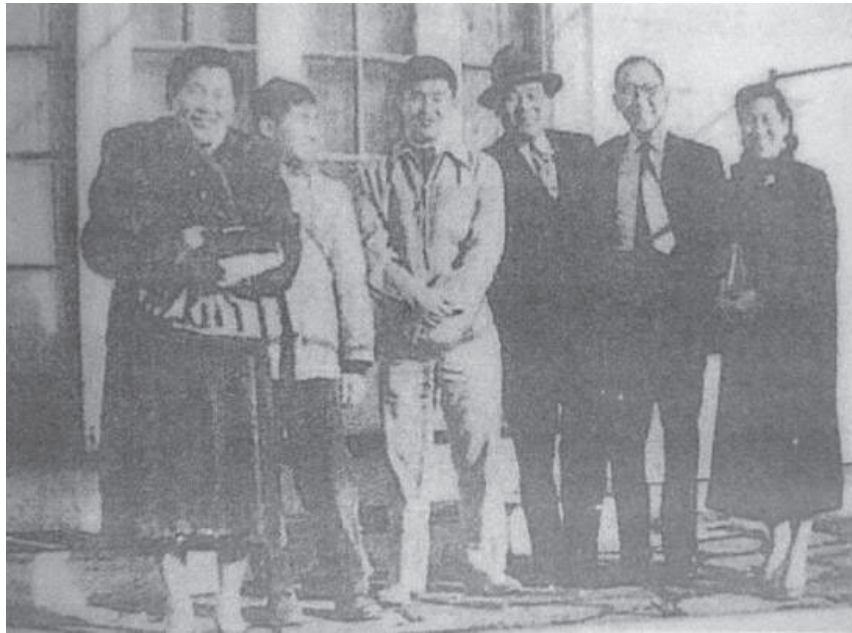


추애경승별음악회(대구제일소학교 강당, 1927년 6월 3일)

또한 신명여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대외 음악활동을 주관하였다. 1926년 7월, 김성실金成實, 안예아安禮娥, 한만복韓萬福, 이찬李讚, 권영화 등 대구청년회·대구여자청년회와 함께 하기음악무도夏期音樂舞蹈를 대구에서 개최하기도 하였다.

### 일본과 미국으로의 유학

추애경은 음악공부에 대한 욕심으로 일본과 미국으로의 유학을 결심하게 된다. 당시는 일제강점기라 한국에서 미국으로 곧바로 갈 수가 없었다. 일본에서 미국 가는 배를 타야만 가능했다. 그녀는 미국으로 가기 전까지 일본에서 음악공부를 했는데, 성악이 아닌 피아노 공부였다고 한다. 1926년 일본 규슈 나가사키현에 위치한 가즈이(活水)여자전문학교 음악과에서 피아노 전공으로 수학했던 것이다. 이화학당 및 이화여전을 졸업한 학생들은



추애경 가족사진(1950년대) 미국. 왼쪽 첫째부터 추애경(Ruth Kim), 셋째아들, 첫째아들 김상열(Samuel Homer Kim), 남편 김태술, 강복장 사장, 남동생 추교명의 딸 추국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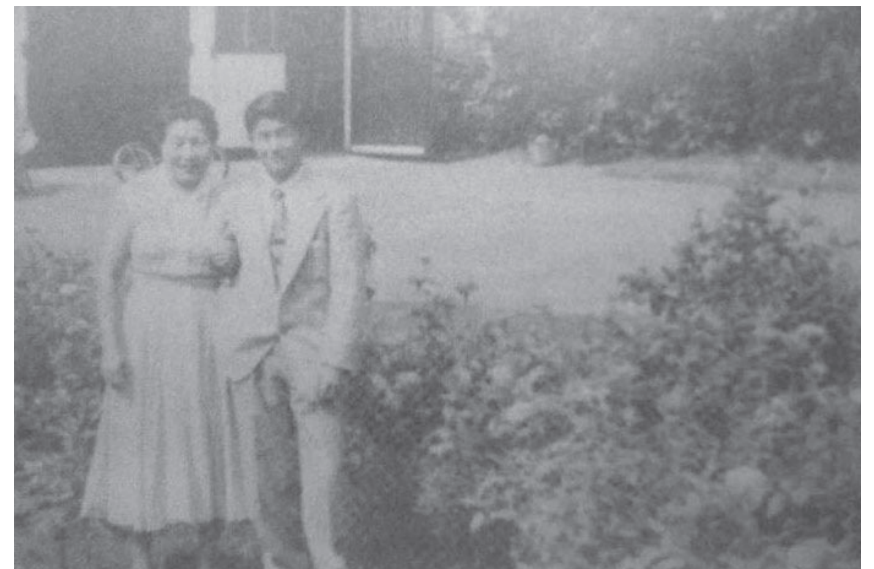
당시 외국으로 유학하기 위해 일본 가즈이 여자전문학교를 거쳐 미국 보스톤 등으로 유학하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이화여전 교수 중 가즈이 여자전문학교를 졸업한 일본인 교수가 있었으며, 미국 보스톤으로 유학한 선배들이 있었으므로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듬해 1927년 6월 4일,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유학의 주선은 이미 현재 명을 미국으로 보냈던 로드히버(Homer A. Rodeheaver, 1880-1955) 선교사가 하였다. 미국 인디애나주 위노나 레이크에서의 무지개레코드(Rainbow Records)사 창립자이며 기독교음악에 헌신자인 호머 로드히버가 미국행 경

비와 뉴잉글랜드음악원의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이뤄졌던 것이다.

1927년 6월 추애경이 미국으로 유학간다고 하여 주위 대구음악인들이 송별음악회를 마련하였다. 대구를 떠나기 하루 전날 6월 3일 대구제일소학교 강당에서 추애경의 송별음악회가 열렸던 것이다. 1927년 당시 대구에는 음악을 연주할 전문적 음악회장이 없었다. 음악회는 주로 대구제일소학교강당이나 조양회관에서 이뤄졌다. 대구제일소학교강당은 구 중앙초등학교 자리(현재 대구 2·28기념중앙공원 자리)에 있었던 옛 건물이고, 조양회관은 달성공원 주위 옛 원화여고로 사용되었던 위치의 건물이다.

이 음악회는 미국 워싱턴대학으로 음악유학을 떠나는 추애경을 축복하는



큰아들 김상열과 함께(미국, 1950년)

발표회였다. 추애경 자신을 비롯하여, 김애국金愛國·주복남朱福南·박태준朴泰俊·차원석車元錫·전신희甄信姬가 출연하여 연주한 바 있다. 특히 주복남의 피아노반주에 박태준이 「이별가」(잘 가시오)를 노래하여 아쉬움을 더욱 표현하였다.



### 미국에서의 활동

미국으로 유학간 추애경은 1927년부터 사블 워싱턴대학교 음악과에서 성악전공으로 수학하고, 이어서 보스턴으로 학교를 옮겼다. 한편 1927년 여름 워싱턴대학교 음악과에 관계한 직후 추애경은 북미에서 실시된 성악콩쿠르에 출전한 바 있다. 이 음악대회는 그해

미국에서의 추애경(Ruth Kim, 1933년) 8월 8일~28일까지 와이노나(Wynonna) 호반湖畔에서 전미주全美洲에 있는 각국학생 중에서 실력이 있는 33개국 200명의 음악가(성악·기악·작곡)가 모여 하기음악대회夏期音樂大會를 개최하고, 대회 마지막 이틀 동안 현상독창대회懸賞獨唱大會가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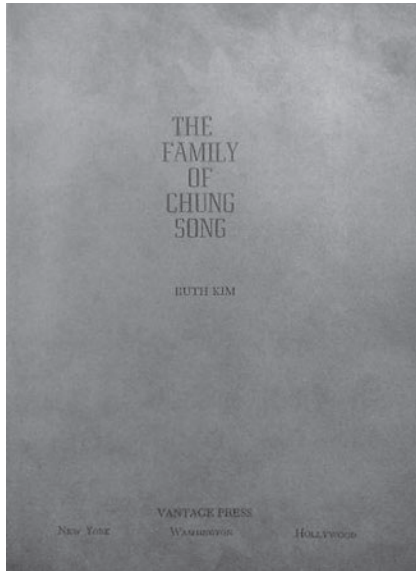
이 하기음악대회에 시카고의 추애경을 비롯한 한국음악가는 모두 3명인데, 뉴욕의 김태술과 시카고의 현제명이 그들이다. 이 음악대회에서 현제명이 1등으로 뽑혔다. 이렇듯 이들은 미국유학 시절에도 함께 음악대회에 출전할 정도로, 서로 잘 아는 사이로 모두 대구 출신들이다. 한편 이듬해 보스턴 MIT공과대학 연구원에서 전기학 전공으로 미국유학 중이던 김태술은 1928년 1월 전미주대학정구선수권을 획득하여 미국 보스턴지에 대서특필

되기도 하였다.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성악공부를 시작한 추애경은 1930년 보스턴 뉴잉글랜드 컨서바토리음악원(Boston New England Conservatory)에 성악전공으로 입학하였다. 추애경은 뉴잉글랜드음악원에 입학하기 2년 전, 워싱턴대에 재학중이던 1928년 8월 25일에 인디애나주 완나텍에서 매시 목사의 주례로 김태술과 결혼식을 올리게 된다. 이후 추애경은 보스턴 뉴잉글랜드음악원을 대표하여 1932년 가을에 보스턴 추기음악대회에 참가하여 언론에서 좋은 평을 받은 바 있다. 이 추기음악대회에서 추애경은 두 곡을 노래했다. 하이든 작곡의 「그를 다시는 사랑하지 않았소」와 킬 작곡의 「장미와 야



Boston New England Conservatory



추애경 자전적 소설 『청송의가족』 표지(1968년)

앵]을 노래했다. 당시 보스톤의 음악잡지 《음악평론》에서는 추애경을 리릭소프라노로 조선의 천재라고 격찬한 바 있다. 이렇게, 뉴잉글랜드 컨서바토리음악학교를 다니면서 음악대회에 출전한 추애경은 1933년 6월에 졸업하여 음악사音樂士학위를 취득하였다.

이렇듯, 미국에서 공부한 추애경은 뉴잉글랜드음악원을 졸업한 이후 그곳 메사추세츠주 보스톤시 월썸(Waltham)과 워터타운(Watertown)

에서 음악을 가르치면서 생활을 하며 가정을 꾸려나갔다. 이후 자녀가 생기자 추애경은 아이들 양육을 위해 가정주부로 들어오면서 자신의 성악활동을 접어야만 하였다. 가정주부로 돌아온 추애경은 토요일마다 텍사스코(Texaco)사가 후원하는 메트로폴리탄오페라(Metropolitan Opera)를 청취하면서 음악에 대한 정감을 잊지 않았다. 한편 추애경은 1968년에 자전적 소설인 『THE FAMILY OF CHUNG SONG』<sup>1)</sup>을 집필하였다. 이 책의 내용은 자신

의 직접적인 가족이름만 같고, 다른 모든 내용은 소설화되었다.

추애경은 1973년 난소암으로 사망했고, 아들이 묻힌 메사추세츠주 브레인추리(Braintree)의 블루힐즈공원(Blue Hills Cemetery)에 잠들어 있다. 한편 추애경은 1969년 5월 31일 이화여자대학교 개교 83주년을 맞이하여 당시 김옥길 총장의 주선으로 자랑스런 졸업생으로 선발되어 개교기념일에 공로상을 수여받은 바 있다.

정일선(경북여성정책개발원 선임연구위원)

1) 이 자전적 소설은 1968년 8월 20일 당시 미국 뉴욕에 계셨던 김동길 교수에게 기증된 것인데, 한국에 돌아온 김동길 교수는 추애경의 질녀 추은희 교수에게 이 책을 주었다. 추은희 교수는 이 책을 추애경이 졸업한 모교 신명여자학교에 개교 100주년기념으로 2006년 6월 27일 기증했는데, 현재 이 책의 원본은 신명고등학교 100주년역사관에 보관되어 있다.<sup>1)</sup>

## 백신애, 경북 첫 신춘문에 등용 작가



백신애는 32세로 요절한 여성 항일운동가이자 신춘문에 출신 여류작가 1호이다. 1929년 조선일보에 하룻밤 만에 써내려간 단편 『나의 어머니』를 응모한 것이 1등으로 당선되면서 신춘문에 출신 첫 여류작가라는 기록을 세웠다. 불꽃같은 지성을 지닌 여성계몽가로 30년대 저항문학의 정수를 보여준 백신애는 경상북도 공립학교 여교사 1호이기도하다. 대

구사범 강습과를 수료하고, 1924년 영천공립보통학교 교사로 발령받은 백신애보다 더 빨리 교직에 발을 들여놓은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다.

아명이 ‘무잠’, ‘무동’, ‘술동’ 등이었던 백신애는 예쁘고 총명한 부잣집 외동딸로 태어났지만 호사를 누리기보다 일제의 핍박으로 짓눌리고 힘든 이들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시인의 감성을 타고난 문학가였다. 충분히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데도 그보다는 주변의 아낙들이 가부장적 관습에 짓눌리는 모순의 개선을 원했고,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도록 하기 위해 헌신했다.

### 독서를 좋아하고 총명했던 어린시절

1908년 5월 20일 영천 창구동(현재 농협 중앙지점 맞은 편 지난날 제일여관 자리)에서 태어난 백신애(白信愛(1908.5.20~1939.6.23)의 아버지 백내



11살 난 백신애(앞줄 오른쪽), 어머니 이내동(왼쪽), 아버지 백내유(뒷줄왼쪽), 외조모(뒷줄 오른쪽)와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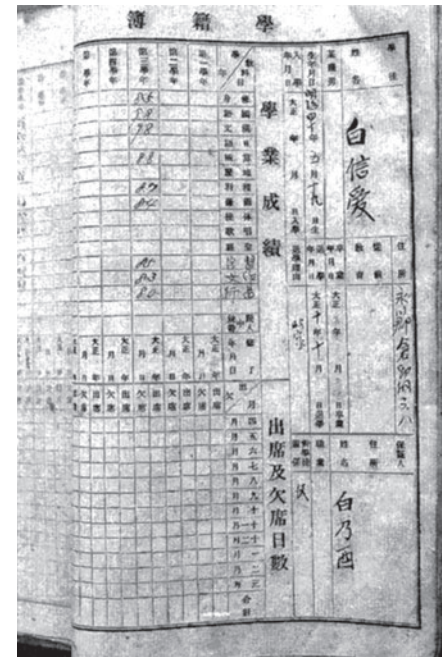
유는 미곡상과 정미소를 운영하는 영천에서 알아주는 부자였다. 백내유의 5형제는 다 부호여서 “백씨네 5형제 돈이 마르면 영천 돈이 다 마른다.”고 할 정도의 재력을 지녔다. 어머니 이내동은 병약한 딸을 자애롭게 받아들이고, 정성을 다해 양육하며 인생 끝까지 따뜻하게 돌봐준 훌륭한 어머니였다.

어머니 이내동은 오월의 창공이 저문 어느날 밤, 비둘기 태몽을 꾸고 백신애를 가졌다. 비둘기 태몽은 영리하고 똑똑한 아이를 말한대더니 백신애는 소녀천재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영리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태어나며 영업계수計數가 좋아져서 부모님의 큰 사랑을 받았다고 『자서소전』에 쓸 정도로 새로 시작한 정미소의 매출이 늘어났다. 물론 영천주변 5일장의 보부상 상대인 잡화도매상 사업도 크게 일어 백내유의 재력은 영천 밖까지 소문이 날 정도였다.

귀한 딸을 얻고 사업까지 번창하자 백내유는 딸을 위해 독선생을 들여 한문을 익히게 하고, 사서를 가르쳤다. 어려운 집안을 단박에 일으켜세울 정도로 명석하고 부지런했던 백내유는 천성적으로 병약한 딸이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것을 꺼렸다. 완고한 면이 있어 신학문도 접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때문에 백신애의 공부는 한학을 하는 선비인 이모부 김 씨가 주로 맡아서 가르쳤다. 위로 5살 많은 오빠 백기호도 백신애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백기호는 대구고보(현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중앙대학교에 다니면서 몽양夢陽 여운형에게 영향을 받아 진보 좌파적 성향을 지닌 민족 청년이었다. 백기호는 동생에게 일본말을 가르치고 강의록도 보여주었다. 오빠가 읽던 탐정소설과 고대소설도 백신애가 받아 읽을 정도로 남매는 비슷

한 길을 걸었다. 백신애의 독서량은 엄청나 일본에서 발간되는 온갖 잡지를 비롯해서 문학 작품까지 닥치는 대로 읽었다.

1918년 11세 되던 해에 영천공립보통학교 2학년에 편입한 백신애는 3학년 1학기를 겨우 마치고 건강상의 이유로 중퇴하고 다시 대구 순도소학교(현 종로초등학교)를 다녔다. 대구 순도소학교 학적부에는 1921년(대정 10년) 10월, 곧 백신애 나이 14살에 퇴학한 것으로 적혀있다. 비상할 정도로 총명한데다 어려서부터 서당교육과 한문교육을 받아서인지 학적부에 적힌 백신애의 성적은 아주 우수했다. 한문과 국어성적은 각각 98점, 산술 이과 성적도 아주 우수했다.



백신애 순도소학교 학적부

### 짧은 교사생활, 그리고 여성운동에 뛰어들다

1922년 백신애는 다시 영천공립보통학교에 편입해 졸업했다. 신학문을 하고 싶어 입버릇처럼 아버지를 졸랐으나 번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백신애가 15세가 되자 백내유는 “집에서 독선생에게 한문을 배우고, 중학교 강의록을 봤으면 그만이지 학교는 무슨 학교냐!” 고 막던 자세를 바꾸어 사범



백신애 어머니 이내동

학교진학만은 허락했다. “굳이 가고 싶다면, 경북 사범학교(1929년에 대구 사범학교로 변경)에 들어가서 교사나 되어라”는 허락이 떨어졌다. 그렇게 경북사범 강습과를 1년 만에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백신애는 1924년 영천공립보통학교 교사로 발령났다. 도내 공립학교 여교사 1호였다. 이듬해인 1925년에는 경산자인보통학교로 전임됐다. 경산자인보통학교에서 처음으로 사랑을 느꼈으나 실패를 맛봤다.

백신애는 1924년 5월 10일 결성된 조선여성동우회와 1925년 1월 21일 결성된 경성여자청년동맹 등에 가입하여 운동가의 길을 걷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두 여성단체에 가입한 일은 백신애의 발목을 잡았다. 1927년 1월 22일 좌익 여성단체 가입이 탄로나면서 교직에서 강제 퇴직당했던 것이다. 일제침략정책의 중복인 훈도 노릇을 하기 싫었던 백신애는 미련없이 교직을 떠났다. 자유롭게 서울로 올라간 백신애는 본격적인 여성운동에 뛰어들었다.

상경 직후 바로 조선여성동우회, 경성여성청년동맹의 상임위원을 맡은 백신애는 1927년 2월 서울 천도교회관에서 열린 경성여성청년동맹 2주년 기념식을 거의 혼자 손으로 다 치뤘다. 치밀하게 준비하였고, 행사마다 성공하였다. 서울 뿐 아니라 지방을 다니면서도 순회강연을 하면서 사회개혁



백신애가 살던 신혼집(1934년)

을 앞당기기 위해 열정을 쏟았다. 목우(牧牛) 백기만이 주선한 김천 강연에서 백신애의 활약은 대단했다. 백기만은 편지인 『씨 뿌린 사람들』에서 경북이 낳은 문인 중에서 고월, 육사와 함께 백신애를 혁명독립지사라고 적고 있다.

부잣집 외동딸에게 보장된 편안하고 안락한 길을 포기하고, 피지배 민족의 고통과 현실적 모순을 여성계몽으로 극복하기 위한 백신애의 노력은 계속되었다. 백신애가 가입한 조선여성동우회는 유명한 여성혁명가 정칠성 등을 낳은 단체로 근우회 등과 함께 본격 여성운동을 펼친 단체였다. 조선여성동우회는 초창기에는 노동부인을 위한 음악회, 교양강좌 등 온건한 활동을 하다가 차츰 서민여성들의 인권옹호, 자유연애와 성의 해방까지 외치는 조직으로 나아갔다.

조선여성동우회와 경성여성청년동맹을 통해 한창 여성운동에 주력하던 백신애는 1927년 돌연 시베리아로 방랑의 길을 떠났다. 왜 혹한의 블라디



영천 조양공원 내에 있는 백신애 기념비

보스토르크로 떠나야했는지 그 이유는 모른다. 다만 『백신애 소설연구』를 쓴 계명대학교 민현기 교수는 혁명의 땅으로 명명된 그곳을 직접 밟아보려는 백신애의 결심 그 자체가 시베리아행의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추정한다. 여성 해방과 민족 해방을 위한 투쟁의지를 더 높이려는 ‘계획된 고행’이 바로 시베리아행이었다는 분석이다.

### 계획된 고행, 블라디보스토크행

블라디보스토크는 거칠었다. 순수한 꿈과 뜨거운 열정 하나로 동토로 건너온 20대 처녀 백신애를 곱게 받아주고 돌봐줄리 만무했다. 뚜렷하게 받아주거나 머물 곳도 없이 다소 무모하게 감행한 시베리아에서 백신애는 오갈데 없는 몸이었다. 며칠을 굶고, 며칠을 걸었는지 블라디보스토크의 차가운 거리에 쓰러졌다. 정신을 잃고 쓰러진 백신애는 다행히 마음씨 좋은 러시아 할머니를 만나서 목숨을 건졌다. 백신애를 집으로 데려간 러시아 할

머니는 닭을 잡아먹이면서 극진하게 간호해 주었다. 러시아 할머니의 보살핌으로 의식을 회복한 백신애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을 택했다. 그러나 귀향은 순탄하지 않았다. 그곳 관헌에 붙잡혀 조사받고, 추방당했다. 돌봐주는 사람없이 여자 홀몸으로 추방당해 두만강을 건너는데 이번에는 일본 관헌에게 체포되었다. 러시아 경찰보다 왜경은 더 무지막지하게 백신애를 다루었다. 밀정으로 몰고 가며 왜경은 무자비하게 고문을 가했다. 심한 고문 후유증으로 백신애는 불임이 되어버렸다.

짓이겨진 채 경북도 경무부로 넘겨진 백신애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풀려났다. 치료를 받았지만 성한 곳이 없었다. 이런 몸으로 항일운동의 최전선에 서는 것은 불가능했다. 백신애는 지금은 도시로 변해버린 반야월 일대에 큰 과수원을 갖고 있던 아버지 집으로 내려왔다. 반야월을 사랑했던 백신애는 과수원의 품앗이 여인들과 함께 사과도 따고, 풀도 뽑으면서 나라 잃은 민족의 설움을 함께 나누었다. “언니는 참으로 인자한 면이 있어 과수원에서 일하는 아이들을 모아 놓고 글도 가르쳤다. 과수원의 과일이 바람에 떨어지면 어른은 걱정을 했으나 언니는 오히려 좋아했다. 우주의 자연



영천시와 백신애 기념사업회 등은 백신애 추모사업을 활발하게 펴고 있다.

섭리라 말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즐기는 성미였다.” 동생 복잠의 회고이다. 반야월 과수원에서 백신애는 봉건사회 아래 남성의 행패를 고발하는 작품을 쓰기 시작했다. 『대구 경북 근대문인 연구』를 집필한 대구대 이강언 교수는 시베리아행에서 겪은 극심한 고통으로 백신애의 민족의식은 더 선명해졌고, 문학에 대한 관심은 더 깊어졌다고 보았다.

시베리아를 전전하는 동안, 일제의 총칼에 조국을 잃고 황량한 남의 땅을 헤매는 수많은 꺼레이(고려인)들의 고통을 목도했던 백신애는 상상력만으로는 결코 그려낼 수 없는 생생한 유랑 이민들의 황폐한 삶을 작품에 고스란히 녹여냈다. 시베리아행이 처절한 아픔을 남기며 몸을 망가뜨렸지만, 결코 백신애의 정신을 건드리지는 못했다.

### 『나의 어머니』로 조선일보 신춘문에 당선

1929년 1월, 소설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다. 하룻밤 꼬박 쓴 소설을 이종사춘 박계화의 이름으로 조선일보 신춘문에 보냈다. 바로 『나의 어머니』이다. 『나의 어머니』의 주인공인 나는 마치 저자 백신애처럼 보통학교 교원으로 있다가 여자 청년회를 조직하였다는 이유로 학교 당국으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해 줄지에 실업자 신세가 된다. 작가의 개인적 경험이 투영된 이 소설은 여성운동가인 ‘나’와 전근대적인 여성인 어머니 사이의 갈등을 잘 그려낸 작품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아들이 감옥에 간데다 딸까지 교편을 잃고 집에서 빈둥대며 청년회관 건축을 위한 기금 마련 연극 연습을 한다며 밤늦게 돌아다니자 어머니는 노여워하며 딸과 갈등한다.

서울 학벌이나 문단인맥이 전혀 없는 경상도 영천의 무명 처녀가 자전적



요절한 백신애

경험을 바탕으로 쓴 『나의 어머니』는 수많은 남성 응모자를 물리치고 조선 일보 신춘문에 소설부문에서 당당히 대상을 거머쥐었다. 이 나라 신춘문에 사상 첫 여성 당선자가 나온 것이다. 그 뒤 32세로 사망할 때까지 백신에는 나라 잃은 민족의 참상, 빈곤을 소재로 한 소설 23편, 수필 38편, 시 1편 등을 남겼다. 일제 치하의 문단사에서 백신에는 박화성, 강경애와 더불어 친일하지 않은 여류 삼총사에 속한다. 박화성은 광복 후에도 오래 살아 원로 작가의 대접을 받았지만 백신애, 강경애는 서울학벌이 아닌데다가 시골 문인이었고, 두 사람 모두 30대에 요절한 탓에 우리 문단사에서 그리 존중받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 문단사에서 잊힐 뻔한 백신애는 경산의 향토사학자 김윤식에 의해서 많은 작품이 발굴되었고, 새로 편찬되어 나왔다. 김윤식은 50년대 중반부터 30여 년간 백신애를 추적하여 작품을 발굴해내고, 후세들에게 알리려고 노력했다.

### 결혼과 파경 중에서도 왕성한 작품활동을 하다

1930년 백신애는 일본으로 건너갔다. 일본대학 예술과에 적을 두고 문학과 연극을 공부했다. 연극 「개」(체호프 작)에 주인공으로 출연한 적도 있으나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자 연극을 단념하고 문학에만 전념했다. 결혼할 것을 요구하는 아버지를 피해 일본으로 건너간 터라 스스로 학비를 조달해야 했기에 여자 몸으로 감당하기 힘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빨리 귀국하라는 아버지의 엄명이 떨어졌다. 귀국해 보니 부산 모 해운회사 사장의 아들과 혼사를 잡아두었다. 별 말 없이 부모를 안심시킨 다음날 밤,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버렸다. 아주 귀국한 것은 1932년 가을이었다. 귀국 후 동래고

보 및 오사카 상고를 다닌 은행원 이근채와 약혼을 하고 이듬해 봄에 대구 공회당 큰 홀(KG 홀)에서 신식결혼식을 올렸다. 대구역 곁에 있는 시민회관이 그곳이다. 이근채는 상처하고 자녀를 데리고 재혼하였다. 1934년에는 대구 과수원으로 남편과 함께 신혼집을 옮겼다. 대구시 동구 괴전동에 있던 백신애의 신혼 살림집은 2000년대 초까지도 남아있었으나 지금은 공장으로 변해버렸다.

이 시기 백신애는 왕성한 작품활동을 하였다. 드디어 1934년 그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단편 『꺼레이』를 신여성 1~2월호에 연재 발표하였고, 『적빈』도 개벽 12월호를 통해 세상에 내놓았다.

끌려갔습니다.

순이들은 끌려갔습니다.

마치 병든 거러지 떼와 같이...

굶은 주먹만큼한 돌맹이를 꼭꼭 짜 박은 울퉁불퉁하고도 딱딱한 들길 위로 오랜 감금의 생활에 울고 있느라고 세월이 얼마나 갔는지는 몰랐으나 여러 가지를 미루어 생각건대 아마도 동짓달 그믐께나 되는가 합니다.

백신애 『꺼레이』 첫부분

『꺼레이』를 쓴 해 과수원 신혼집에서 『채색교』, 『복선이』, 『악부자』 등 작품을 발표했다. 1936년에는 상경하여 서울 삼천리사 초청 여류작가 좌담회(사회 김동환, 박화성·이선희·모윤숙·장덕조·최정희 등 참석)에도 참여했다.

한해 전인 1935년 아버지 백내유가 사망하자 그들의 결혼생활도 파탄이 났다. 백신애 부부는 여러 가지로 맞지 않는데다가 남편의 주먹세례까지 더해져 결혼생활은 5년만에 파경을 맞았다. 백신애에게 사상적 영향을 많이 끼친 오빠 백기호의 며느리(백신애의 친정 질부)인 허필숙 전 계명대학교 가정대학장은 “사상이 앞서가니 딴 사람들이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결혼 이후 글쓰고, 문인들과 교류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통 아낙네처럼 집안에 가둬 두려고 하니 부부싸움이 잦았고, 가정폭력까지 당한 것 같아요” 어느날 백신애는 그 많던 신접 살림도 과수원도 내팽개친 채 입던 옷 그대로 대구시 용계동 친정집으로 달려와서 이혼해버렸다. 파경 후 집에 돌아온 백신애는 도량이 넓은데다 온 집안의 일을 혼자서 다 치러 낸 여장부 어머니 이내동을 위해 글을 써서 읽어드리며 효도를 다했다. 때로 놀 때는 아무런 풍파도 겪지 않은 것같은 천진난만함도 보였다.

### 문학정신을 불살랐던 자유인, 재평가 서둘러야

1936년 소설가 현진건(동아일보 근무)이 엮힌 손기정 베를린 마라톤 우승 일장기 말살사건이 일어나고, 총독부의 애국지사에 대한 감시가 심해졌다. 전부터 애국부인단체와 인연을 맺고 있던 백신애와 좌파 성향의 백기호는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했다. 급기야 총독부가 사상범 감찰을 위해 경성과 평양, 광주 등 7개 도시에 감찰소와 출장소를 설치하기로 해 민족독립을 꿈꾸던 사람들은 발을 붙이고 살 수가 없게 되었다.

백신애의 사상적 고향이었던 오빠 백기호는 정우회 발기인이었고, 사회주의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북풍파 대표로 참여했다가 조선공산당 2차 검거시



백신애 유품

원산에서 체포됐다. 이때는 아버지가 힘으로 빼냈다. 친일파가 아니고는 부를 축적할 수 없다는 논리 때문에 친일파로 몰리기도 했던 백신애의 아버지는 과수원을 하면서 일본, 중국으로 실어내던 나무 사과상자의 속을 교묘히 파내고, 금붙이를 넣어서 만주로 독립군자금을 부쳤다는 말이 전해지기도 한다. 이는 마치 안동 금계마을의 의성 김씨 종손이 파락호로 문중 재산을 다 털어먹는 것처럼 위장하고는 만주로 군자금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떠오르게 한다.

남매도 점점 심해지는 왜경의 눈을 피해 상해로 숨어들었다. 비록 왜경의 감시를 받기는 했지만, 소설가 강로향과 교류하며 40일을 자유롭게 방랑한 백신애는 오빠의 손에 이끌려 귀국했다. 강로향은 회고했다. “나는 중국 전쟁이 일어나고 38년이 되자 상해로 갔다. 그 해 가을 백신애는 오빠와 함께 상해로 나를 찾았다. 그들은 신상해호텔에 투숙하고 있었는데 형사들이 미

행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 오빠 백기호는 무역관계 상무로 온 것 같았지만 사실은 신간회에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때 그녀의 인상은 씩씩이가 크고 활달한 성격에 사고의 폭이 넓었다. 술도 제법 하여 유태인 계 바에 자주 드나드는 등 1개월 동안 개방적인 활동을 했다.” 1927년 결성된 민족운동 단체인 신간회는 1931년에 이미 없어졌으니 여기에서 말하는 신간회는 다른 조직일 것이다.

결혼 전부터 위장이 나빠 죽을 자주 먹던 백신애는 이혼 무렵 그 증세가 더 심해졌다. 새로운 각오로 문학을 하려고 서울로 갔을 때는 얼굴이 바짝 아위었다. 그런 가운데도 잡지사 여기자를 하면서는 문우들과 어울려 자주 술을 마셨다. 1939년 몸져누웠고, 5월에 서울대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백신애는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그해 6월 25일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프로문학이 퇴조하고 있던 1930년대 초에 작품을 시작하여 30년대 말에 떠난 백신애의 삶은 파란만장했지만 그는 결코 시대상황에 굴복하지 않는 빛나는 정신의 소유자였다. 인간을 향해 결코 식지 않는 정열과 정의감을 보여주었던 백신애는 우리나라 첫 신춘문에 등단 여류작가이자 결코 일제 앞에 무릎꿇지 않은 비친일 여류 3총사 가운데 한명이었다.

혈기가 넘치는 여류작가의 면모를 보여준 백신애의 유해는 화장되어 경북 칠곡 동명애에 있는 가족묘지에 안장됐다. 그러나 분단국에서 진보적 사상을 가졌던 백신애 탓에 알게 모르게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았다고 느낀 후손들이 묘를 파헤친 일도 있었다. 다행히 지금은 백신애기념사업회(회장 성영근)와 작가 이중기 그리고 백신애의 질녀(오빠 백기호의 딸) 백영미 등

이 힘을 모아 백신애 문학의 재인식과 재평가 작업을 하고 있어 희망적이다.

백신애는 모순과 비리에 찬 현실을 주시하였고, 식민시대를 사는 여성들의 무지와 궁핍한 삶을 진솔하게 다루었다. 때로는 작품 속에 자신을 투영하기도 했다. 기름진 고향들을 빼앗겨 시베리아·만주로 떠도는 겨레의 참상을 다루기도 하였고, 압박을 당하면 굴종하기보다 분연히 털고 일어서기를 촉구하는 특강을 다니기도 하였다. ‘조선 독립’, ‘대한민국 해방’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 우리들의 고도를 향해 여성운동과 문학운동을 동시에 펼친 백신애는 육체적 고행과 외부적 핍박을 뛰어넘어 자유를 추구해 나갔다. 문학과 행동이 결코 둘이지 않는 문행불이文行不二의 길을 고고하게 걸어간 우리 문단사의 소중한 존재이다.

최미화(매일신문 논설실장)

# 전통과 혁신의 조화, 현대가사문학의 선구자 조애영



경북 영양 주실마을에 자리한 ‘삼불차三不借의 호은종가’에서 성장한 은촌 조애영은 현대가사문학의 선구자이자 성균관여성유도회 초대회장으로서 여성유도회를 이끌었던 인물이다. 그녀는 전통명문가에서 유교적 소양을 닦으며 성장하였지만 아버지가 열어준 신교육의 세례를 받았고, 그 영향으로 그녀의 삶과 문학에는 옛 것과 새 것이 공존한다.

조애영의 가사는 역사와 사회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시대 가사와 차별성이 있고, 그녀의 삶 또한 가정적으로는 전통적인 유교적 질서를 따르면서도, 남성중심의 사회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녀는 전통과 새 길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며, 가교 역할을 하였다.

## 三不借, 지조의 호은종가에서 태어나다

은촌(隱村) 조애영(趙愛泳)(1911.3.8~2000.8.25)<sup>1)</sup>이 태어난 곳은 경북 영양군 일월면 주곡리 201번지(주실길 27) 호은종택(壺隱宗宅)이다. 아버지는 조인



영양 주실마을 전경



호은종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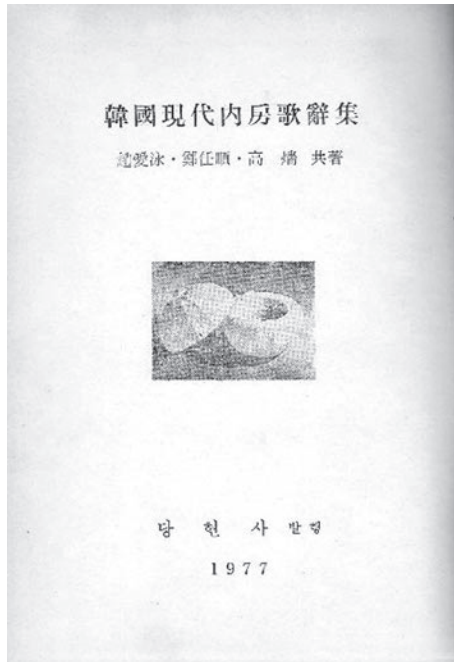
1) 별세일은 <동아일보> 2000년 8월 26일자 기사에 따랐다.

석趙寅錫, 어머니는 진성이씨 이호정李鎬貞이다. 조애영은 1911년 3월 5일(음력 2월 8일) 이들의 3남 1녀 가운데 외동딸로 태어났다. 아명은 조현祖賢인데, 집에서는 ‘현賢아’로 불렸다. 호적에는 ‘요희’로 되어 있으나, 배화여자고등보통학교(이하 배화여고보)에 입학하면서 돌림자에 맞춰 ‘애영’이라는 이름을 썼다.

한양조씨 400여 년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그녀의 고향 주실마을은 일월산 한 자락 끝에 터 잡고 있다. 영양읍에서 31번 국도를 따라 약 4km정도 올라가다 보면 좌측으로 918번 도로가 나온다. 이 도로를 따라 다

시 3km정도 가면, 길을 뒤덮은 숲이 나온다. 여기가 바로 주실마을 입구이다. 숲을 지나면 이제와는 사뭇 다른 전경이 펼쳐진다. 마치 호리병 형상으로 마을입구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주실은 계곡의 폭이 펼쳐지는 곳에서 시작하고, 다시 좁아지는 곳에서 마감한다.

이 마을은 시인 조지훈趙芝薰(1920~1968)의 생가가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조지훈의 집안에 대해 좀 더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1927년 신간회



조대영, 정임순, 고단이 함께 펴낸 『한국현대내방가사집』

新幹會 활동을 하였고 훗날 한의학의 기초를 닦은 그의 부친 조현영과 형이자 요절한 천재시인 조동진을 기억할 것이다. 나아가 주실마을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마을의 명망이 조지훈과 그들 부자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산간오지에 자리한 이 작은 마을에서 17세기 이래로 영명한 인물이 계속 배출되었기 때문이다.

주실마을 한양조씨의 역사를 처음 연 사람은 호은壺隱 조진趙侁이다. 그가 주실마을로 들어 온 때는 1629년이다. 주실마을 한가운데 자리 잡은 호은종택의 ‘호은’이 바로 그이다. 그 뒤 조씨 가문은 학문과 시화, 그리고 영남명문가와와의 혼인을 통해 명문사족으로 성장하였다. 호봉壺峰 조덕순趙德純과 옥천玉川 조덕린趙德鄰 형제에 이르러서는 형제가 모두 문과에 급제하여 이름을 떨치기도 했다. 그러나 조덕린이 노론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려 탄핵을 받는 바람에 더 이상 중앙으로 진출하지는 못하였다. 비록 관계로의 진출은 막혔지만 ‘문한지향文翰之鄉’ 주실은 학행과 도의가 뛰어난 인물을 많이 배출하였다.

이 마을을 다녀간 사람이라면 호은종가의 ‘삼불차三不借’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삼불차란 사람·글·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빌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가운데 ‘문불차文不借’의 전통이 이어져 온 것은 학문에 대한 자신감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통은 주실마을 입향조 이래 마을의 자랑스러운 전통이 되어왔다. 그만큼 자존을 지켜왔다는 뜻이다.

호은종가를 대표하는 근대기의 인물로는 남주南洲 조승기趙承基(1836~1913)와 아들 조인석趙寅錫(1879~1950), 그리고 그의 자녀 근영·

현영·준영·애영이 있다. 여기에다 조지훈은 현영의 아들이나 애영의 조카이다. 조애영의 조부인 조승기는 국권이 흔들리자 1895년 의병항쟁에 나섰으며, 부친 조인석은 신학문을 수용하고 애국계몽운동을 펼쳤다.

조애영의 삶과 문학은 호은종가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맑은 양심, 굳센 의지, 불같은 정열의 소유자’로 비쳐졌는데, 이는 ‘삼불차’ 호은종가의 정신과 무관하지 않다. 그녀가 15세인 1925년에 쓴 「산촌향가山村鄉歌」에는 가문에 대한 상당한 자긍심이 서려있다. 전통과 새 길을 끊임없이 조율하며 나아갔던 조애영의 삶 속에서 호은종가는 분명 큰 이정표로 자리하였을 것이다.

## 아버지가 열어준 신교육의 길

주실마을의 근대는 어느 곳과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과 맞물려 있다. 일제의 침략에 대한 주실마을의 첫 대응은 위정척사사상에 바탕을 둔 의병항쟁이었다. 1895년 을미사변과 단발령이 있자 전국에서 의병 봉기가 일어났다. 영양군에서도 단발령이 있는 지 24일 만인 12월 9일(양1896.1.24) 영양의진이 결성되었다. 그 중심에 주실마을의 조승기·조영기趙永基·조병희趙秉禧·조후용趙鄰容이 있었다. 이들 가운데 영양의진 의병장으로 활약한 조승기가 바로 조애영의 조부이다.

조애영은 「산촌향가」에서 “우리조부 남주장은 의병대장 애국렬사, 왜놈들이 오는쪽쪽 다잡혀서 죽었것만, 합방조인 되고보니 일생공적 수포로다.”라는 글로 조부의 행적에 대한 자긍심을 드러냈다.

그런데 5년 뒤 전통마을 주실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신학문

을 수용하고 애국계몽운동에 나선 사람들이 나왔다. 이를 이끈 인물이 조병희였고, 조애영의 부친 조인석이 이를 적극 도왔다. 조병희는 단재 신채호 등과 교유하며 양계초의 『음빙실문집飲氷室文集』을 접하게 되고, 이를 계기로 개명지식인으로 전환하였다. 이때가 1899년이였다. 이는 안동의 유인식보다 3~4년이 앞선 것이었다.

조병희는 스스로 ‘집안을 바꾸는 선각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문중의 20대 청년 5명을 뽑아 서울로 보내 선봉대로 삼았다. 이들 5명 가운데 조애영의 아버지 조인석이 있었다. 서울로 갔던 아버지 조인석은 그 뒤 마을로 돌아와 월록서당에 영진의숙英進義塾을 세우고, 주실마을의 근대교육을 열었다. 이들의 노력으로 1910년 이후 주실마을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종부의 개가 허용, 노비 해방, 동고사 시행, 양력 과세, 향약의 개정, 제사 간소화 등이 추진되었다. 이는 엄청난 변화였다. 주실마을의 이러한 변화는 전통의 창조적 변용이었다. 이는 개인이 아니라 마을공동체를 단위로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조인석은 마을 청년들의 신교육에 힘쓰는 한편 네 명의 자녀에게 유학을 통한 신교육의 기회를 열어주었다. 첫째 근영과 둘째 현영은 와세다대학, 셋째 준영은 보성고등보통학교, 넷째 애영은 배화여고보로 유학을 보냈다. 신교육에 적극적이었던 아버지 덕분에 여성이었던 조애영도 신학문을 접할 수 있었다.

조애영은 어린 시절 한문과 바느질, 수놓기, 내방가사 작법 등을 배웠다. 이는 다른 사대부 집안의 여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이러한 그녀에게 새로운 배움의 길을 열어 준 것이 아버지였다. 그녀는 16세가 되던

1926년 영양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유학길에 올랐다. 15세에 그녀가 지은 「산촌향가」를 본 아버지가 매우 기뻐하며 서울 유학을 추진했다고 전한다. 여성교육서인 『소녀필지少女必知』를 펴내는 등 여성교육에 관심이 높았던 조인석은 딸이 변화하는 시대에 적절하게 대처하면서 여성으로서 수준 높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조애영의 삶과 문학은 옛 것과 새 것이 조화를 이룰 수 있었다.

### 옛 길과 새 길의 조화

조애영은 배화여고보에 다니던 1927년 《학생學生》에 「농촌이야기」를 발표하였다. 그녀의 증언에 따르면 이는 첫 발표작이지만,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남겨진 그녀의 첫 작품은 1929년 《개벽》에 실린 시조 「봉화烽火」이다. ‘일월산인’이라는 필명으로 발표한 이 글은 암울한 시대상과 민족의식이 잘 드러난다. “日月山 烽火터엔 山나물만 무성하고, 桑田이 碧海되어 삼대궁도 없는 이 밤, 이 겨레 한 누더기로 태우는 햇불인가”라는 글귀에서 알 수 있듯이 일제의 수탈로 말미암아 엉켜버린 우리 겨레와 독립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다. 여기에 ‘햇불’은 광주학생운동을 의미한다. 조애영은 실제 배화여고보의 만세운동을 이끌었는데, 그녀의 가사 「사우가 思友歌」에는 그 내용이 담겨있다.

이내래생 산골처녀 십육세에 상경하여, 신식공부 해가지고 신여성이 되렸더니  
 신간회에 총무간사 현영오빠 소개로써, 허간사택 만따님의 지도받아 주동됐네

이 글을 통해 조애영이 당시 신간회 총무간사로 활동하던 둘째 오빠 조헌영趙憲泳(1899~1988)을 통해 허헌 변호사의 맏딸 허정숙을 소개받았고, 그녀의 지도 아래 만세운동을 이끌었음을 알 수 있다. 그녀는 이 일로 무기정학을 당하고 옥살이를 하다가, 3개월 뒤에야 학교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때의 억울한 마음을 「울분가」에 담기도 하였다.

21세인 1931년 배화여고보를 졸업한 조애영은 시험 없이 이화여전 가사과에 합격하였다. 이때 선교사가 조애영의 능력과 영어 실력을 보고, 미국 유학을 권하였다. 그러나 부모와 오빠의 반대에 부딪혀 유학은 이루지 못하였다. 얼마 뒤 이화여전을 중도에 그만두고 집안의 권유로 일본 유학을 다녀온 영천출신의 이담李潭과 혼인하였다. 조애영의 결혼식은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신식이었다. 한편 그녀는 아버지가 준 결혼자금을 독립운동을 하던 오빠에게 주고, 빈손으로 시집을 가는 애국심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신여성으로서의 그녀의 결혼 생활은 녹록하지 않았다. 「신혼가」에는 당시 상황과 시집살이의 어려움이 잘 드러난다.

시부모님 사랑이야 며느리중 제일이라  
 동서들이 샘을하고 시앗이나 본듯하다  
 그후부터 동서두분 모락중상 일을삼아  
 (중략)

신랑각씨 같이두면 신랑잡아 먹는다고  
 어머니가 차고앉아 독수공방 하게되니  
 시어머니 처분이나 기다리고 시는판에

동서두분 한편되어 신여성은 고립이요

이런 처지인지라 바깥 생활은 꿈도 꾸지 못했다. 남편은 중앙고보시절 만세운동에 참여할 정도로 사회참여에 적극적인데다 일본유학까지 다녀온 신지식인이었지만, 아내의 사회생활은 허락하지 않았다. 시부모 봉양과 자녀 교육에 충실한 현모양처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다. 신교육까지 받은 그녀로서는 참아내기 어려운 부분도 많았겠지만, 그녀는 원망이나 미움보다는 전통의 덕목을 따랐다. 갈등과 충돌보다는 화의和議의 길을 택한 것이다.

비록 적극적인 사회 활동은 하지 못하였지만 신교육으로 습득한 지식을 남편의 사업에 보탤다. 1940년에 이르러서는 배화여고보 학원재단 기성회원이 되기도 했다. 활동을 시작한 초기에는 동창회와 같은 소극적인 활동이었지만, 점차 여성단체로 폭을 넓혀 나갔다.

48세가 되던 1958년에 이르러 조애영은 친구의 권유로 그 동안 쓴 작품들을 모아 시조집 『슬픈 동경』을 출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남편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그 가운데 몇 권만이 조카 조지훈에 의해 남겨졌다. 『슬픈 동경』이라는 제목은 조지훈이 지어준 것으로, '내 마음에 슬픈 노래'라는 뜻이다. 여기에는 모두 18편 120수가 실려 있는데, 그 가운데 「진주담」·「해금강」·「여곡」은 조지훈이 찬사를 아끼지 않았던 작품이다.

## 현대가사문학과 여성단체를 이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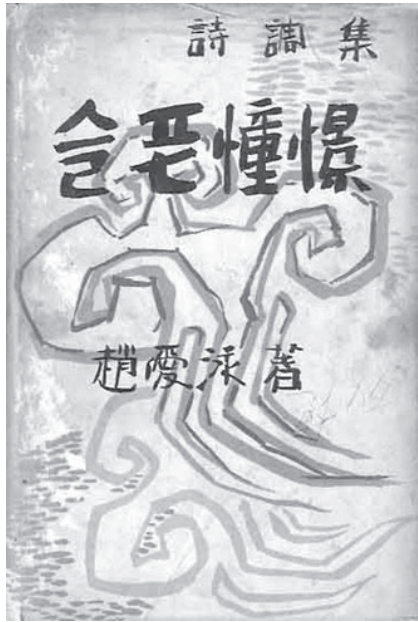
조애영의 가사 창작활동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인 1960년부터 다시 더욱 활발해졌다. 이 시기에 지은 「한양비가」·「학생의거혁명가」 등에는 그녀

의 사회의식과 역사의식이 잘 반영되어 있다. 4·19혁명과 남녀토론회, 소비자층 지도 강연과 같은 당시 정세가 작품에도 투영되고 있다. 60세인 1970년에는 한국문인협회, 한국시조작가협회, 한국신화학회, 민속학회의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이듬해 61세에는 한국수필가협회 회원이 되었으며, 시조 계간지 《신시조新時調》와 《수필문에隨筆文藝》를 간행하는 출판사의 고문을 맡기도 했



지훈문학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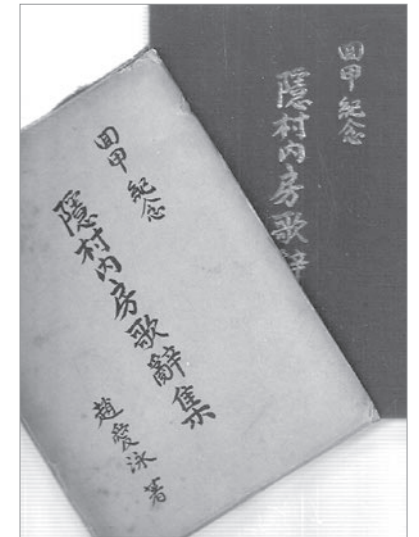
슬픈동경 초판

다. 그 해에 시조집 『슬픈 동경』이 재판·간행되었는데, 그 동안의 작품에다가 38편의 시조를 추록하여 회갑기념으로 출간한 것이다. 또 은촌선생회갑문집 간행위원회에서 『은촌내방가사집』을 출판하였는데, 「화전가」등 19편의 규방가사가 실려 있다. 조애영은 활발한 작품 활동과 더불어 사회활동에도 적극 나섰다. 그 출발은 배화여학교의 동창회였지만, 점차 그 폭을 넓혀 성균관이나 여성유림회에도 참여하였다.

1972년에는 성균관 교회분과 부장을 맡아 활약하였다. 이듬해 12월에는 《유림월보》(제57호)에 「여성유림의 자세」를 발표하여 “여성은 가문의 전통을 존중하고, 경모정신에 투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이러한 전통적 윤리의식은 1974년 6월 《유림월보》(제63호)에 발표한 「우정」에서도 엿볼 수 있다. “나는 유가에서 태어나 삼강오륜 중에 봉우유신朋友有信을 소중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정이 아닌가 싶다.” 라고 한 데서 드러나듯이 그의 의식은 전통적인 유교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는 그녀가 가진 한계이기도 하다. 1974년 11월 《유림월보》(제68호)에 실은 「가족법 개정안에 대한 管見-국회의원에게 드리는 글」과 「적십자사 총재에게 드리는 글」을 보더라도 그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불이익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찬성하지만, 동성동본금혼제를 폐지하지는 여성사회 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그 뒤 1975년 조애영은 성균관 여성유도회의 초대회장이 되어 3년 동안 활동하였다. 이듬해인 1976년에는 1년 동안 《유림월보》를 통해 「풍속과 습관」이라는 주제로 글을 연재하기도 했다. 1977년에는 함께 내방가사를 연구하고 창작하였던 여성유도회원들과 그동안 지었던 내방가사를 모아, 정순임·고단과 함께 『한국현대내방가사집』을 출간하였다. 이는 내방가사의 맥을 이으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었다. 1979년 7월에는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렸던 제4차 세계시인대회에 참가하여 「Mother」라는 시조를 발표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 쓴 조애영의 작품 속에는 한층 더 강한 역사의식이 드러난다. 1987년 가을 《배화동창회보》(제6호)에 「무궁화 12곡」을 발표하였으며, 12월 《유교신보》에 「갑인왜란애사甲寅倭亂哀詞」를 발표하여, 주실마을에서 일어난 일본인의 횡포를 고발하였다. 1991년 《배화동창회보》(제9호)에 망국의 한을 노래한 「구한말애사舊韓末哀詞」 12곡을 발



회갑기념 은촌내방가사집

표하여 남북한 적십자사총재에게 보냈다. 이어 제10호에는 「한말애사韓末哀詞」를 발표하여 고종의 즉위부터 남북분단까지의 역사를 서술하였다. 또한 이 무렵 「한국동란회상곡」을 지어 둘째 오빠 조현영을 비롯한 남북인사와 이산가족의 아픔을 노래하였다. 그러나 《유교신보》에 실리려 했던 이 작품은 당국의 검열에 의해 발표되지 못했다. 이 일 때문에 조애영은 몹시 실망하여 글짓기를 그만 둘 생각까지 했다고 전한다.

현대가사문학의 선구자이자 성균관 여성유도회 창립을 주도하고 초대회장으로서 여성유도회를 이끌었던 조애영은 2000년 눈을 감았다. 배화여고 보 동기동창이자 수당修堂 이남규李南珪의 딸인 이철경李喆卿은 『슬픈 동경』 발문跋文에서 조애영을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맑은 양심과 굳은 의지, 불같은 정열의 소유자로 수업시간마다 회의와 의문이 많았다. 그는 사물에 대하여 민감하였고, 사고력이 무한히 깊고 풍부하였으며, 정의에 대하여 정열적이고 과감하였을 뿐 아니라 고난과 역경에 처할 때는 끔찍이도 참을성이 많고, 또한 관후하였다. 이렇게 완벽에 가깝게 준비된 성품과 수양의 주인공이기에 크나큰 실업가의 양처로 탁월한 자녀 다섯의 현모로 문자 그대로의 모범적인 주부생활을 계속하면서도 시조집을 내놓았다. 그는 민족과 국도에 대한 사랑이 극진하여 신앙적이었으며, 모교 배화여고를 추모하는 정성이 또한 범상치 않아 왜정 말기에 미국 선교사들의 환국과 함께 존폐위기에 봉착한 모교를 위하여 출선 사유 토지를 팔아 거액을 내놓았다. 현명한 그는 한 가정을 평화롭고 아름답게 이룩하는 일이 곧 모교와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참 길인 것을 일찍이 알았고 몸소 실천궁행하면서 민족의 안부와 국

운의 추이에 대하여 또한 관심과 성념을 놓아본 일이 없었으니 그 심오한 생활상념과 순수한 정열의 표현이 곧 이 시조이다.

또한 김해성金海星 교수도 발문을 쓰면서 “그녀의 시조작품은 애국애족의 정신과 한국적 자연의 관조사상과 생활적인 시상의 발로가 시화되어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들의 평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애영은 전통적인 유교의식에 바탕을 두었지만 맹목적으로 따르지는 않았으며, 역사와 사회현실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 그러나 가문과 남편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따르는 모습을 보였다. 조애영보다 몇 십 년씩 앞서 살며 신문학의 선구자가 되었던 김탄실·나혜석·김일엽 등이 불운하게 살았던 것에 비해 조애영은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삶을 살았다.

조애영의 현대가사 또한 조선시대 내방가사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예전의 내방가사가 주로 시집살이나 노처녀의 한탄, 또는 가난한 생활과 힘든 노동에 대한 푸념을 노래했다면, 조애영의 가사는 역사와 사회문제를 다룬 것이 많다. 부정에서 긍정으로, 성의 갈등에서 극복과 화합으로 나아간 것이 바로 조애영의 삶이라면, 그의 문학은 가정이라는 울을 벗어나 보다 큰 이상을 품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강운정(안동독립운동기념관 학예연구실장)

## 경북 여기자 1호이자 종군 작가 장덕조



장덕조는 경산慶山에서 태어난 '경북출신 여기자 1호'로 휴전 협정을 취재한 유일한 종군 여기자이자 250여 편이 넘는 장·단편과 희곡까지 남긴 한국여류문단의 귀재이다. 휴전 협정을 취재한 공로로 문화훈장 보관장을 수상했던 장덕조는 장편 역사소설 분야를 본격적으로 개척한 선구자이자 개벽사 여기자 생활을 시작으로 매일신문, 영남일보 등에서 문화부장·논설위원 등을 역임하며 언론사에도 큰 족적을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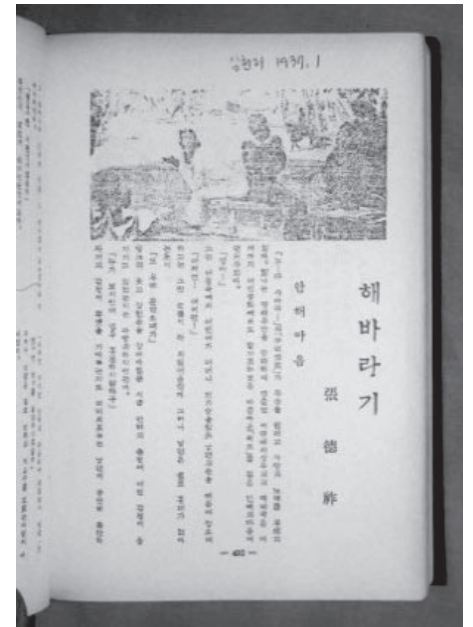
### 역사에 관심이 많았던 소녀

장덕조張德祚(1914.10.13~2003.2.17)는 1914년 10월 13일 경북 경산군 자인면 북사동 속칭 순월마을에서 장재수張在洙의 딸로 태어났다. 장덕조는 '소녀 천재'라고 불릴 정도로 비상한 머리를 타고나 일찍 한문을 깨쳤고, 역사 지식도 풍부하여 시대를 망라한 다양하고 풍성한 역사 소설을 남겼다.

1920년 어머니와 함께 대구 진골목으로 이사하여 현 경북여고 전신인 대구공립여자보통학교(현 경북여고, 이하 대구여고보로 줄임)를 다녔으나 졸

업을 하지는 못했다. 두 건의 반일 활동 때문이었다. 하나는 대구여고보 재학 중 터진 광주학생의거(1929.11.3)에 격려문을 보낸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교내 일본 교사 배척동맹휴학을 주도한 것이었다.

숙명여대 한국어문화연구소가 출간한 『한국여성문인사전』(2006, 태학사)에는 장덕조가 대구여고보 재학 중 일본 교사 배척동맹휴학의 주동자로 졸업하지 못했다고 적고 있다. 당시



장덕조 소설 『해바라기』

일본 교사 배척 동맹휴학은 경성제일고보를 비롯한 경향 각지의 고보에서 꼬리를 물고 터졌다. 일제의 교육이 조선혼을 양성하지 않고 조선인을 압박하여 일본신민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반발이었다.

### 개벽사의 여기자로 입사, 소설가로 등단하다

대구여고보에서 퇴학한 장덕조는 상경하여 1931년 배화여고보培花女高普를 졸업하고 이화여자전문梨花女子專門 영문과에 들어갔다. 하지만 1932년 이화여전을 중퇴하고, 1920년 6월 천도교가 창간한 월간 종합 잡지 개벽사開闢社의 여기자로 입사했다.



월간 야담

개벽사는 조선의 개벽과 자유사상 그리고 민족 개조를 부르짖으며 매일 발행하는 《개벽》지를 통해 꾸준히 항일 사상을 고취시키고 있었다. 왜경이 눈엣가시로 여기던 《개벽》지, 70호(1926년 6월호)에 급기야 이상화 시인의 항일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가 실렸다. 천도교가 운영하던 개벽사는 일제 검열과 정간, 압수를 거듭한 끝에 1926년 8월 1일 발행된 《개벽》 72호를 끝으로 강제 폐간되었다. 1934년, 《개벽》의 재창

간을 앞두고 뛰어난 역량을 지닌 문인이자 항일의식이 높았던 장덕조는 1934년 《개벽》의 재창간을 앞둔 시점에 인연을 맺게 된 것이었다.

개벽사에 등지를 튼 장덕조는 선배 이태준의 추천으로 1932년 《제일선第一線》에 단편 「저회低徊」를 발표하면서 소설가로 등단했다. 이어 《매일신보 每日申報》에 장편 「은하수銀河水」를 비롯하여 단편 「어떤 여자」, 「해바라기」, 「부부도夫婦道」, 「아내」, 「인간문제」, 「한교훈」, 「어미와 딸」 등을 발표하면서 작가로서 자리를 굳혀나갔다. 이후 장덕조는 「남편」(1932), 「어머니와 딸」(1933), 「여자의 마음」(1935), 「여인국」(1939), 「인간 낙서」(1940) 등 주로 여성의 삶과 성적 욕구,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인간 파멸의 비극을 활

달한 필치로 그려 나간다.

「애인」(1933), 「비오는 날입니다」(1936), 「봄을 기다리는 마음」(1940)과 같은 수필도 창작했다. 항일 행동으로 대구여고보를 졸업하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 배화여고보로 전학가야만 했던 장덕조이지만, 일제 말기에 쓴 황민소설 때문에 일부 빛이 바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문단사에서 장덕조만큼 왕성한 창작력과 탐구력으로 우리 역사를 소설에 많이 담아낸 인물은 찾아보기 힘들다. 동아일보는 1933년 10월 20일자 조간 3면에 “장덕조는 숨쉬는 작가다. 비록 조그만 이야기라도 맺고 끊듯이 붓을 댔고 붓을 떼었다.”는 작품평을 싣고 있다.

일제 시기 장덕조는 동인지 활동에도 적극성을 보였다. 1934년 10월에 창



1963년 회식에서. 첫줄 왼쪽부터 전숙희, 장덕조, 박종화, 조애실. 둘째줄 왼쪽부터 오윤숙, 손소희, 최정희, 박화성.

간되어 1939년 10월에 통권 제 55호로 종간된 월간 야담전문잡지 《월간 야담》에 야담 등을 기고하였으며, 1938년 6월 3일에 창간된 문예·교양·취미잡지 《청색지》, 1945년 12월에 창간된 종합교양지로 백의민족의 주체성을 찾자는 뜻을 지녔으나 광복 직후 좌우격돌의 와중에서 민족문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그야말로 싸움을 도맡았던 《백민》 등 동인지 활동도 활발하게 펼쳤다.

## 해방공간 우익 가치 지키기

이념대립이 치열하였던 해방공간에서 장덕조는 우익의 가치를 지키는 역할도 자임했다. 대표적인 월북작가



김시습을 주인공으로 하여 세조 치하의 역사적 비극을 그린 장덕조의 대표작 「광풍」

임화(林和)가 주동한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와 프로예술연맹에 대항하여 우익 진영의 문화를 옹호·육성하기 위하여 1946년 3월 전조선문필가협회가 조직되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전조선문필가협회는 회장 정인보, 부회장 박종화, 채동선, 설의식, 총무 이현구, 김광섭, 이하윤, 오종식, 분과위원장단 안호상(학술), 이선근(언론), 안석주(연예), 이종우(미술), 김진섭(문학), 이흥렬(음악), 현정주

(체육) 등이 뽑혔다.

원래 중앙문화협회가 주동이 되어 여기에 다시 안호상, 도상봉, 채동선, 정인보, 김범부, 이병도, 이관구, 윤백남, 김동인, 이희승, 손진태, 안종화, 조운제, 장덕조, 김계숙, 고재욱, 김준연, 임병철, 그밖에 학계·언론계 등 각계각층의 문필가들이 가세하여 약 200여 명으로 구성되었다.

식민지 시대 서울 중앙 문단에서 여류 소설가로 또한 여기자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던 장덕조는 1950년 6·25가 터지자 대구로 내려와 피난시대에 삶을 꽃피운다. 소녀시기를 보낸 대구에 오자마자 지역 언론사들은 스카우트 열풍을 일으켰다. 먼저 장덕조는 영남일보 문화부장에 선임됐다가 1951년 대구매일신문(현 매일신문) 문화부장과 논설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시기 장덕조는 대구매일신문에 「여인상」을, 대구일보에 「논개」를 발표했다. 칼럼 「노노자」를 연재했다. 물자가 귀하던 피난 시절에 다닌 신문사 경험은 장덕조에게 강인한 문인정신을 갖게 하고, 정열적으로 활동하며 옹고 그림을 분별하는 대단한 패기로 발전했다. 장덕조는 대교(신문이 나오기 전, 원고를 활자화하여 오타를 잡아낸 최종 교정지)가 나오면 신문사 친구들과 함께 길 건너 대추나무집으로 달려가 막걸리를 마셨다. 오두막 같은 구옥뜰에 주렁주렁 가지가 휘어지도록 대추가 열린 대추나무집 주모는 콩자반과 나물 그리고 뜨거운 국물을 막걸리 안주로 내놓았다. 더러 뜨거운 국물에 찬밥을 얻어 말아먹기도 했던 피난시절 대구에서의 기자생활을 한 고생담은 장덕조에게 늘 삶의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장덕조는 수필에 종종 대구 피난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풀어놓기도 했다.

## 대구 피난시절, 언론과 문필 활동

어느 시기든 창작의 붓과 언론인으로서 사회의 목탁을 놓은 적이 별로 없던 장덕조는 1951년 육군중군작가단에 합류했다. 1951년 5월 16일, 대구 동성로 3가 아담다방에서 육군본부 정훈감실 주선으로 조직된 육군중군작가단의 단장은 최상덕(독견)이었고, 정비석, 최태웅, 김송, 박영준, 박기준, 김기진, 구상, 황준성, 양명문, 황태웅, 이호우, 유치환, 손소희 등이 가입했다. 육군중군작가단은 주로 육군 부대를 따라 종군하여 전선 시찰에서 얻은 경험을 소재로 반공과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작품들을 발표했는데 장덕조도 가까이 동참하였다. 그 외중에도 종군기자로서 역량을 발휘하여 1953



배화여고 동창생들과 함께. 아랫줄 왼쪽부터 김성은, 장덕조, 이철경, 박신삼, 조애영씨. 가운데줄 왼쪽부터 이미경, 장재적, 이정숙, 이학씨. 윗줄 왼쪽부터 이설자, 이옥경씨(동아일보 1982.12.17)

년 7월 27일 오전 10시 9분, UN군과 북한군이 판문점에서 만나 3년여의 전쟁 상태를 중단하는 휴전 협정에 서명하는 현장을 보도했다. 51년 7월 8일 이후 2년여를 끌어온 회담이었지만, 이날 서명은 시작한 지 9분 만에 끝났다. 당시 종군 기자는 90명 가까이 되었지만 조인식을 취재한 종군기자는 50여 명이었고, 여기자로는 장덕조가 유일하게 휴전협정을 취재했다고 종군기자회장을 역임했던 고 문제안 서울신문 종군기자가 밝힌 적이 있다.

판자 위에 천막을 친 휴전회담 조인식장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고, 유리창 밖에서 사진도 찍고 취재도 했지만 이때의 정전 협정이 60년 넘게 남북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정전 협정식 원고를 보낸 장덕조 역시 마찬가지였다. UN군은 개성에 이어 판문점에서도 회담을 열어, 문산역에 열차를 개조한 프레스센터를 설치했다. 평화열차로 불린 프레스센터에는 기사작성을 위한 객차와 침대칸, 식당칸이 마련되어 있었으며 많을 때는 100여 명의 종군기자로 넘쳐나서 따로 천막을 치기도 했다.

휴전이 되면서 장덕조는 다시 대구로 내려왔다. 1954년도 대구 중앙통 구 USIS 내 상록수 다방에서 장덕조의 『여자 3대』 출판기념회가 열릴 때의 일이다. 종전 이후 모든 물자가 귀하던 시절이라 출판사 사장은 『여자 3대』를 출간해준 게 대단한 인심이라도 쓴 양 생색을 내었다. 그 꼴이 보기 싫었던 장덕조가 “구걸하는 게 문인이냐, 뭐하는 거냐, 그 따위 소리를 왜 하느냐.”며 자신의 출판 기념회를 박차고 나가버렸다.

이후 장덕조는 다시 상경하였다. 상경해서는 경북 구미를 배경으로 한 『벽오동 심은 뜻은』(삼성출판사, 전 14권)을 출간했으며, 『이조의 여인들』 등을 썼다. 물론 그 이전에도 수많은 작품을 발표했다. 주로 역사소설과 여



미한국작가와 미국작가들을 두루 만나보고, 작품 자료 수집을 위해 하버드대와 콜롬비아대 도서관을 돌아본 장덕조는 자신의 저서가 하나도 빠짐없이 구비되어 있는 것을 보고 초라한 한국의 도서관을 떠올리며 가슴 아파했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여성해방운동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던 장덕조는 미국 여성들이 가정을 지키면서도 그 안에서 권리를 찾으려는 의식에 대해 깊은 감동을 느꼈다. 두 달만에 미국에서 귀국한 장덕조는 벌써 그 당시에 “왜 이민을 가? 이민은 가봐야 알지.”라는 식으로 늘어나는 이민에 대해 걱정하기도 했다.

2003년 타계 시 슬하에 박원형朴元亨(체이스 맨하탄은행 부총재), 우형宇亨(전 백텔사 고문), 관형寬亨(재미 사업가), 하연河妍(시인), 신애信愛(서예가), 영애鈴愛(소설가), 등 3남 3녀와 사위 이창우李昌雨(성균관대 명예교수), 김동훈金東勳(전 서울시 교통실장), 김영희金永熙(중앙일보 대기자)씨 등이 있다고 보도되었다.

장덕조의 대표작으로는 1953년 동아일보에 연재한 『광풍』이 있다. 『광풍』은 김시습을 주인공으로 하여 횡포한 세조 치하의 역사적인 비극을 그린 작품이다. 문종의 승화와 더불어 시작되는 이 소설은 어린 단종의 쓰라린 생애와 상왕 복위를 꾀하다가 능지처참을 당하는 성삼문을 중심으로 한 사육신의 모습 등, 역사적 사실을 그리는 중에 오직 의를 위하여 초야에 묻혀 기인으로 살아가는 김시습의 행적을 충실히 그리고 있다. 특히 작가는 사육과 권세를 위하여 사악한 세조의 주구가 된 신숙주와 대비하여, 오로지 대의를 위하여 천하를 방랑하면서 은거생활을 하는 김시습의 대인다운 풍모를 묘사하였다.

공맹의 가르침을 따르는 글 잘하는 선비이면서도 벼슬길에 오르지 않고 불문에 기탁하여 설잠雪岑이란 승명으로 신승神僧이면서도 기인 행각을 일삼는 그는, 효수된 사육신의 시신을 거두어 무덤을 손보기도 하고, 귀양간 상왕의 뒤를 따라 그의 고초를 덜어 주기도 한다. 여기에 20년이란 긴 세월을 오직 김시습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소옥이라는 정인이 잘 그려져 있다. 세조도 죽고 신숙주도 죽은 뒤 성종 때에 그 두 사람은 비로소 재회하여 막혔던 회포를 풀지만, 인생이란 무상한 것이어서 소옥은 산고로 죽고, 김시습은 다시 입산수도를 하다가 드디어 죽는 것으로 끝난다. 여류작가가 지은 것으로 보기 어려울 만큼 남성적이며 호쾌한 문장으로 엮어진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정열적인 톤으로 되어 있다. 불사이군不事二君하고 의에 사는 매월당의 용자나 기약없는 낭군을 20여 년이나 기다리는 소옥의 사랑이 모두 의지요, 정열이요, 자기성실임은 물론이다. 작가가 계속해서 잘 읽히는 역사소설을 쓸 수 있었음은 곧 스토리를 전개시키는 구성력이 강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경복이 낳은 명석한 첫 여기자이자, 방대한 사색과 탐구를 바탕으로 지칠줄 모르고 써내려갔던 소설가 장덕조의 열정이 그림다.

최미화(매일신문 논설실장)

제 4 장

정치·행정·교육분야의  
유리천장을 깨다

## 대구여자경찰서 초대 서장 정복향



대구여자경찰서 초대서장이었던 정복향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새 길을 향해 나아가길 겁내지 않았던 일제 강점기의 교육인이며 대한민국의 경찰 겸 정치인으로서 다양한 족적을 남겼다.

### 경성사범학교 졸업 후 교사생활

정복향鄭福香(1910~1998.8.12)은 대한제국이 무너진 경술국치, 바로 그해 1910년에 태어났다. 대구여자고등보통학교(현 경북여고, 대구여고보로 졸업)와 경성사범학교(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전신)를 졸업했다. 여성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그 시절에 서울대학교를 다닐 수 있었던 자부심은 평생 그를 당당하게 했던 것 같다.

정복향은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대구에 내려와 교사를 하던 1947년 우연히 거리를 지나다가 벽에 붙은 경찰 간부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다. 교사생활은 보람은 주었지만, 뭔가 좀 더 활동적인 일을 하고 싶었던 정복향은 당시만 해도 '금녀의 영역'인 경찰에 여성이 진출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경찰 간부모집 공고를 보는 순간 그는 '이름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대구여자경찰서 기념촬영

### 여성경찰 간부 공모에 기혼자로 응모

대한민국에서 여자가 경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1946년이고, 한 걸음 나아가 여자들만으로 구성된 여자경찰서가 창설된 것은 그 이듬해인 1947년이다.

미군정하에서의 경무국장이었던 조병옥과 경무부 고문이었던 미국의 프름 대령은 불우청소년과 부녀자보호단속을 위해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하고 미국의 경찰제를 본 딴 여성경찰제도를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광복 이듬해인 1946년 5월, 여경간부 16명과 여경 1기생 64명을 선발해 수도권구에 배치하고 중앙에 여성경찰과를 신설했다. 여자경찰제도가 정식으로 도입된 것이다.

그 뒤 미군정은 여경 정원을 5백 명으로 정하고, 각 도의 일선경찰서에 배치하여 근무하게 했다. 각 경찰서에서 여경들이 일선근무를 하면서 부녀자와 아동보호 등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자 1947년 1월 미군정의 또 다른



1975년 9월 22일 94회 정기국회 개최 첫날 새국회의사당으로 등원한 의원들. 이철승 국회의장이 유정희의 연성의원(왼쪽부터 이범준, 이숙종, 정복향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계단을 오르고 있는 모습. (경향신문 1975.9.23)

고문이었던 미스 립멘이 독립적인 여자경찰서 설립안을 들고 나왔다.

이를 계기로 같은 해 3월, 중앙에 여자경찰서가 설립되었고, 곧이어 대구, 인천, 부산지역에도 여자경찰서가 설치되어 독립적인 조직으로 활동하였다. 당시 대구여자경찰서는 대구시 중구 대안동, 대구경찰서 동편에 있었는데 외근계, 조사계, 유치장 관리계, 총무계 등으로 구성되었다.

새롭게 창설된 대구여자경찰서 간부모집 공고문을 접한 정복향은 망설임 없이 원서를 냈다. 당시 결혼해 자녀까지 있었지만, 공고문에 기혼자도 가능하다는 단서가 있었기 때문에 꺼릴 것이 없었다. 특히 합격하면 ‘초대 서장’이 될 수 있다는 데 고무되었다.

정복향은 시험을 치렀고 필기시험에 수석 합격했다. 그러나 그녀에게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면접에서 불합격 되었다. 정복향은 이에 승복할 수가

없었다. 결혼한 사람도 응모가 가능하다고 공고되었고, 기혼자라면 자녀가 있는 것은 당연지사 아니냐. 그런데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불합격 시키는 것은 부당한 일이었다. 정복향은 경찰당국에 강력 항의했고, 결국 채용될 수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합격통보를 받은 정복향은 경찰전문교육을 거쳐 대구여자경찰서 초대서장으로 취임하였다.

### 사찰단속, 좌익계 여성 사찰 주력

대구여자경찰서는 대구와 경북 일대의 여성 및 아동과 관련된 사건을 담당했다. 특히 공창제도 폐지와 함께 크게 사회문제화 된 사찰을 단속하고, 학생문제 상담에 주력했다. 아울러 좌익계 여성 사찰에도 나섰다. 그러나 여자경찰서의 업무관할이 넓어다다 업무영역도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여성관련 사건이 난 지역에 출동해 보면 그 지역 남자경찰도 함께 출동하게 된 경우도 많아 서로 신경전을 벌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정복향이 사망하기 1년 전, 1997년 대구시 서구 내당동 자택에서 진행했던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여자경찰서에 대해 “당시는 시국이 어수선한 때라 늘 사상범이 많이 체포되었는데 그들에게 따뜻하게 대하며 자상하게 보살펴주었더니 많이 회유되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요즘처럼 여자경찰에 대한 이미지가 좋았던 것은 아니다.”라고 술회했다. 작고 마른 체구에 차분한 말투였다.

정복향은 3년 동안(1947.6~1949.2) 경찰서장직을 수행했다. 대구여자경찰서는 정복향을 뒤이어 5대 여성서장까지 이어지다 폐지되기에 이른다. 해방의 산물이기도 한 여자경찰서는 정부가 수립되면서 위상이 떨어지더니

급기야 1957년 7월에 대통령령 제1298호 ‘경찰서직무계정 중 개정의 건’이 공포, 시행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10년간의 짧은 역사였다. 여자경찰서의 업무는 일반경찰서에 여경계, 여경반을 두어 맡게 했다.

### 여자경찰서 폐지 항의

여자경찰서가 폐지된다는 소식에 당시 여성계는 “여자 경찰이 대거 등장하면서 형식적으로나마 여권을 되찾은 듯 했고, 이제 경험이 축적돼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는 시점인데 폐지한다.”며 각계에 진정서를 내어 여자경찰서를 독립적으로 존속시킬 것을 주장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여성범죄심리는 여자가 더 잘 안다는 점을 들어 여자경찰서 폐지를 반대했으나, 정부의 결정을 번복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 6·25 터지자 대한여자청년단 경북도단장 취임

대구여자경찰서 초대서장으로 3년간의 임기를 끝내고 미련 없이 경찰복을 벗은 정복향은 6·25 전쟁 직후인 1950년 9월에 발족된 대한여자청년단 경북도단장을 맡았다.

대한여자청년단은 6·25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여자청년들의 훈련이나 계몽활동의 불가피성을 깨달은 정부당국에서 피난지역의 거물급 맹렬 여성운동가인 김철안 등에게 요구해 단시일 내에 조직된 단체였다. 당시 대구로 피난 온 김정례, 이희호, 조애실, 김재형, 모윤숙 등이 중심이 되었는데, 모윤숙이 단장을 맡고 김철안이 부단장을 맡았다. 정복향은 경북도 단장으로 임명된 것이다. 대한여자청년단 경북도단장을 맡은 정복향은



여성회관 개관기념식수에 참여한 정복향 국회의원(왼쪽에서 첫 번째)

전쟁시기동안 경북일대를 돌며 민주체제의 우월성을 전파하고, 반공정신을 북돋웠다.

### 대구서 첫 여성도의원 당선

초대 여자경찰서장으로,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을 겁내지 않았던 정복향은 전쟁의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어가던 1956년 8월 7일 실시된 경북도의회 의원 선거에 홍일점 후보로 뛰어 들었다.

1956년 7월 23일 경향신문은 “지난 15일부터 도의원 후보등록을 접수하기 시작한 경북도내 도의원 선거위원회는 20일 현재 50명의 후보를 접수했

는데, 이 중 대구시에서 입후보한 민주당의 정복향 여사(전 여경서장)의 흥 일점을 포함하고 있어 이채를 띠고 있다.”고 적고 있다. 민주당 후보로 입후보한 정복향은 대구지역의 유력인사를 물리치고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2대 도의원으로 당당히 당선되었다.

1958년 12월 26일 동아일보는 정복향 도의원이 민주당 경북도당 및 대구시 주요 간부급들과 함께 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며 가두시위를 벌인 사실을 보도했는데 그녀의 의정 활동상을 엿보게 한다. 4년간의 의정활동을 끝낸 정복향은 1960년 11월에 다시 민주당 후보로 도의원 출사표를 던졌으나 낙선했다. 그 후 정복향은 대구시·경상북도 교육위원, 경북여성회관 관장, 경북여성단체협의회(현 경북도여성단체협의회 전신) 회장 등을 지냈다.

## 9대 국회서 전국구 의원으로

요직을 두루 거친 정복향은 여성들의 불모지인 정치권 진출이 크게 늘어난 1973년에 있었던 제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정회(유신정우회, 현재의 전국구)의원으로 국회에 진출했다. 당시 경북여성단체협의회장으로 재임하고 있었던 데다가 초대 경찰서장을 역임하고 도의원에 당선되었던 점이 국회의원 후보로 선정되는 데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복향은 1973년~1976년까지 4년간 의정활동을 했는데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하숙을 치며 가정을 돌봤다고 한다. 정복향은 “정치인으로 생활하는 등 1인 4역을 감당했고, 그 어려움을 남들은 전혀 눈치 채지 않게 했다.”며 “매사 정말 열심히 일해야겠지만, 그 때문에 가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전에 후배 여성들에게 충고하였다.

정복향은 9대 국회 의정활동을 끝으로 완전히 은둔했다. 지역구 출마 권유를 뿌리치고 가정으로 돌아가 자녀교육 뒷바라지에 심혈을 기울인 것이다. 하지만 당시 여성이 차지할 수 있던 여러 ‘직위’를 독차지하다시피 한 정복향이 전국구 국회의원생활을 끝으로 사회생활을 접은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적지 않다. 앞서 나간 여성으로서, 동료 또는 후배 여성에게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조금 더 고민해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다. 물론 국회의원을 끝낼 당시 이미 60대 후반의 고령이었던 만큼 지역구에 출마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계속 활동하면서 여성 후배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격려했더라면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조금 앞당길 수 있지 않았을까. 정복향 이후 30년 가까이 지역정치권은 여성들에게는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가정으로 돌아간 정복향은 1998년 8월 12일 오전 9시 30분 대구 서구 내당동 자택에서 향년 89세로 별세했다.

이영란(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 부국장)

## 경북 여교장 1호 박분악



경북 여교장 1호 박분악은 일제 강점기와 근대기 경북 교육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근대에서 현대로 이어지는 시대에 경북 여교장 1호로서 교육계의 유리천장을 깬 박분악은 근대여성사에서나 교육사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 창조적 발상으로 어머니들을 교육하고, 후배 여교사들에게는 푸근하고 자상한 상담자 역할을 마다하지 않던 귀감이 되는 교육자였다.

### 창조적 교육 실천가 여교장 1호

경북 여교장 1호로 발굴된 박분악朴粉岳(1911.12.20~1989.10.27) 교장의 행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이 거의 없었다. 어떤 교육관을 실천했는지, 여교사 모임에서는 무슨 활동을 펼쳤는지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베일에 가려있었다. 기록물 하나 변변하게 남아있는 게 없어 경북 여교장 1호의 삶을 복원하기란 쉽지 않았다. 박분악 교장이 남긴 소논문과 인사기록카드, 교육계 후배와 제자 그리고 유일한 혈육인 딸(김성미 전 계명대여성학 대학원장, 현 경북여고 총동창회장)의 증언을 종합하여 박분악 교장의 삶을 재구성했다.



경북여고 후배 장학금 전달

박분악은 구태여 여교장 1호라 이름 짓지 않아도, 경북 교육계 선구자로서 교단을 깊이 들여다보고, 교육현장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앞장 선 인물이다.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어머니 교실이 아니라, 학부모들의 의식변화를 시도하는 어머니 교실을 선보였고, 자녀교육에서 어머니의 역할을 끊임없이 강조했다. 정확한 시간 관리와 특유의 포용력으로 후배 여교사들에게는 친정어머니처럼 자애롭고 넉넉한 품을 내주었다.

### 남편 병간호 위해 교편 그만 두기도

박분악은 대구에서 아버지 박선옥과 어머니 김금래 슬하 3녀1남 중 장녀

로 태어났다. 1931년 3월 19일 대구공립여자고등학교(현재 경북여자고등학교)를 4년 만에 졸업(제3회)했다. 1933년 12월 27일 소학교 및 보통학교 제2종 교원 시험에 합격하고, 이듬해인 1934년 5월 3일 장기공립국민학교로 첫 발령을 받았다.

교편을 잡으면서 경주 사람 김중환金重煥과 결혼했다. 시댁은 경북 경주시 현곡면 나원리 1184, 나원리 5층 석탑을 바라보고 있었다. 남편 김중환은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와세다(早稻田) 의대에 합격했으나 딸 일곱에 겨우 얻은 아들을 외국에 보낼 수 없다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유학을 포기했다. 8년간 근무한 장기초등학교 옆에 남편과 신집살림을 차렸다. 남편은



박분악 회갑연

책읽기와 음악듣기를 좋아해서 월급 때만 되면 책과 레코드를 한 아름 사 들고 왔다. 그런 남편은 만주출장을 다녀온 뒤 원인모를 병으로 생사를 넘나들었다. 남편을 간호하기 위해 박분악은 학교를 그만두었다. 1942년 7월 27일, 남편이 타계하기 약 100일 전이었다.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그해 11월 1일,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다. 홀몸이 된 박분악은 1944년 4월 7일까지 마음을 추스르며 외동딸을 키웠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박분악은 교단으로 되돌아왔다. 1944년 4월 8일 대구 달성공립국민학교로 발령이 났다. 재임용에 성공한 것이다. 달성공립국민학교에서 1947년 7월 31일까지 근무하다가 대구 수창국민학교로 옮겼다. 수창국민학교 제자인 백희자 대구 해바라기유치원 원장은 “백 선생님은 늘 어린 딸과 함께 출근하셨고, 검은 치마에 흰 저고리를 입고 다니셨다. 외유내강형으로 학생들을 자애롭게 다독이셨다. 하지만 쉽게 곁을 내주지는 않으셨다. 항상 깨끗하고, 범절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정확했다. 출퇴근도, 시간약속도 빈틈이 없었다. 당시 흔치 않던 여교사의 기품을 지켰다.”고 증언했다. 시계가 귀하던 시절, 박분악 선생이 지나가면 아침 몇 시, 저녁 몇 시라고 동네 주민들이 알 정도였다고 한다.

외유내강형 교육자였음은 일처리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박분악이 교장을 맡고 있던 시절, 교원노조가 생기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그들은 박분악 교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한번은 수창국민학교에 화재가 났다. 경찰이 학교 열쇠를 가진 모든 사람을 경찰서로 불러 여러 번 조사했지만 박분악은 당당하게 응했다. 인생에서 수없이 닦쳐오는 시련과 위기를 원칙과 합리적 판단으로 견뎌나갔던 것이다.

## 원칙과 합리적 판단으로 고비 넘겨

경북 여교장 1호인 박분악은 교육실천가이기도 했다. 대구 수창국민학교 재직시절인 1952년 3월 30일 이호석 대구시장은 ‘교육실천가’로서 다년간 대구시국민교육추진에 헌신한 공로가 현저한 박분악을 표창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다양한 교육을 실천했다. 흐트러진 가정교육을 바로잡기 위해 발령받는 학교마다 어머니 교실을 만들고, 어머니 교실을 통해서 역사를 창조하는 힘은 모든 어머니에게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서구식 근대교육이 확대되면서 과거 자녀교육을 전담했던 어머니들의 관심이 줄어들고, 학교에서 학모들의 존재도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는데 우려를 금치 못했다. 교육실천가로서의 본격적인 행보는 평교사 시절을 지나 교감, 교장으로 학교운영을 책임지는 위치에 서면서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박분악의 첫 교감 발령지, 대구 동덕국민학교에서의 활동이 이를 뒷받침한다. 수창국민학교에서 10년간 근무하고 난 뒤, 1956년 3월 31일 개교하는 대구 동덕국민학교로 교감 발령을 받은 박분악은 학모들의 치맛바람과 맞닥뜨렸다. 신설 동덕국민학교에 날마다 수십 명의 학모들이 찾아와 아이를 이전 학교로 보내달라고 떼를 썼다. 안되면 전학시켜달라고 온갖 수를 다 썼다. 박분악은 어머니들을 옹호해 가르치는 것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함을 깨달았다. 그 방법으로 두 가지를 고안했다. 하나는 어머니들을 모아 일깨워 주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학교 신문을 만들어 가정을 계몽하는 일이었다.

즉시 실천에 옮겼다. 학교 신문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으나, 실물이 존재하지 않아 파악하기 어렵다. 어머니 교실에 대한 것은 경북도교육청이 1966



만년의 박분악

년에 발간한 『문교경북』에 게재된 「어머니 교실의 이론과 실제」에 자세하게 실려 있다.

## 치맛바람 잠재운 어머니 교실

한 인간을 키워 가는데 가정과 사회가 학교와 손을 맞잡지 않으면 안된다는 지론을 펴며,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조선 5백년 역사에서 지배계급은 썩고 병들어오, 그런대로 문명을 중시하는 깨끗한 사회를 유지해온 것은 유교 정신을 바탕으로 수신제가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실천했기 때문”이라고 박분악은 믿고 있었다. 조상을 섬기어라, 어버이를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던 가르침은 서양식 교육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면서, 현 신작이 되어 버렸다. 과거는 모두 낡은 것이라며 버리면서도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지도 못했다. 새 교육을 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알맹이는 빼놓고, 지엽적인 기교와 형식에 얽매이니 가정교육도 지표를 잃고 어머니교육의 중요성도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비판했다. 일류병이 휩쓸고, 치맛바람



해안국민학교 36회(1965년) 졸업

이 휘젓는 비교육적 풍조가 교실을 점령하고 교사는 지식을 파는 진학청부업자로 타락하고 말았다고 박분악은 지적했다.

### 가정교육은 어머니 자각에서 시작

이 괴이하고 병든 현실을 고치는 방법은 바로 가정교육의 새 출발이며, 가정교육의 새 출발은 어머니의 자각에서 시작된다고 박분악은 판단한 것이다. 어머니의 자각을 촉구하는 한 방법으로 ‘어머니를 위한 교양 교육’을 생각했고, 그 구체적인 실천통로를 어머니교실로 정한 박분악은 우리나라

교육사상 거의 처음으로 어머니 교실을 통해 가정교육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했다. 처음에는 어머니를 모셔오라니 달갑지 않게 여겼다. 찬조금을 내라고 할 것이라고 미리부터 걱정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동덕국민학교 어머니 교실의 첫 연사는 나중에 국회의장이 된 한솔 이효상李孝祥 선생이었다. 이효상은 마침 유럽에서 돌아와서 어머니교육에 대한 주제로 강연을 했다. 서양의 발전한 모습들을 소개한 한솔은 아무리 그들이 잘살고 있어도 내 나라가 제일 좋더라는 결론과 함께 우리 김치, 고추장과 된장, 팔공산 푸른 하늘 이런 것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못마땅한 마음을 갖고 어머니 교실에 참여했던 학모들은 뜻밖의 인생 강연, 교육 강연에 큰 호응을 보였다. 심지어 자주 이런 모임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할 정도였다. 매달 어머니 교실을 열었다. 평소 안 나오던 어머니들도 소문을 듣고 나오면서 성황을 이뤘다. 학모들이 서서히 학교를 신뢰하게 되었다. 동덕국민학교 어머니들의 경우 비록 신설 학교에 시설도 부족하지만 내 아들, 딸이 다니는 우리 학교가 제일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박분악은 모임 때마다 동덕국민학교를 자랑했고, 어머니들의 불만은 줄어들었다.

### 위인의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

박분악은 1959년 4월 26일까지 동덕국민학교 교감을 맡다가 대구 중앙국민학교 교감으로 발령이 났다. 대구 중앙국민학교는 규모가 큰데다 여러 가지 교무에 시달리면서 동덕에 있을 때같이 착실하게 어머니 교실을 운영 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다시 어머니 교실에 대한 열기는 박분악이 경북도내 첫 교장이 된 해안국민학교에서 되살아났다. 1962년 8월 31일부터

1966년 3월 1일까지 3년 6개월을 여교장으로 보낸 해안국민학교는 당시만 해도 지금과는 달리 도심지가 아닌 변두리 학교였다. 변두리 학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도심지 학교와 농촌 학교의 결점만 모아놓은 곳이 변두리 학교이다. 박분악은 다시 어머니 교실의 필요성을 느꼈다. 첫 모임에 200여 명이 참여했다. 어머니들은 위인의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가 있음을 실감했다.

해안국민학교에서 북명국민학교로 발령이 났다. 북명국민학교는 신설학교인 동덕국민학교와 비슷한 면이 많았다. 북명학교 주변에 소위 일류학교들이 자리 잡고 있어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버릇이 있었다. 또 봉급생활자가 많아 말썽도 일었다. 박분악은 부임하자마자 어머니 교실을 시작했다.

계획을 세운 뒤, 여교사 한 사람을 배정하여 1966년 4월 22일 북명 첫 어머니 교실을 열었다. 처음에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며 눈치만 보고 돌아가는 학부모에 출석률도 저조했다. 자유로운 분위기를 위해서 어머니 교실 장소를 강당이 아닌 교실로 바꿨다. 박분악 교장이 어머니 교실의 취지를 설명했고, 부녀상담소 박순선 소장이 '건전한 가정생활'에 대해 강연을 했다. 권현직 북명학교 교감이 아동심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반응은 뜨거웠다. 두 번째 어머니 교실은 5월 10일에 열었다. 알고 온 어머니들도 많았다. 강의가 끝나면 한국가요와 고전무용 배우기 시간도 가졌다. 오늘날 평생학습의 기초를 박분악 교장은 약 반세기 전, 북명국민학교에서 미리 시작했다. 두 번째 어머니 교실을 마치자 모두 기다리게 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어머니 교실이 발전되자 주변에서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요소들이 점차 고

쳐졌다. 춤바람, 댄스교실 등이 학교주변에서 사라졌다. 어머니 교실을 통한 학원정화운동은 고위층에 전달되어, 정책적인 뒷받침 아래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 학부모 모임은 순수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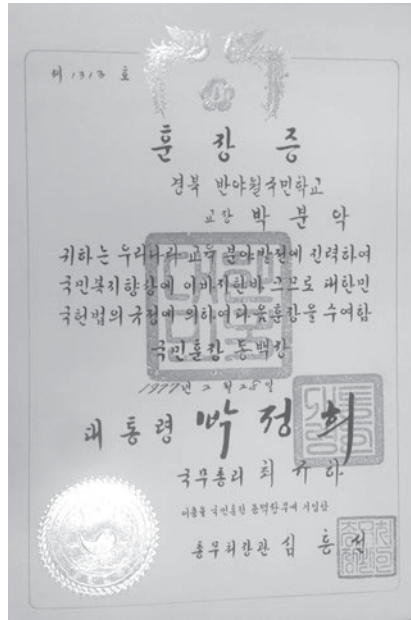
박분악은 어머니 교실을 확대하려면 뚜렷한 목표의식과 계획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 해방 후 우리 교육이 형식에 치우쳤음을 반성하고, 어머니교실을 한낱 자기 홍보나 상부에 잘 보이기 위해서 실시한다면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주의시켰다. 그리고 모든 어머니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주었다. 일부 유력한 학모의 독무대를 차단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순수성을 강조했다.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이용하려는 집단이 생기게 마련



해안초등 36회 졸업식(교사들)



국민훈장 동백장 훈장



국민훈장 동백장 훈장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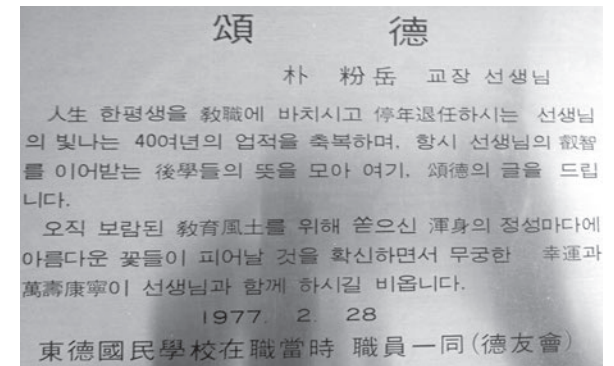
이니, 경계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박분악은 1950년~1970년 당시 한국 교육은 위기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일대운동이 요청된다고 보았다. 교육자들은 학생만 가르치고 깨우칠 것이 아니라 가정의 학부모도 계몽해야한다고 보았다. 강단에 서면 유창한 말솜씨와 유머로 듣는 이를 즐겁게 했던 박분악은 막심 고리끼의 인생 경고를 유념하면서 살았다. 고리끼는 운명은 물 위에 있는 어부와 같다고 보았다. 악착스레 살려는 인간들 틈에 미끼가 달린 바늘을 던져본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잘 살피지도 않고, 미끼를 덥석 삼킨다. 순간의 운명을 낚싯대에 걸어 올리는 것이다. 낚싯대에 걸린 인간은 발버둥 치다가 숨겨간다. 탐

심이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 교육에 기여한 공로로 각종 표창과 훈장을 받아

해안, 송정, 반야월 등 교통이 불편한 학교에 출퇴근하면서도 등교 시간에 늦거나 약속시간에 지각하는 법이 한 번도 없었던 박분악 교장은 교편을 잡으면서 각종 훈장과 표창을 받았다. 그만큼 모범적으로 살아온 것이다. 1948년 4월 30일에는 경상북도 최희송 지사로부터 표창장을 받았고, 1954년 10월 8일에는 경상북도 교육회장 김영기로부터 18년간 경북도 교육계에 종사한 공로로 표창장을 받았다. 1960년 1월 1일에는 대통령으로부터 녹조소성훈장을, 1970년에는 학교 환경정화운동에 앞장선 공로로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김관영 교육감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1972년 11월 10일에는 민관식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창의적인 교육에 대한 표창장을 받았고, 1977년 2월 28일에는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국민 복지향상에 이바지한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그러나 박분악의 경북교육사에서의 위치는 무엇보다 동덕국민학교 재직 당시 직원들로 구성된 덕우회 德友會가 1967년 반야월국민학교에서 정년퇴임을 맞은 박분악 교장에게 전달한 송덕패에 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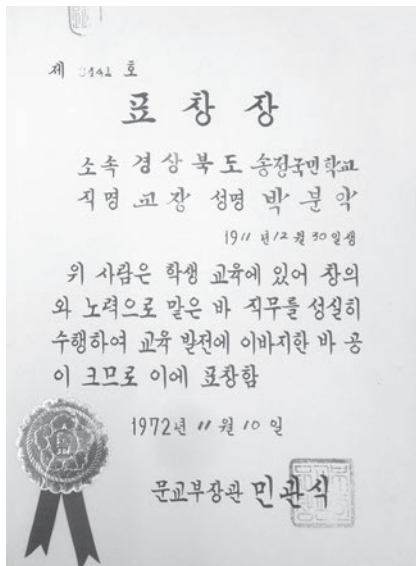


덕우회 송덕패

담겨있다. 덕우회는 평생을 교육에 바치고 정년퇴임하는 박분악 교장의 40여 년 업적을 축복하며, 선생님의 예지를 이어받으려는 후학들의 뜻이 어받아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날 것을 확신하는 마음을 송덕패에 담았다.

### 여교사들의 지위향상과 권익옹호에도 기여해

교직생활 28년 만에 대구 해안국민학교 교장에 부임한 데 이어 송정국민학교를 거쳐 반야월국민학교에서 정년퇴직한 박분악은 여교사들의 지위향상과 권익옹호에도 노력했다. 1971년부터 1977년 정년퇴임 시까지 경상북도 국민학교여교사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이 기간 동안 기관지를 창간하여 여교사들의 권리신장을 위해 앞장섰다. 따르는 이들이 많았다.



문교부장관 표창장

“함께 교편을 잡던 후배 여교사들이 집으로 굉장히 많이 찾아 오셨다. 가정적인 문제나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런 문제들을 마치 어머니에게 털어놓듯이 상담을 하곤 했다.”는 딸 김성미 계명대 명예교수는 집 문턱이 닳도록 손님들이 찾아왔다고 밝혔다. 그렇게 온정을 베풀고 정을 나누었기에 박분악 교장이 말년에 투병생활을 할 때는 간병하려는 이들이 시간, 요일별로 조를 짜야할 정

도로 붓졌다. 박분악은 1989년 10월 병환으로 타계했다. 박분악의 임종은 25명 이상이 동시에 지켜봤다.

책읽기를 좋아했던 남편 김중환처럼 박분악도 타계 직전까지 붓글씨를 썼고, 소설을 읽었다. 12권짜리 실록도 금세 다 읽었다. 대구공립여자고등학교(현 경북여고) 재학시절 동양자수로 수놓은 호랑이는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역동적인 힘을 지녔다.

최미화(매일신문 논설실장)

## 경북출신 여성 국회의원 1호, 김철안



김철안은 대구경북출신의 첫 여성국회의원인 동시에 재선 국회의원으로, 대한민국 건국초기 여성운동의 기틀을 세운 대모 중 한 사람이다. 그는 두 번의 낙선에도 굴복하지 않고 다시 출마해 4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국회에 입성했으며, 자유당 말기 집권여당의 부조리에 당당하게 맞섰던 여장부이다.

### 농사, 집안 일 하며 8년 동안 일본 메이지대 통신강좌

‘한국 여성운동 약사’ 등에 따르면 김철안金喆安(1912.4.4~1992.1.4)은 1912년 4월 4일 일제강점 이후 가산이 기울어진 가난한 농가의 2녀 중 맏딸로 대구에서 태어났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려운 생계 때문에 어머니를 따라 영덕으로 갔다가 영덕소학교를 졸업하고 19세인 1930년 김천으로 왔다.

그의 집안이 그렇게 가난했던 이면에는 민족적인 이유가 있었다. 1910년 나라가 망하자 가문의 지주였던 두 큰아버지가 가출해 북만주로 가버렸다. 그래서 열여덟 살과 열일곱 살 밖에 안 된 두 큰어머니는 조국에 남아서 일제에게 갖은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살림이 기울어 질 수밖에 없었다. 계

다가 김철안은 학교에 가기만하면 불온사상을 가진 집안의 자식이라고 번번이 퇴학을 당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학교를 포기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여 1931년에는 일본 메이지대학의 정치학과 교외생으로 입학했다. 즉 학교문은 출입을 할 수 없고 강의록으로 공부를 한 것이다. 이 같은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 고등계(지금의 경찰서 정보과)에서도 더 이상 못살게 굴지 않으리라는 생각에서였다.

검정고시로 경성보육의 보모자격을 얻은 김철안은 금릉학원 부설 금릉유치원 선생(보모)으로 취직해 아버지가 사망하고서 홀로 남은 어머니와 두 큰어머니, 그리고 여동생을 거느린 가장노릇을 했다.

어렸을 때부터 나라 없는 슬픔을 몸소 체험한 그는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남의 압박에서 벗어나 떳떳한 독립국이 되느냐 하는 생각에 사로잡힌 때가 많았다. 그래서 마르크스, 레닌의 경제서적을 읽으며 ‘길’을 찾아보려고 했으나, 그것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과는 맞지 않는 내용이어서 낙심도 했다. 그러다가 23세인 1934년에 김천에서 부자로 소문난 최의원과 중매결혼했다. 당시 시댁에서 신여성이라면서 결혼을 반대했으나 김철안은 발에 나가 농사일을 거드는 등 강한 의지로 결혼에 성공했다.

남편 최의원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결심을 굳히고 집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한편 과수원, 양잠 등 안하는 것이 없었다. 남편은 곡물무역을 해서 외국에 내기도 하고 국내에 팔기도 했다. 그래서 온 집안 식구들은 모두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움직였다.

이때 김철안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며 결심을 했다. ‘내가 신여성이라는

허울 좋은 말에 이대로 있을 것이 아니라 들녘에 나가 모도 심고 밭도 매고 외양간도 치우며 남자들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도 다 해낼 것이다.’ 라는 각오로 농사를 지으면서 5년을 지냈다.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하는 말이 “너는 ‘박씨 부인’이다.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있을 여자가 아니야! 어데 밖에 나가서 좀 더 큰일을 해야지.”라며 그에게 의욕과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

박씨 부인은 고대소설 「박씨부인전」에 나오는 주인공으로, 얼굴이 못생겨 남편 이시백에게 소박을 당했으나 도술로 시부孀父의 사랑을 받고 남편을 과거에 급제하도록 하고 도술로써 남편 시백을 도와 병자호란의 치욕을 씻고 충렬정경부인에 봉해진 인물이다. 김철안은 자신을 ‘박씨부인’에 비유하며 격려한 시아버지의 결단을 “부처님의 말씀만큼이나 큰 힘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라 자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할 일도 없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할 일이었고, 시어머니는 사회활동을 하려는 며느리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김철안은 농촌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낮에는 논밭에 나가 일을 하고 밤에는 집안 살림과 바느질에 하루 해를 다 보내고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자신의 실력과 자질을 위한 공부를 했다. 그리하여 20세 처녀시절 시작한 메이지대 교외생 공부를 28세가 되던 1939년에야 수료할 수 있었다. 꼬박 8년이 걸렸다.

## 독립촉성애국부인회 결성

김철안의 나이 34세에 해방이 되었다. 그러나 해방의 기쁨은 일시적이었

고, 미군정하에서 국민들은 좌우로 갈라져 격렬한 대립을 이루었다.

김철안은 철저히 우익 쪽에 서서 민주이념 전파에 심혈을 기울였다. 1946년에 한국독립촉성애국부인회를 조직, 경상북도지부 회장을 맡아 여성운동의 주춧돌을 세우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대동청년단 경북도 여성부장인 김소분과 손을 잡고 우익세력이 좌익세력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일에도 열중했다. 그러던 1946년 10월 1일 대구에서는 폭동이 일어났다. 이때 대구를 비롯한 경북지방은 좌우충돌로 쑥대밭이 되다시피 혼란했고, 공산당의 난동에 무법천지가 되어 여기저기서 사망자와 부상자와 행방불명자가 술하게 발생했다.

김천에서는 우익인 대한노총과 좌익인 노동평의회 사이에 시가전이 벌어져 한국애국부인회와 대동청년단 부녀회원들은 우익 노동자들에게 밥을 해주며 찢어진 옷을 갈아입히고 상처를 치료하면서 좌익 노동자들에게 대항하여 싸우도록 격려하고 밀어주었다.

김철안은 이때 아이를 낳고 며칠 지나지 않은 때였는데 ‘현장’으로 나가 ‘만일 내가 죽으면 갓난아이를 부탁한다.’는 유언까지 남겨 놓고 온몸이 으스스하도록 뛰었다. 이렇게 하여 사건을 겨우 수습했는데, 김철안은 우익두목으로 지목되어 테러 위기로 매일 전전긍긍하며 살아야 했다.

## 여성운동 차원 37세에 제헌국회 첫 출마

8·15광복 후 신탁통치를 둘러싼 좌우익의 극한 갈등이 어느 정도 누그러지고 국제연합(UN)의 감시 아래 1948년 5월 10일 총선거가 실시되자, 김철안은 제헌국회의원 선거에 김천 갑구 선거구에서 대한여자국민당 소속으



김철안 민의원 일행, 진해시 승격 조사단 시찰기념(1955.2.15)

로 입후보했다.

대한여자국민당은 1945년에 창당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정당으로 신한국건설과 남녀평등권을 표방했다. 1945년 9월 18일 임영신, 김선인, 김철안 등과 각 지역 대표들이 모여 창당발기인대회를 열었으며 주로 자유당의 외곽단체로 존재하다가 1960년 소멸되었다. 따라서 한국애국부인회 회원들은 대부분 당원으로 가입했고, 이들의 정치참여는 여성운동의 일환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김철안은 당시를 회고하며 “해방당시만 해도 국회의원이란 호칭보다는 ‘대의사’라는 일본식 칭호가 더 자연스럽게 들리던 때였다.”며 “그런 시절에 37세 아기엄마가 출마를 선언하고 나섰으니, 주변에서 기절초풍한 사람

이 한둘이 아니었음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겠지요.” 라고 말했다.

김천이란 지방에서 여성이 선거 출마의 뜻을 갖는다는 자체가 혁명적이었다. 그러나 겹겹이 치지는 비난과 면박의 벽은 당찬 그로서도 감당하기 쉽지 않았다. “세상이 망해 가는군. 암탉이 울겠다고 난리야.” 촌로들의 이 한마디는 바로 낙선으로 이어졌다.

### ‘부인신문’ 발간 위해 거액 찬조

제헌국회의원 선거에서 엄청난 벽을 절감한 김철안은 다시 여성운동에 매진했다. 선거가 끝나자, 한국애국부인회는 발전적인 해체를 결의하고, 1949년 5월 대한부인회를 결성하게 된다. 서울에서 열린 창립총회에 김천시 회장인 김철안도 경북회원들과 같이 참석했다.

당시 총본부 회장으로 선출된 박순천은 ‘부인신문’ 발간 찬조비로 김철안에게 얼마를 희사하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서슴없이 그 자리에서 논밭 서른 마지기를 내놓겠다고 했으니, 이는 신문 찬조액 중 어느 누구보다도 큰 덩치였다. 그는 집에 돌아와서 아무도 몰래 땅 문서를 훔쳤으나, 워낙 전답 문서가 많아서 집안 식구들 가운데 누구도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김철안은 그 땅을 시가보다 낮게 처분해서 그날 밤 돈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 박순천 회장에게 내놓았다. 그런데 이때 박순천을 따라 여성들만이 참가한 회의에서 동의나 개의, 재개의 같은 회의방식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을 본 김철안이 조직생활에 익숙한 자신의 경험을 살려 진행방법을 많이 가르쳐 주었다고 전해진다.

김철안은 여성운동에 매진하는 가운데 1950년 5월 30일 치러진 제2대 국

회의원 선거에서 금릉군 선거구에 대한부인회(대한여자국민당)소속으로 다시 입후보했으나, 차점으로 낙선하였다.

실의와 좌절이 계속되던 그해 일어난 6·25 전쟁은 그에게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줬다. 그의 헌신적인 피난민구호사업에 촌로들이 감격하면서 그에게 밝은 빛이 비치기 시작한 것이다.

### 헌신적인 피난민 구호에 촌로들 감격

6·25 전쟁초기, 국군들은 후퇴를 거듭했고, 김천역에는 부상당한 군인, 경찰, 민간인이 거리에 나돌아,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다. 김철안은 이들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해 가정부인들에게 호소했고 접대부들에게도 협조를 구했다.

이리하여 모인 김철안과 부인회 간부들과 자원봉사자들은 부상병들의 몸을 닦아내고 총상에서 생긴 상처 부위에 구더기가 생겨 손으로 그것을 파냈다. 그러니 반 의사와 간호원 역할을 훌륭히 해냈다. 또 상점과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속옷을 얻어다 장병들에게 입히고 약을 얻어다가 부상병들에게 발라주었다. 그러다가 북한군이 계속 남진하는 바람에 김천에서도 철수해야 했다. 그는 가족을 먼저 피난열차에 태우고 혼자 뒤에 처졌다가 맨 마지막막으로 김천을 빠져나와 청도군 매천면으로 갔다.

이곳에는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라고 풋말을 써 붙인 민사처가 생겨서 피난민을 수용하고 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그런데 군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히 들어차 있었다. 하지만 창고의 책임자는 상부의 지시가 없다고 해서 커다란 자물통을 꼭 잠그고 한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극을 강 건너 불

보듯 구경만 하고 있었다. 김철안은 피난민들과 함께 그 창고 문을 부숴버리고 양식을 풀어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군수가 달려와서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고 피난민들을 다그치자 김철안은 군수를 쫓아버리고 대구로 들어갔다.

### 여자청년단 조직 부단장활동

김철안이 대구에 도착하자 국방부장관 신성모가 그를 급하게 찾는다는 소식을 접했다. 만나보니 여자청년단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즉시 여자청년단을 구성하여 단장에 모운숙을 추대하고 자신은 부단장을 맡아서 본격적으로 조직활동에 나섰다.

청년단의 주요 사업은 군부대에 된장, 간장을 거두어 나르는 것과 사치스런 여성들을 단속하는 일이었다. 또 미군의 요청으로 적지에 정보원을 보내기도 했으며, 일선의 최전방에 나가서 대북방송도 했다. 특히 김철안은 평양으로 진격한 국군을 뒤따라가서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헌법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시국강연에 나섰다.

그는 "김천으로 돌아가려는 데 헌병대에서 연락장교가 쫓아와 그날 밤중으로 평양으로 가야한다고 해서 연락장교와 같이 온 김기완이란 사람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평양에 갔다."고 회고했다.

평양에서 가정주부들을 규합해 부인회를 재조직하고 각종 집회에 나가 밤낮으로 강연하고 다니며 평안남도 순천까지 갔다. 그때가 11월 하순에서 12월 상순이었다. 김철안은 다시 함경남도의 상기천으로 갔다. 그곳에서 중공군에 밀려 쫓기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평양으로 되돌아오게 되었다.

하지만 강연을 멈추지 않았다. 다시 황주, 신막, 개성, 서울 등 곳곳에서 피난민 후송 작전과 시국강연에 참여했다.

### 40대초에 단 ‘금배지’ 달고 국회 보사위원장 당선돼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성립되자, 제3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철이 다가왔다. 김철안은 두 번 낙선했지만 세 번째로 출마하기로 하고 마을 어른들을 다시 찾았다.

“어허, 젊은이가 또 왔군. 이번에 해 보시게. 작대기를 짚고 나서서라도 도와줍세.”

6·25 전쟁 중에 불타는 애국심으로 희생적으로 앞장서서 일하는 김철안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를 칭송했고, 어느새 ‘암탉’이 ‘젊은이’로 격상돼 있었다. 그리고 14명이나 되는 남성후보들을 상대로 ‘암탉’ 논쟁을 벌인 끝에 1954년 5월 20일에 있는 제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에서 4번째로 표를 많이 얻어 홍일점으로 당선되었다. 대구경북 출신으로선 처음으로 여성 국회의원이 당선된 것이다. 당시 나이가 43세였다.

김철안은 경북 금릉 국회의원 당선 직후 동아일보 인터뷰를 통해 “여성의 입장을 떠나서 당을 의지하고 허영을 떠나 남녀공존사회에 이바지하겠다.”는 당선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그는 제1목표를 ‘오로지 농촌 사람들이 이끌어 준 심사를 항시 염두에 두고 전국 8할 이상을 차지하는 피폐한 농촌 무산대중의 균형경제를 도모하여 민원을 일소함에 있다.’고 소개함으로써 여성정치인으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었다.

이에 앞서 1949년 치러진 제헌국회 보궐선거에서 대한여자국민당 당수를



4대 여성 국회의원이었던 김철안, 박순천, 박현숙 의원(왼쪽부터) (한겨레신문 1996.3.17)

맡고 있던 임영신은 정현모가 경북도지사로 임명되어 자리가 비게된 경북 안동 을구에 출마해 장택상을 제치고 당선되었다. 대한민국 최초 여성국회의원이 된 것이다.

그러고 보면 전국에서 가장 유교적으로 남녀차별이 극심한 것으로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대구경북에서 초기 국회에 두 명의 여성 국회의원이, 그것도 대한민국 첫 국회의원이 당선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울러 충청출신인 임영신이 안동에서 출마해 당선된 것을 보면 현재와 같은 ‘지역 기반’이 결코 우리 정치의 원래 모습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국회의원이 된 김철안은 민법 제1117조를 새로이 개정하게 되었는데 그 속에 여성과 관계있는 상속법, 친족법 등에서 여성에게 유익한 안건을 제

출하여 통과시키는데 사력을 다했다. 결과적으로 너무 보수성이 짙은 남성 의원들이 협조하지 않는 바람에 부결되었지만, 사회에 문제를 제기시킨 동기가 되었다.

그런데 김철안은 원내에서도 '암탉'에 대한 멸시를 느끼며 '치마'를 벗어 던지고 남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는 "요릿집에도 가고 일선방문 때도 남 자들과 똑같이 행동했어요. 남성의원들이 가는 곳엔 반드시 김철안도 끼어 있었지요."라고 술회한 바 있다. 심지어 서울 종로 3가 밑바닥업소에까지 진출해 윤락녀들을 구출해 내기도 했다. 이로 말미암아 국회 출입기자들로부터 '장모'라는 호의적인 호칭을 듣게 됐다. 그는 초선으로, 보사분과위원장에 출마, 끝내 당선의 영광을 거머쥐기도 했다.



1956년 배재구장에서 열린 여야 친선야구대회에서 김두한의원원과 김철안의원이 악수하는 모습 (동아일보 2012.8.23)

## 재선 의원으로 국회입성, 자유당 권력과 맞서

김철안은 1958년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역시 자유당 공천으로 금릉군 선거구에 입후보하여 세 사람의 입후보자를 제치고 근소한 표차로 당선되었다. 제4대 국회에서 김철안은 재선의원으로서 당당히 의정활동에 임하게 되었지만, 1960년 3·15 대통령 부정선거로 정국이 어수선해지고 4·19 혁명이 일어나 국회가 해산되면서 그를 포함한 국회의원 모두가 사퇴했다.

4·19혁명을 불러온 자유당의 부패와 권력 사유화는 김철안에게도 환멸을 안겨주었지만, 그는 당당하게 대응했다. 국회의원이면서 아울러 대한부인회 최고위원을 맡고 있던 김철안은 당시 대한부인회 대표 최고위원을 맡고 있던 박마리아와 대척점에 섰다. 박마리아는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이기붕의 아내로, 남편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부인회를 선거기지로 삼고 있었다.

재선 국회의원인 김철안은 "3·1운동의 햇불을 높이 치켜든 유관순을 시작으로 선배들이 그간 40년 동안 여성운동의 씨를 뿌려 왔는데 우리는 이제 그 결실을 보아야 한다."며 부인단체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당당히 거부했다. 그러는 가운데 가슴 한편에서는 '박마리아가 권력을 휘두르며 이단시해도 나의 안일과 출세를 위해 아침 한번 해 본 일이 없다.'는 당당하고 떳떳한 생각이 가득찼다. 따라서 차츰 권력자들에 대한 염증과 정치에 대한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다.

## 5·16이후 정계은퇴

4·19혁명이 일어나자 자유당의 모든 것은 막을 내렸다. 민주당이 집권하

자 지난번 선거소송에서 패했던 우동규가 부정선거 관계로 또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김철안은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어 14개월 동안을 철창 속에서 지냈다.

그런데 8개월 만에 민주당 정권이 무너지고, 1961년 5·16 쿠데타가 일어나 그 해 12월에는 부정선거 및 4·19 발포명령책임자였던 최인규(전 내무부장관), 곽영주(경무대 경호실장), 임화수 등의 사형이 집행되었다. 그런 틈에 김철안의 사건은 흐지부지 되다가 무죄로 풀려나게 되었다.

김철안은 1960년에 진행된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금릉에 다시 출마했다. 무려 열네 명의 후보자가 난립한 가운데 치러진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다.

5·16직후 처음으로 치러진 제6대 국회의원 선거는 비례대표제에 의한 전국구의원 선거를 처음으로 뽑는 선거였다. 김철안은 이 선거에서도 다시 금릉에서 출마했으나 낙선하였고, 그 뒤로는 정치계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

## 정계 은퇴 후 김천에 내려가 일대기 집필

정치를 은퇴한 김철안은 만학에 정열을 쏟아 59세 되는 해인 1970년도에 성균관대학원 정치학과를 수료하기도 했다.

1977년에는 화순 최씨 7백년 가문이 뿌리내린 시가인 김천 금릉으로 낙향했다. 당시 그의 집은 김천 시내 한복판에 있었는데 고가를 개조한 2층 양옥이던 그의 집을 모르는 택시운전사가 없었다고 전해진다. 그는 이곳에서 잔잔한 일상생활 속에서 신문, 잡지 등에서 건져야 할 현안을 일일이 찾아 읽으며 '정치감'을 놓치지 않았다. 특히 국제기류는 젊은 사람들과 판



김천으로 귀향 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기사(경향신문 1984.8.14)

단이 어긋나지 않게 촉각을 다듬으려고 애썼다. 그러는 가운데 자신의 일대기를 썼는데 조국통일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목숨을 걸고 뛰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는 사심 없이 해야 합니다. 돈은 국민이 가져야 하고 정치인은 적수공권이어야 나라가 제대로 될 것입니다.”라며 정치인에게 빠지는 한마디를 잊지 않았다.

1981년 남편과 사별한 김철안은 1992년 1월 4일 오후 2시 40분 서울대병원에서 81세 노환으로 별세했다. 서울대 법대교수를 지낸 최송화 등 슬하에 1남3녀를 두었다.

이영란(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 부국장)

## 경북도 부녀아동과 초대과장, 김도연



공무원 100만 시대를 눈 앞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 앞으로 인구 50명당 1명은 공무원을 직업으로 갖게 되며, 국가 공무원 중 절반이상은 여성이 될 것이라는 안전행정부의 통계가 발표되었다. 공직사회에 여풍女風이 강하게 불고 있다는 기사는 이제 더 이상 새롭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현재 5급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은

9.9%에 불과해 여성의 고위직, 관리직 진출을 막아서는 유리천장(glass-ceiling) 해소를 위한 노력이 여전히 유효하다. 김도연은 경북도의 첫 여성과장이다. 1965년 4월 6일 경상북도 보건사회국 사회과 안에 부녀계가 다시 설치되면서 초대 사회과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이는 경상북도 뿐 아니라 건국 이래 지방관서에 과장급 여성공무원(5급)이 처음으로 탄생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 첫 직장, 의성군농회 보도직

김도연은 경북 의성군 구천면의 두메산골 오지마을에서 독실한 기독교 가정의 1남 4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고향에서 국민학교를 졸업한 후 일본



1973년 김도연 새마을부녀지도자연수대회

으로 유학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42년 어머니의 병환 소식에 급하게 귀국을 했다. 당시 2대 독자였던 오빠가 '유언비어 유포와 치안유지법 위반' 죄로 교도소에 수감되었기에 어머니를 비롯해 온 가족이 고통을 받던 시기였다. 그러다가 먼 집안 아저씨로부터 군농회 보도직 취업제안을 받았다. 일본에서 유학한 경험 덕분에 일본어가 매우 유창했기 때문에 면접에서 단박에 합격할 수 있었고, 그 해 5월 20일부터 농회보도로 발령을 받고 근무하게 되었다.

김도연은 당시 다재다능하고 유능한 여성 지도자였던 직장선배 이병수를 무척 존경했다고 한다. 유창하게 연설을 하던 선배의 모습을 보고 연설 흥재를 내보기도 했는데, 퇴비증산 주간을 맞이하여 고향으로 출장을 가면서

마을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연설을 하게 되었을 때 이 경험은 매우 유용하게 작용했다. 이병수 선배의 흉내를 내보며 죽을 힘을 다 했는데, 다행히도 고향사람들이 많이 칭찬해 주어 연설에 자신감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해방은 의성군청에서 맞았다. 해방 후, 고향 구천 국민학교에서 교편을 잡게 되었으나, 곧 결혼하게 되어 교사로서의 생활은 짧게 끝났다.

### 도청 공무원으로 취직

김도연은 1947년 9월 남편을 따라 대구로 이주했다. 선배였던 노복선과 정남숙의 주선으로 경상북도 농무에 다시 취직해, 농촌지도사 교육, 의식주 생활개선 업무를 담당하며 교관요원으로서 농민교육을 수행했다. 농무과 재직 중 담당업무로 농촌부녀자 교육, 의식주 생활개선, 문맹퇴치 사업을 하면서 처음으로 여성계에 관여하게 되었고, 이때 대한부인회 등 부녀계와 연관된 많은 여성 지도자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었다고 한다.

1956년 2월에는 대구시 부녀계장으로 임용되었다. 부녀계장으로 재직시 고급인력이 많은 대한부인회 간부들을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 끝에 대구시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계몽 강연회 실시를 간부들에게 제안했다. 대한부인회에선 환영했고, 대구시 변화가(역전, 동성로, 대신동시장, 남문시장 등)에 '신생활운동 강연회' 현수막을 내걸고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강연회를 개최하며 여성운동 '봄'을 조성했다. 대한부인회는 반관반민半官半民단체로 국가에서 지도 육성했는데 부녀사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말단조직을 6월 중순 99개동 부인회조직을 착수해 11월말 완료했다.

동 부인회장을 중심으로 건전가정영위운동, 절미저축, 문맹퇴치, 개량복 만들기 등 잘사는 마을 만들기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그런데 1959년 10월 27일자로 원하지 않던 경상북도 부녀계장에 전근 발령이 났다. 당시는 정치적 혼란기였다. 1960년 3·15부정선거 규탄으로 이어져 4·19혁명이 일어나며 자유당의 붕괴와 민주당의 집권으로 여성계에 서도 많은 갈등과 알력이 있어 힘든 일도 겪었지만, 공직자로서의 중립을 지켜 잘 헤쳐나갈 수 있었다. 1962년 정부기구 개편으로 각 시·도 단위에 지방공무원교육원이 신설되었을 때 공무원 교육원 서무계장으로 진출되었는데, 이 때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어서 공직생활 동안 두고두고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한다.

1965년 4월 사회과내 부녀계의 부활로 부녀계장 자리로 돌아왔다. 1960년대 여성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하며 1962년 관공서 내 부녀상담소를 개설했는데, 관공서 내에 상담실을 설치하여 부녀들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외부로 상담실을 옮기고 상담요원들도 보충하여 가시적인 사업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그 후, 부녀상담소는 1979년 부녀지도 업무 일원화 계획에 의해 부녀아동회관으로 통합 운영하게 되었다.

한편 공창제도가 폐지되며 대구시내 9개 유곽에서 몸을 팔고 있던 약 90명의 공창이 해방되었지만, 사후관리 대책이 전무하여 그들 대부분이 사창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6·25전쟁 후 매춘행위의 성행으로 사창가가 성행해 윤락여성 대책위원회는 윤락여성과 포주에 대한 교화에 역점을 두고 강연회, 좌담회를 통해 윤락가 정화에 힘썼고 그 결과 윤락여성들을 직업보도소로 연결시켜 기술숙련공으로서 활동해 나가도록 도울 수 있었다. 시국



1978년 김도연 근로여성새마을교육평가보고회

이 안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부녀사업을 계획하며 말단 부녀조직을 구성했고 조직된 말단 부녀조직은 먼저 시범사업으로 건전가정육성 10대과제를 선정해 남녀야간학교 개설(문맹퇴치운동), 절미저축, 구판장 운영, 개량복 보급, 의식주생활 개선운동을 추진했다. 이 사업들은 주민생활과 직결되어 큰 호응을 얻었고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 시범사업의 성과로 농번기 탁아소 운영과 저축운동, 가정의례 간소화운동, 미신타파, 깨끗한 마을 만들기, 이웃돕기운동까지 영역을 확대해 나갔다.

1970년 7월 3일, 대구은행 2층에 숙녀금고가 개설되었다. 여성들에게 금

용기관 문턱을 낮추고 여성들만의 출입이 쉽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김도연은 부인들에게 신생활운동을 벌여 한가정 한통장 갖기 운동, 한가정 적금통장 갖기 운동을 추진해 저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켰다.

1972년에는 도지사의 지시로 감자주식화운동 추진계획을 세우고 부녀과에서 사업추진(교육, 강습회, 강사, 물자수송 등) 제반사항을 지원하기로 했다. 생각했던 것 보다 높은 호응도에 교육 일정조정에 애로가 있었지만, 여성들의 환영을 받으며 중소도시 뿐 아니라 농촌마을까지 보급이 되며 감자를 이용한 다양한 조리법을 배우는 등 주부들의 실질적인 교육으로 환영을 받았는데 특히 당시 대한민국에 하나뿐인 특수차량의 도입으로 교육마다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었다.

1975년에는 세계여성의 해를 맞아 세계적인 국제운동을 정리하여 우리풍토에 맞는 범도민 운동으로 이끌기 위해 '75여성운동 강령'으로 정하고 각급 여성단체 조직망을 통해 계도하기 위한 경북 전략회의를 가져 대구 각계각층의 여성 지도자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에 보고하는 한편 경북 여성운동의 추진방향을 설정하였다. 또한 전국적으로 새마을운동이 확산되던 시절, 탄광촌의 부인들은 남편을 '까막 족제비'라 부르며 아이들 교육이나 집안 살림에 뒷전이었던 문경탄광지역의 문제점을 조사하여, 주부들의 정신개조를 하기 위해 탄광촌을 돌며 새마을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 후, 부녀자들은 변화했으며 그들 스스로 장갑공장, 콩나물공장, 두부공장 등 부업단지를 조성하고 광산촌 환경개선, 공동목욕탕건립 등 6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으며 광산촌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경북도 부녀과장 재직 중 착안한 사업 중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한 사업

은 새마을 어머니 성공사례발표대회였는데, 대회에서 선발된 지도자는 전국을 누비며 새마을 성공사례 강사로 활약했다.

### 전국에서 처음으로 설립된 근로여성복지시설의 관장으로서의 활동

1976년 구미공단출장 중, 자취 중인 공단여성의 사건으로 구미공단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기업체에는 외부인의 출입통제 등으로 많은 애로사항들이 존재했지만, 그대로 포기할 수 없어 연분이 있던 사람들의 도움으로 조사를 할 수 있었다. 1976년 말 공단근로자의 급증으로 기존기구로는 모든 문제를 감당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근로여성복지회관 건립계획을 건의했지만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존재, 여러 곳을 발로 뛰어다니며 예산문제를 해결해 회관을 건립할 수 있었다. 1976년 구미공단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한 후, 공단 내 부녀상담소 설치를 내무부에 건의&승인을 받아 소장을 겸직 발령받아 근로여성 보호를 위한 업무를 시작했다. 첫 교육의 인원은 미비했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교육장은 초만원을 이루며 날이 갈수록 인기가 높아졌다. 그런 중에 20여 년간 도 부녀행정을 담당해 오면서 축적된 경험으로 근로여성들을 위한 복지사업에 마지막 힘을 쏟기로 마음을 먹고, 근로여성복지회관장 진출을 지원했으며, 1977년 12월 26일 부녀복지회관장으로 진출소식을 접했다.

1978년 1월 17일 부녀복지회관이 개관했고 그날부터 여성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생각하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자문을 얻어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갔다. 회관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업은 새마을교육으로, 연간 2,450명을 대상으로 4박 5일 합숙교육을 통해 새마을 정신을 심고 사

회윤리관과 직업관을 심어 수출산업의 역군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는 일이었다. 1978년 3월 첫 교육을 이육주여사 성공사례담 강의로 시작했고, 성공적이었다. 교육을 마치고 직장에 돌아간 근로여성들은 기숙사에서 식당에서 부녀복지회관 이야기로 시간을 보냈으며, 공단 내는 새마을교육이 화제가 되어 기업체 간부들도 큰 관심을 가지게 되기에 이르렀다. 교육 중에는 빈혈과 신체허약으로 갑자기 쓰러지는 교육생들이 발생하는 예



1979년 김도연 세계여성의 해 기념행사에서

기치 못한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했다. 교육을 마치고 직장에 돌아간 근로 여성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관장엄마' 하며 회관에 달려왔고, 찾아오지 못하는 아이들은 하루 3, 4통의 편지를 보내왔으며 밤을 새워 한사람도 빠짐 없이 답장을 했다고 한다.

부녀복지회관의 고유 업무는 상담활동이었다. 근로자들이 안고 있는 고민을 함께 나누고 문제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슴속에 꽉 차여 있는 고민을 듣고 함께 울고 슬픔을 나누는 일은 어렵고도 고된 업무였다. 이들의 상담은 한두 번 상담으로 끝이 나지 않았고 수십 번 심지어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을 할 때도 많았다. 구미공단 내 일부기업들의 불황으로 폐업·휴업·감원 등으로 회관 전 직원이 비상근무를 하며 개별상담을 통해 그들이 재취업 또는 귀가조치를 함으로써 한사람이라도 탈선하거나 낙오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웠는데 이때 600여명의 집단 상담을 신속하게 해결했던 직원들이 자랑스러웠고, 이 시절 구미공단에서 맺은 수많은 인연들을 잊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틈틈이 공장기업체를 순방하며 새마을교육 수료생들을 격려했고 수료생들이 직장에서 새로운 결의를 다져 실천하고 있는 개인 미담사례나 공동으로 추진한 실천 사례를 발표할 수 있는 공장 새마을운동 실천사례 발표대회를 연례적으로 개최해 공장새마을운동을 확산시키고자 했다. 발표대회를 통해 일한 것을 자신 있게 발표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길러주며 의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기를 북돋워 주었고, 특히 수료생들은 자발적으로 연우회를 조직해 회원 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공장새마을운동을 활성화했으며 농번기 농촌일손돕기, 환경보전운동, 불우이웃돕기, 연후회원 친목 등반대

회 등 건전한 활동을 전개해나갔다.

공단의 근로여성 대다수가 배움을 갈망하고 있어, 대구대학교 이태영 총장에게 청원하여 부녀복지회관내 대구대학교부설 구미가정복지대학을 개설하기로 했고 이는 구미시 특수사업으로 채택되었다. 시청각교육은 대명동 캠퍼스와 경산 진량에 있는 본교를 방문해 교육을 시행했으며 4개월 교육기간 중 한사람의 낙오도 없이 100%수료하는 교육의 열기를 보였다.

## 퇴직 후의 활동

김도연은 1985년 12월 26일 40여 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정년퇴직을 했다. 40여 년간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가 공직에서 물러나 무료한 생활을 하던 86년 1월 새로이 개설하는 대구가정복지대학장을 제안을 받았다. 86년 3월 24일자 대구대학교부설 가정복지대학의 위촉장을 받으며 16개 시·군에 주부대학을 개설하고 여성사회교육에 박차를 가하였다. 또 1986년 5월에는 서울의 한국여성유권자연맹본부 이계순 회장으로부터 유권자연맹지부 조직을 권유받았고, 같은 해 8월 14일 대구 시내 장기은행 회의실에서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가졌다. 유권자연맹은 여성의 정치의식 개발과 정치참여를 통해 민주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여성정치지도자교육, 여성정치참여 등 민주화를 위한 교육 사업에 주력해나갔다. 1988년 4월부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에 따라 본법의 실천과 여성고용 증대를 촉진하고 앞으로 전개될 지방자치제 여성참여와 여성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1988년 10월 25일 대구시민회관 소강당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실천 및 여성고용증대·지방자치 여성참여를 주제로 대구여성옹변대회를 개최하였다.



1992년 김도연 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 재임시절 모습

서울을 중심으로 실시해오던 국제행사를 1989년 10월 본부지원하에 대구 지부 주최로 미주교회 여성의원을 초청, 국제세미나를 대구에서 개최했는데, 당시 대구경북 지역 여성계에서 지방자치제에 여성의원 진출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을 때라 선진국의 여성정치활동 상황을 직접 듣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여성 지도자들에게는 정치참여 의지를 굳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유권자연맹 지부 사업이 점차 활발해지면서 지회 조직을 희망하는 시·군에 대하여 회원 20~30명을 기준으로 지회를 설립했다. 1991년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1990년 6월 지방의회 후보예상 여성 지도자 111명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기능과 의원의 역할 등에 대해 이해 증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그들에게 참여의지를 심어줄 수 있었다.

국민의 큰 기대와 여망 속에 30여년 만에 부활되는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앞두고, 생활 행정을 다루는 의정활동인 만큼 여성이 진출할 수 있는 참여의 장이 되리라 믿고 여성참여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을 기울였지만 91년 3월, 6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지방선거에 대구·경북에 16명이 입후보해 수성구에서 무투표로 이부연 의원만이 당선됨에 그쳤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제를 주제로 대화의 광장을 마련하였고, 지방의회 운영과 구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방의회의 기능과 시의원의 1년 간의 활동사항에 대해 그림을 보듯 현실감 있게 설명을 듣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그 역할과 의정활동을 충실히 하는지 의정활동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모임인 의지모임을 93년 7월 6일 발대식을 가지고 활동을 시작했다. 의지모임 활동은 본 회의와 상임위원회 방청을 원칙으로 하고 1

조 2~4명으로 조를 편성, 오전·오후로 교대 방청하도록 했고, 항상 수첩을 휴대하여 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해 매일 1회 평가회를 개최하여 토론을 했고 94년 말에는 의정활동 보고서를 작성해 해당의원에게 우송하기도 하였다.

지방자치제실시를 앞두고 지방의회 여성 진출에 대하여 남성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여성 또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해 지방의회 여성후보자 발굴에 참고하고 여성 의식과 정치참여를 위한 정책 자료를 얻고자 시민의식 조사를 실시했다. 이렇게 조사한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중앙본부를 비롯한 각 정당에 여성정책 참고자료를 위해 송부하기도 했다.

지자체실시를 앞두고 이런 활동과 함께 현행 선거제도에 있어 남녀가 결합하여 여성이 선거에서 당선 불가능한 실정을 감안해 여성이 의회진출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여성이 일정비율 차지하는 할당제를 법제화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가족법개정을 위한 범여성운동이 전국적인 범여성운동으로 확산되면서 유권자연맹에서도 89~90년에 걸쳐 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편지보내기, 전문가를 초청하여 가족법개정에 대한 강좌, 강연회 개최, 가족법개정 홍보와 서명운동 등을 전개했다. 가족법이 개정되자 가정법률상담소 주미대 소장을 초청해 바뀐 가족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중앙본부에서 실시하는 강연회, 세미나, 토론회 등의 행사에 회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유권자연맹은 각 정당이 제시한 공약 중 여성정책 분야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선 모든 계층의 여성들을 위한 <여성정책안>을 건의하고 매 선거 시 후보자에게는 공약으로, 당선자에

게는 정책으로 채택되도록 여성정책대안을 건의했다. 또한 연맹은 전국적으로 거대한 조직망을 구축하고 21세기를 대비해 많은 여성들이 제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했다.

## 여성단체협의회장으로 여성운동 발전에 기여

1987년 3월 10일 대구여성단체협의회에서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3대회장에 당선되었다. 유권자연맹이 회원단체로 가입한 지 불과 반년 만에 회장에 당선돼 여러 가지로 미숙한데다 기라성 같은 30여 회원단체장을 이끌어 가는 데는 무한의 노력이 따라야 함을 생각하며 각오를 단단히 하였다. 회원 단체 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임기 중 여협사무실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해 수익사업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에 1987년 5월 10일에 걸쳐 '백도에 전시회'를 개최하여 여성단체를 아끼고 지원해 주던 분들의 도움으로 2천만원의 수익금을 올리게 되었고, 그 수익금으로 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마련된 사무실에서 회의도 하고 지역사회 여성들과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진행할 수 있어 소중한 공간으로 느껴졌다고 한다.

여성단체협의회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MBC, KBS 등에 3회 연속 대담 방송을 하고 시내 기관단체에도 사업안내서를 보내 협조를 구했고, 설치된 상담실에는 그늘진 곳과 소외계층의 많은 사람들이 상담에 응하였다. 전문성을 요하는 법률문제는 가정법률상담소로 인계하였지만 문제의 80%는 쌍방 당사자 간의 조정으로 상담실에서 해결하였기에 지역사회에서 필요불가결한 단체로 각광을 받기에 이르렀다.

사무실 개설 이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여성회관내에 세워질 조형물을 여성의 정성으로 마련해 보자는 마음으로, 따뜻한 차 한 잔과 감미로운 음률이 만나는 작은 음악회를 87년 처음으로 개최해 많은 관중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이렇게 시작된 음악회는 90년 이후 사랑 나눔 송년음악회로 바꾸어 93년까지 계속 이어져갔다.

여대생 사회참여훈련 세미나는 대구여성단체협의회가 착안한 사업으로 87년도에 처음 시작하여 현재까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흐름 속에서 사회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할 여대생들의 사회진출이라는 과제 앞에서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함께 겪고 있는 갈등과 문제를 최소화시켜 고학력 여성사회 진출을 효율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훈련이다.

6공 출범과 더불어 중앙부처에 여성정책 총괄조정기능을 담당하는 정무제2장관실이 발족되고 전국 16개 시·도에 가정복지국이 신설되었는데, 이는 40년 헌정사에 획기적인 여성정책이 마련된 것으로 여성들의 숙원이 이루어진 경사스러운 일이었다. 대구여협에서는 88년 7월 28일 전문직 여성이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시 행정기구승격 축하연을 베풀었으며, 1988년 10월 6일 산업화 사회에서 미풍양속을 해치고 가정의 구심점을 상실해 가는 것을 바로잡고자 건전가정꾸미기 추진대회도 가졌다. 1988년 11월 29일에는 사회 곳곳에 번지고 있는 사치, 과소비풍조, 퇴폐문화를 추방하고 건전한 사회,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하여 범시민대회를 전개하기도 했다.

대구시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임기를 마치고 경북도 여성단체협의회장 직무



1997년 김도연 의원 초청 근로청소년과 대화 모습

를 맡게 되었다. 경북도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임기 중 가장 보람 있었던 것은 여성단체협의회 지표를 설정(능력을 개발하는 여성, 이웃과 더불어 사는 여성, 건전가정 가꾸는 여성, 사회발전에 참여하는 여성)하고, 시·군 여성단체협의회를 도협의회의 준회원으로 가입하도록 문화를 개방해 도협의회 조직을 강화한 것과 도협의회 심벌을 공모해 제작한 것 및 경상북도 여성단체협의회를 제작하여 널리 보급한 것이다. 이것들에 더해 여성들만의 운

동회가 아닌 300만 도민의 마음을 모으는 화합과 결속의 장을 마련한 한마음운동회를 개최한 것을 들 수 있는데, 운동회 시상식을 마치고 2천 회원이 ‘국토청결운동’ 실천결의대회를 채택하고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운동을 적극 전개해 버려진 쓰레기, 묻힌 쓰레기, 숨겨진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앞장서고 쓰레기를 ‘줄이고, 안 버리고, 되가져가기’ 3대 운동을 실천하여 아름다운 국토 가꾸기에 앞장 설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회원들의 결속을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된 한마음 운동회는 93년부터 진행되었지만 97년 선거법 저촉을 이유로 중단되고 말았다.

대구 한일친선부인회와 일본 오사카 일한친선부녀부가 1986년 자매결연하고 양국 간의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오사카 일한친선부녀부에서 대구를 방문했다. 그들이 돌아간 후, 4박 5일 일정으로 대구한일친선부인회 37명이 오사카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원래 방문하기로 했던 분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방문단장의 책임을 맡고 인솔하게 되었다.

91년 6월에 실시될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 집권당 민자당에서 여성후보자에 공천을 배제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대구여성계는 유일하게 최동원 회장을 추천해 놓은 상태에서 여성공천을 배제한다는 것은 여성계를 무시하는 처사로 단정하고, 민자당 중구사무실을 방문, 항의 농성을 하고 항의문을 전달했다. 이런 여성계의 항의는 수포로 돌아갔지만 여러 곳에서 여성계의 동태에 큰 관심을 보이며 격려를 받았다. 김도연은 1995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하여 백명희 의원과 함께 당선됨으로써 대구시의회의원으로도 활동하였다.

경상북도 부녀아동과장, 구미시 부녀복지회관장,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대

구경북지부회장, 경상북도여성협의회회장 등을 지내며 한 평생을 지역의 발전과 여성운동에 몸바친 대구경북지역 여성계의 대모였던 김도연은 1998년 11월 21일 74세의 일기로 조용히 눈을 감았다. 평생을 공직과 여성운동에 헌신한 그녀의 삶은 후배 공직자와 여성들에게 훌륭한 귀감이 되고 있다.

김명희(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연구위원)

제 5 장

전문분야에  
도전하다

## 민간 여류 비행사 1호, 박경원



우리나라 초창기의 여류비행사로 알려진 인물은 권기옥과 박경원이다. 한 때 누가 여성 비행사 1호인가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독립운동가 이상정의 아내이자 1925년 중국 운남항공학교 1기생으로 졸업한 권기옥이 여성 비행사 1호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대신 박경원에게는 민간 여류비행사 1호라는 수식이 붙는다.

일제강점기를 살다간 박경원은 당시 여성에게 주어진 순종적인 삶을 거부하고 남성의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비행사가 되기 위해 남성들과 경쟁하는 한편 조선의 여성으로 일본의 여성 비행사와도 승부를 다투어야 했다. 비록 박경원이 우리나라를 지배한 일본에 부역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딸, 여성, 식민지백성이라는 이중삼중의 억압 속에서 처음(元)이라는 뜻의 자신의 이름처럼 여류 비행사가 된 점은 충분히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 프롤로그

박경원의 이름은 ‘원통(願桶)’이었다. 첫째부터 넷째까지 내리 딸을 둔 부모는 다섯 번째 딸로 태어난 그녀에게 ‘원통’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

러나 ‘원통’이라는 이름 자체를 ‘원통’해 했던 그녀에게 ‘분하고 억울한’ 것은 이름만이 아니었다. 여자에게 허락되었던 삶이 밭 갈고 아이 키우면서 거안제미(擧案齊眉)해야 했던 시절이 그랬고, 가난한 식민지의 백성으로서 핍박 받아야 했던 풍진(風塵)시대가 그랬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여류 비행사 박경원(朴敬元)(1897.6.24~1933.8.7), 끝없이 하늘을 날고자 했던 그녀를 끊임없이 땅으로 끌어내리려했던 중력(重力)은 이처럼 이중삼중의 질곡으로 그녀를 옹아팠고, 결국 그녀는 그녀의 ‘푸른 제비(청연)’와 함께 땅으로 추락했다.

금지된 삶의 너머를 꿈꾸었던 탓에 살아서도 외롭고 죽어서도 고독했던 박경원, 그녀의 짧으면서도 더없이 신산했던 생애를 훑어가는 것은 그래서 시작부터 안쓰럽다..

### 박경원, 원통이로 태어나다

박경원은 1897년 6월 24일<sup>1)</sup> 대구부 덕산정 63번지에서 목수 일을 했던 아버지 박업(朴業伊)과 어머니 장두례(張斗禮)의 5녀 1남 중 5녀로 태어났다. 위로 네 명의 언니를 두고 다섯째 딸로 태어난 박경원은, 섭섭이라는 이름을 가진 넷째 언니에 이어 원통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모에게 ‘분하고 억울한’ 마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린 그녀는 원통이라는 이름이 싫었다. 무엇보다도 을사늑약을 앞두고 일제의 만행이

1) 박경원은 1897년에 태어났지만 공식적인 출생연도는 1901년으로 알려져 있다. 1923년 7월 일본이 조선에 호적령을 시행할 때 경원이 자신의 출생연도를 1901년으로 신고했기 때문이다. 경원은 식민지시대, 자신의 꿈을 펼치려는 조선인 여성에게 나이가 많은 것이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찾아지자 아버지는 “왜놈 새끼들...”이라는 말에 덧붙여 “원통하다”를 내뱉는 일이 많아졌는데, 아버지의 이런 ‘원통하다’는 말이 마치 자신을 비난하고 미워하는 마음인 양 느껴져 그녀는 원통이라는 이름이 더욱 싫었다.

그러나 당시의 여자아이들 중에는 그런 이름조차 없는 아이들이 많았다. 이 때문에 조선 최초의 여성전담학교였던 이화학당은 학생을 모집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모집한 여학생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선생님의 주된 업무였을 정도였다.

이처럼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낮은 시대였지만 애국심에서만큼은 남녀 구분이 없던 시기이기도 했다. 당시 대구를 중심으로 국채보상운동이 벌어졌는데, 일본으로부터 빌린 차관을 갚기 위해 금연을 하고 담뱃값을 모은 남자들이 못지않게 여자들이도 반찬값을 줄이고 반지를 팔아 나랏빚 갚는 데 앞장섰기 때문이다. 박경원은 패물폐지동맹과 국채보상탈환회에 속한 여성들의 활동을 곳곳에서 목격하면서, 여성도 남성들과 같은 이 땅의 백성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여성의 삶은 여전히 남성의 호통과 권위에 휘둘리는 힘없는 것이었고, 위로 두 언니의 비참한 결혼생활과 어머니의 ‘팔자타령’은 그녀에게 결혼에 대한 혐오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그 무렵 대구에 처음으로 여학교가 세워졌을 때, 그녀는 또래들처럼 결혼을 하는 대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 박경원, 결혼을 하는 대신 학교에 가다

1907년, 미국 장로교회 선교사들이 남산동에 설립한 신명(信明)여학교는 대구 최초의 여성 중등교육기관이다.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이 조

선여성에게 민족의식과 남녀평등 의식을 자각시키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여성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던 때였다. 당시 신명여학교에 첫 입학한 학생은 모두 12명이었으며 그중에는 결혼한 여성도 있었다.

신명여학교는 박경원의 집에서 멀지 않았다. 그녀는 아침저녁으로 하얀 저고리와 파란 치마를 입고 학교를 오가는 학생들을 보았다. 자신도 그들처럼 하얀 저고리와 파란 치마를 입고 학교에 다니고 싶었다. 그러나 박경원은 학교에 다니고 싶다는 말을 꺼낼 수 없었다. 박경원의 아버지가 그녀가 학교 얘기를 꺼낼라치면 “서양 귀신 예수쟁이 학교”라고 불같이 화를 내며 그녀를 후려갈렸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 1910년 8월 을사늑약이 조인되면서, 결국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조선이 독립국가로서의 주권을 상실하고 일본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 것이다. 원통하다는 소리가 한반도를 뒤덮었다. 조선 천지는 물론 박경원이 살고 있는 대구에도 일본인들이 제 동네인양 마구 쏟아져 들어왔다.

그 와중에 대한애국부인회 대구지부가 조선인 여자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명신여학교(초등교육기관)를 세웠다. 명신여학교는 ‘예수쟁이 학교’가 아니라 동학에서 갈라져 나온 천도교가 운영하는 학교라는 점 때문에 아버지의 허락을 얻어낼 수 있었다. 박경원은 열다섯 살(1911년)이라는 늦은 나이에 비로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다. 학교를 다니는 여자아이들이 거의 없었고 또 당시에는 여자나이 열세 살만 되도 결혼을 했던 때라는 것을 감안하면, 그녀의 늦깎이 공부가 얼마나 소망하던 공부였는지 짐작할 수 있겠다. 그 후 박경원은 하느님 앞에서는 여자와 남자가 다르지

않고 모두 똑같은 인간이라는 기독교 사상에 매료되어 1915년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다.

1916년, 초등 4년 과정을 모두 마친 박경원은 신명여자고등보통학교(이하 신명여고보)<sup>2)</sup> 입학했다. 나라를 빼앗긴 후로 늘 술에 절어 살던 아버지는 병이 들었고 그녀가 '서양 귀신 예수쟁이 학교'로 진학하는 것을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다. 어쩌면 나라 뺏긴 서러움을 뺏속 깊이 맛보면서 누구라도 '배워야한다.'고 생각했을 법도 하다.

그때까지 원통으로 불리던 박경원은 신명여고보에 입학하면서 비로소 이름을 '경원(敬元)'으로 고쳤다. 신명여고보 교장인 목사가 '신을 공경하는 처음'이라는 의미로 '경원'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이다. 그 후로 박경원은 자신의 이름(元)처럼 신에게서 뿐만 아니라 조선 여성으로서 첫 여류 비행사의 길을 힘겹게 개척해 나가게 된다.

그러나 박경원은 그렇게 입고 싶었던 신명여고보의 하얀 저고리와 파란 치마를 오래 입을 수 없었다. 학비와 병든 아버지의 약값은 물론 가족의 생활비를 그녀가 벌어야 했기 때문이다. 결국 입학한 이듬해인 1917년 여름 박경원은 학교를 자퇴했고, 그 얼마 뒤에 식민지 백성으로서 한 많은 삶을 살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다.

학교를 자퇴하고 아버지마저 여윈 그녀 앞에는 연로한 어머니와 어린 남동생이 남겨졌다.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스무 살이 훌쩍 넘은 노처녀의 미래는 밝지 않았다. 박경원의 고뇌가 깊어졌다.

2) 1907년 개교한 신명여학교는 1913년 조선 총독부의 사립학교령(1908년에 의거, 사립 신명여자고등보통 학교로 설치인가를 받았다.

당시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으로 참전해 전쟁에 승리하면서 호경기를 맞고 있었다. 식민지 백성의 고단한 삶을 감내하던 수많은 조선인들이 부산에서 배를 타고 너도 나도 일자리를 찾아 일본으로 떠나던 시기였다. “그래, 일본으로 가자.”, 갑갑한 현실에서 탈피하고 싶었던 박경원도 돈을 벌기 위해 일본으로 갈 결심을 했다. 그때 그녀의 나이 스물한 살이었다.

1917년 9월, 박경원이 일본으로 가기 위해 부산에 도착했을 때였다. 그때 부산에서는 미국의 비행사 아트 스미스가 비행 쇼를 펼치고 있었는데, 난생 처음 비행 쇼를 본 박경원은 자유자재로 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하늘을 자유자재로 회전하는 비행기를 보면서 그녀는 잠시 답답한 현실을 잊을 수 있었다. 고향의 창공을 가로지르는 날쌔 제비를 닮은 비행기는 그 후로 그녀의 삶이 고단하면 고단할수록 조금씩 조금씩 그녀의 마음에서 비상하고 있었다.

## 박경원, 여류 비행사를 꿈꾸다

'첨단의 공예기술'을 배우고 돈을 벌기 위해 간 일본 카사하라 공예 강습소<sup>3)</sup>에서의 생활은 비참했다. 호경기 때문에 부족한 노동력을 식민지 조선에서 끌어들이려던 일본의 화려한 선전 문구에 제대로 속은 것이다. 박경

3) 카사하라 공예 강습소는 요코하마에서 건직물, 마직물 가공업을 경영하는 카사하라 상점이 개설한 직공양성소이다. 공예 강습소에서의 생활은 매우 비참했다. 그러나 박경원은 후에 비행학교에 들어가면서 공예 강습소에서의 경력을 기여학교에 다닌 것으로 바꾸어 소개했다. 조선인이자 여성을 멸시하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조선인인 자신을 일본의 기여학교에 유학한 부잣집 딸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 일본인에게 바보취급 당하지 않고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원의 일과는 바람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공장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계로 옷감을 짜는 것이었다. 기숙사 방과 형편없는 식사도 그녀를 괴롭히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마늘 냄새나는 조센징이라고 멸시하는 일본인들과 무엇보다 여성들이 주로 하는 옷감 짜는 일 자체를 참기가 어려웠다. 결국 일본으로 건너간 지 두 해 반만인 1920년, 그녀는 공예 강습소를 그만두고 귀국하였다.

그해 3월, 대구로 돌아온 박경원은 고향 하늘을 날며 조선인들을 위협하는 일본 비행기를 보게 되었다. 그 비행기는 고종이 서거한 후 발생한 3·1 독립만세운동 1주년을 맞아, 조선인들에게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통치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일본이 의도적으로 날려 보낸 비행기였다. 그녀는 일본의 비행기가 고향 하늘을 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위협과 전쟁의 수단으로서의 비행기가 아니라 그 옛날 부산에서 난생 처음 비행기 쇼를 보면서 꿈꾸었던 자유의 상징으로서의 비행기를 조종하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을 느꼈다.

그러나 비행사가 되는 데는 적지 않은 돈이 필요했다. 부자 아버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었다. 궁리하던 박경원은 1920년 10월, 대구 자혜의원 조산부 간호부과(현 경북대학교 의대 간호학과)에 입학했다. 간호부과는 학비가 없는데다 기숙사에서 먹고 잘 수 있었다. 대신 졸업하고 나면 2년간 병원에서 근무해야 했지만 가난한 집 딸들이 자립하기에는 안성맞춤인 진로였다. 박경원은 낮에는 간호부과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일본 비행학교가 간행한 <비행기 강의록>을 보며 공부했다. 주경야독의 고된 생활이었지만 비행사가 되기로 목표를 정한 그녀는 비행사가 되는

데 필요한 돈을 필사적으로 모으는 한편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러던 1922년 12월, 조선 최초의 비행사인 안창남安昌男이 전 조선인들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고국방문 비행에 성공했다. 당시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안창남의 비행이 조선 오천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성대한 행사이자 조선민족의 기사희생이며 민족 자긍심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도했다. 비행사 안창남이 조선인에게 커다란 환영을 받고 전국 각지에서 후원금이 답지하는 것을 목격한 박경원은, ‘조선 최초의 여류 비행사 박경원의 고국방문 비행’을 떠올리며 하루빨리 일본으로 가서 비행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였다.

## 박경원, 최초의 민간 여류 비행사가 되다

박경원의 나이 스물여덟이었던 1924년 12월, 그녀는 그동안 모은 돈을 가지고 비행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다시 일본으로 건너갔다.

애초에 그녀는 ‘조선의 자랑’이라고 불리던 안창남이 교관으로 있는 도쿄 스자키의 오구리 비행학교에 입학해 안창남의 도움을 받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오구리 비행학교가 1923년에 발생한 관동대지진으로 소실되어 하는 수 없이 도쿄 카마타에 있는 일본 비행학교에 입학해야 했다. 그러나 간호사를 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았지만 조종과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2천 엔<sup>4)</sup>에

4) 당시 대졸자 남성의 월급은 40엔, 집을 사는데 드는 돈은 5천 엔 정도였다. 비행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돈 2천 엔이 얼마나 큰돈인지 알 수 있다.

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녀는 차선책으로 자동차부에 들어가, 엔진과 기체의 구조 등 비행기에 도움이 될 만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다.

주경야독은 일본에서도 계속되었다. 조종과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파출 간호사일을 하기도 하고 자동차 운전수도 하면서 닥치는 대로 돈을 벌었다. 하지만 먹고 살면서 2천 엔을 모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비행사가 되는 길은 요원해 보였다.

이처럼 박경원이 비용 마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준 것은 <동아일보>였다. <동아일보>는 1925년 7월 이후 세 차례나 박경원을 지면에 소개해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왔다. 7월 9일자 첫 기사에는, 치마저고리 차림을 한 박경원의 얼굴사진과 함께 ‘여자 용사 박경원 양 비행학교에 입학’이라는 제목 아래 “일본에서 비행기 조종 연습을 시작한 조선여성은 그녀가 처음이어서 사람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9월 4일자 두 번째 기사에도 ‘조선의 여류비행사 박경원 양 졸업. 자금이 없어서 면허를 못 따’라는 제목으로 박경원이 일본비행학교를 8월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지만<sup>5)</sup> 연습할 비용이 없어서 면허를 따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12월 12일자 세 번째 기사에는 ‘2천 엔이 없어서 공중 정복 불가능’이라는 한층 더 노골적인 기사를 냈다.

세 번의 기사가 나온 직후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인 영친왕 이은이 사



람을 보내 박경원에게 2천 엔이라는 큰돈을 전달했고, 그녀는 이 돈으로 비로소 일본 비행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일본 비행학교 조종과의 교과과정은 술과術課인 실지훈련과 학과學課인 이론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실지훈련은 교관과 동승하는 비행과 단독비행으로 구분되는데, 동승

비행 12시간을 거친 후에 단독비행 8시간, 합쳐서 20시간은 비행기를 타야 3등 조종사 시험을 치를 자격이 주어졌다. 또한 2등 조종사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50시간, 1등 조종사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100시간의 비행 훈련 시간이 필요했다.

필요한 비행 훈련 시간을 채우는 데는 개인의 형편에 따라 차이가 컸지만 남녀 간에도 차이가 적지 않았다. 당시에는 하늘을 나는 비행사라는 직업이 여성의 직업으로 인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일은 집안일과 육아로만 인식되던 때였다. 따라서 비행연습후에도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의 옷을 꿰매주거나 차를 준비하거나 허드렛일을 해야 했고, 이 때문에 여학생들의 훈련기간은 남학생들에 비해 훨씬 길어지기 일쑤였다. 그러나 여성이 겪는 차별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항공기 승무원 규칙 8조에는 “1등 비행사 조종사, 항공선 조종사..연령 19세 이상의 남자, 기타 승무원 기량 증명서 교부신청자는 연령 만 17세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고 명시하여, 3등, 2

5) 기사에는 박경원이 일본 비행학교 조종과에 들어간 것이 1925년 7월 1일이라고 되어있지만 당시 박경원은 자동차연습을 하고 있었다. 1925년 1월에 자동차 숙성과에 입학해 4월에 졸업했고, 이어 본과에 입학해 9월에 졸업했다. 타치가와 일본 비행학교 조종과에 들어간 것은 1926년 1월이었다.

등 비행사 자격시험은 17세 이상만 되면 남녀 모두 시험에 응할 수 있도록 했지만, 1등 조종사는 19세 이상의 남자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해 여성이 1등 조종사가 되는 길을 원천봉쇄하였다.

당시 3등 비행사의 비행영역은 자가용 비행기로 운동장 주변을 돌 수 있을 뿐이었고, 2등 비행사가 되면 비행은 자유였지만 역시 조종할 수 있는 비행기는 자가용 비행기에 국한되었다. 결국 1등 비행사가 되어야만 비로소 영업용 비행기를 조종하며 돈을 벌 수 있는데, 1등 비행사가 되는 길을 차단당한 여성은 비행사로서는 돈벌이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비행기 조종사로서는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하다는 걸 안 여성들은 2등, 3등 비행기 조종 자격증만 따고는 서둘러 여성의 정해진 삶 속에서 돌아가야 했다.

1926년 12월 10일, 교관과의 동승비행 172회로 11시간 9분의 비행시간을 축적한 박경원은 처음으로 단독비행을 허락받았다. 그리고 단독비행을 한 지 한달 반이 지난 1927년 1월 25일, 마침내 박경원은 3등 비행사시험에 합격했다. 단독비행 194회로 비행시간 14시간 35분, 전체 비행시간 25시간 44분의 기록으로 오랜 시간 타국에서 고생하며 간절하게 원했던 비행사가 될 수 있었다.

그 후 1928년 7월에는 가능한 한 높이 올라간 다음 시간 안에 착륙해야 하는 고도상승경기에서 3등으로 입상해 상금을 받기도 하였다. 고도상승경기는 높이와 시간을 다투는 경기라 간혹 조종사가 목숨을 잃기도 하는 위험한 경기다. 이런 경기에서 박경원이 수상을 했다는 것은 그녀의 성격이 매우 과감하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그 얼마 후 그녀는 여성에게 허락된



동아일보, 1925년 9월 4일 신문기사

최고의 비행사인 2등 비행사 조종사 시험에 합격하였다. 이로써 박경원은 일본에서 81번째, 여성계에서는 일본 여성에 이어 3번째로 2등 비행사가 되었다. 제국비행협회의 한 간부는 그녀를 두고 “박 양은 현재 타치가와에 있는 일본비행학교의 꽃으로서, 머리가 좋은 미인이라고 교장선생님과 교관들이 매우 칭찬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하였다.

당시만해도 비행기 조종사가 되면 1922년의 안창남이 그랬던 것처럼 고향방문 비행을 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때 안창남이 조선인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고향방문 비행을 성공리에 마치는 것을 본 박경원은, 언젠가 자신도 고국 동포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고향을 방문하는 여류 비행사가 될 것을 다짐했었다. 마침내 비행사가 된 박경원은 꿈에 그리던 고향방문 비행을 계획하며 조국을 방문했다.

그러나 안창남처럼 후원을 받아 고향을 방문하리라는 그녀의 생각은 오산이었다. 단발에 양장을 한 일본의 모던걸같은 박경원의 이미지는 남자들에게 쉬운 여자라는 인상을 주었고, 늦은 나이에 아직 미혼이었던 그녀의 처지는 여자들에게 안쓰러움을 불러 일으켰다. 이래저래 조선의 자랑스러운 여류 비행사가 되려는 그녀가 일본에 영혼을 팔아버린 친일파이자 노처녀 취급을 받은 박경원은 잔뜩 실망만 한 채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러던 1930년 4월, 박경원은 안창남이 중국에서 추락했다는 비보를 전해 들었다. 관동대지진으로 그가 있던 오구리 비행학교가 소실되고, 그 후 그가 조선독립운동 투사로 간주되면서 안창남은 일본에서 비행사로서의 생명을 잃게 되었다. 비행사가 되기까지 어떤 고생과 노력이 있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그녀로서는, 비행사로서 성공하고 싶다는 욕심과 조선의 독립을 위해 애쓰다 결국 비행사로서의 생명을 잃은 안창남에 대한 안타까움 사이에서 두려움과 갈등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머지 않아 박경원이 여류 비행사로서의 꿈을 다시 한 번 키울 수 있었던 계기가 찾아왔다.

1930년 11월, 영국 여성 비행사인 빅터 블루스가 일본을 방문하였다. 일

본에서는 영국에서 출발해 62일에 걸쳐 일본으로 날아온 블루스를 환영하기 위한 환영비행 계획을 세웠다. 당시 일본에서 비행기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여성은 2등과 3등을 합해서 12명이었지만, 비행을 계속하고 있던 사람은 조선 출신의 박경원 한 사람밖에 없었다. 환영비행은 당연히 그녀의 몫이었다. 일정을 마치고 일본을 떠나기 전 빅터 블루스는 자신을 위해 환영비행을 해준 박경원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시아의 여성을 위해 힘을 내주세요. 당신이 영국에 날아올 때는 내가 환영비행을 해서 맞이하겠어요.” 조선의 여류비행사도 아니고 일본의 여류비행사도 아닌 아시아의 여류비행사... 박경원은 이 매력적인 역할을 단박에 자임하면서 새롭고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시아의 여류비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조선해협을 횡단해서 고국방문 비행을 마쳐야 했다. 일본과 조선 사이도 날지 않고 아시아를 대표하는 여성 비행사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 여류 비행사에게는 쉽게 불하되던 군용기가 조선 여성 박경원에게만은 2년째 ‘검토 중’으로만 되풀이 되고 있었고, 고국방문 비행에 드는 비용을 감당해줄 후원자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고국방문 비행은 뜻밖의 경로로 그녀에게 주어졌다. 1931년 만주를 손에 넣은 일본이 <일만친선日滿親善>과 <황군위문皇軍慰問>을 목적으로 만주로의 비행을 결정하고, 비행경력이 많은 그녀를 책임자로 선정한 것이다.

하지만 일본이 조선인인 박경원을 <일만친선>과 <황군위문>의 메시지를 전달할 책임자로 선정한 데는 숨은 이유가 있었다. 일본의 대륙침략 전쟁을 앞두고 조선반도의 병참기지로서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조선여성

인 박경원이 <일만친선>에 나서게 되면 일본과 조선, 만주의 내선일체內鮮一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선전효과 때문이었다. 식민지 조선의 딸 박경원이 일본제국주의 침략의 교두보가 되어 만주로의 비행을 맡게 된 것이다.

### 박경원, 마지막 비행을 하다

1933년 8월 7일, 박경원이 일본의 하네다 공항을 출발해서 고국을 경유한 다음 만주의 신경까지 날아가게 될 운명의 날이 밝았다. 밤새 껏전을 두드리던 빗방울은 아침 8시가 지나면서 그쳤다. 푸른 하늘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잠깐 여름 햇살이 눈부신가 했을 때 또다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 시간 조선에서는 폭풍우가 몰아쳐 수십 명의 사망자와 수백 채의 가옥피해가 발생하고 있었다. 돌이켜보면 그렇게 궂은 날씨에 그날 비행은 연기되어야 했다. 그러나 <일만친선 황국위문> 비행의 선전효과와 이를 격려하기 위해 비행장에 모여든 수많은 인파들, 고국방문 비행에 대한 박경원의 열망이 어우러지면서 그녀는 돌아올 수 없는 마지막 비행을 떠나고야 말았다.

박경원이 자신의 비행기인 ‘푸른 제비’에 올라탔다. ‘푸른 제비’는 자신을 태운 비행기가 조국에 갈한 소식을 전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녀가 자신의 비행기에 지어준 이름이었다.

날씨 때문에 선뜻 비행을 결정하지 못한 사이, 약속한 시간을 35분이나 넘긴 뒤 ‘푸른 제비’는 서서히 하늘로 비상했다. 마침내 공항에 모인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진 ‘푸른 제비’는 그러나 잠시 뒤 11시 17분 남쪽에서



산중에 추락한 박경원의 비행기

폭음을 내면서 행방불명됐다. ‘푸른 제비’는 다음날 아침 이즈반도의 쿠로다케 산꼭대기 근처에서 기체가 두 동강난 채 발견되었다. 박경원은 조종석에 핸들을 쥔 채 죽어있었고, 피로 물든 손목시계는 11시 25분 30초를 가리킨 채 멈추어 있었다.

약천후 속에서 대한해협을 넘기에는 박경원의 비행경험이 너무 짧았던 것일까? 아니면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온 고국방문에 대한 흥분으로 순간적인 실수를 했던 것일까? 그도 아니면 식민지조선의 딸로서 내선일체화에 협력해야 하는 모순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스스로 비극 속으로 투신했

던 것일까? 어찌되었던 여류 비행사가 되기까지 겪어야 했던 그녀의 지난 삶을 생각할 때 고작 서른일곱, 죽기에는 너무 젊고 아까운 나이였다.

## 에필로그

80세가 넘는 박경원의 어머니 장두례는 직접 일본으로 건너가 딸의 유골을 품에 안고 돌아왔다. 고향에 돌아온 박경원의 유골은 불교포교원에 안치되었다가 나중에 공원묘지로 옮겨졌다고 한다. ‘옮겨졌다고 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현재 박경원의 묘를 돌볼 유족이 없어 그녀의 묘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다는 것과 최초의 민간 여류 비행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박경원이 자랑스러운 조선의 여성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고도 사후 70년이 넘도록 주목받지 못했던 박경원이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여류 비행사’라는 수식어를 단채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불과 몇 년 전이다. 그녀의 짧은 생애를 담은 「청연」이라는 영화가 제작되던 과정에서였다. 그러나 ‘최초의 민간 여류 비행사’라는 찬사를 제대로 받기도 전에 박경원이 우리나라를 지배한 일본에 부역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면서 그녀는 또다시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딸로, 여성으로, 식민지 백성으로 살다간 박경원에게 남아선호사상, 남녀 차별, 일제라는 시대적 배경은 그녀의 삶을 옥죄는 이중삼중의 족쇄였을 것이다. 조선에서 그리고 일본에서, 이런 족쇄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과정이 어느 것 하나 녹록한 것이 있었을까? 딸로 태어나 천대받고 남자들과 힘겹게 경쟁하고 일본여성들과 부당하게 다투면서 그녀의 삶은 어찌면 지

독히 외롭고 고독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일장기를 치켜들고 활짝 웃는 그녀의 모습때문에 누구보다 치열했던 그녀의 전 생애가 부인당하고 있는 지금, 그녀는 지독히 외롭고 고독할 것 같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외로운 그녀의 삶은 그래서 마지막까지 안쓰럽다.

하늘..저하늘, 장밋빛 구름이 고요히 떠도는 하늘,  
감아놓은 털 같은 오층 구름이 금색으로 빛나며 이상한 암시를 주는 하늘,  
공상하기를 좋아하는 인간에게 저 바다와 함께  
얼마나 긴 시대를 거치면서 동경의 대상이 되어왔는가?  
새떼는 참으로 자유롭게 이리저리 날아다니는구나!  
몹시 날고 싶어 했던 사람들 마음속에 타고르던 동경이  
결국엔 나는 범을 발견하게 했던 것이다.  
자아, 친구야, 감탄은 그만하자. 나는거다, 나는거야.  
엔진이 흥분한 말처럼 힘껏 외친다. 준비는 되었는가?  
정진! 격렬한 열정의 용솨음이다.  
고도계의 바늘이 움직인다.  
200... 300... 500미터, 너는 지금 하늘을 날고 있는 것이다.<sup>6)</sup>

최경화(경북대 사회학과 강사)

6) 박경원의 유고 <푸른 하늘 예찬> 중에서.

## 대구경북 첫 개업여의사, 김선인



김선인은 일제 강점기에 의료교육을 받고 의사생활을 시작한 당대 최고 엘리트 여성이자 여성운동가였다. 그는 의료인으로 병원을 무료 산원으로 개방하고, 6·25전쟁이 나자 군경 원호사업에 나서는 한편, 대한부인회 설립을 주도하고 초대회장을 맡는 등 지역여성운동의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 여성운동의 일환으로 제헌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 독실한 기독교 집안 덕분 일본 의전 유학

김선인金善仁(1909.7.19~1968.9.1)은 1909년 7월 19일 경북 풍기읍 금계동에서 독실한 기독교 집안의 1남2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비교적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당시만 해도 여자가 교육을 받기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일찍 개명한 아버지 김두립 덕분에 교육을 잘 받을 수 있었다.

김선인은 1921년 안동계명소학교를 졸업하고 대구신명여자고등보통학교(1907년 설립당시 신명여학교)에 입학했다. 1907년 미국 북장로교의 지원으로 대구에 세워진 신명여학교는 당시 지역의 유일한 여성중등교육기관으로서 신교육의 발원지가 되었다. 김선인은 신명여자고등보통학교에서 5년을 수학했는데, 재학 기간 중 일제에 항거해 일어났던 몇 차례의 동맹휴학에

동참하기도 했다.

김선인은 입학 당시 갓 창립됐던 YWCA 등에 참여하면서 넓은 세계에 대한 동경을 품었고, 졸업하던 그 해에 바로 일본 유학길에 올랐다. 김선인은 일본 내에서도 보기 드문 기독교학교였던 일본 하관맹광여자중학교(시모노세키)에 입학했다. 그리고 이 학교를 졸업하던 해인 1928년 일본동경여자의학전문학교에 입학했다. 오늘날 일본동경의과대학의 전신인 이 학교는 당대 최고 수준의 의학교로 인정받고 있었다.

김선인은 힘든 의학공부를 하는 가운데서도 신명여학교<sup>1)</sup>의 4대 동창회장을 몇 년간 맡아 활동했다. 신명여학교에서는 비록 그가 일본에서 수학하고 있지만, 일본의 우수한 대학교에 들어간 졸업생을 자랑스럽게 여겨 그 자리를 맡긴 것이었다.

그리고 이때 당시 동경입교대학 문학부 사학과에 재학 중이던 이규원을 만나 평생을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 김선인은 1934년 2월 의전을 졸업한 뒤 귀국해 그해 11월 결혼식을 올렸다. 이규원은 성광재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 1935년 7월 대구서 처음으로 병원 개설한 여의사

의학도의 길을 마치고 귀국한 김선인은 1934년 경북 안동도립병원 내과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에 관련한 자료는 <동아일보> 1934년 7월 31일자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안동에서 김철규 기자가 작성한 이 글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28일 안동에 최초로 찾아간 본사의료반은 시내 화산학

1) 대구 신명여자고등보통학교는 1927년 대구신명여학교로

원에 본부를 두고 29일까지 6백여 명을 시료하였다. 환자 중에는 약 9할이 위장병이고 그 외에는 부상인데 특히 말라리아 병자가 십 수 명이나 된다. 당시 도립에서 근무하는 동경여의전 출신인 김선인씨는 본사의료반에 참가하여 활동하였다.” 이 기사에 의하면 김선인은 <동아일보> 신문사 차원에서 실시한 의료봉사활동에 참가해 무료 진료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김선인은 1년쯤 경북 안동도립병원에서 근무하다가 대구도립병원으로 옮겼다. 대구도립병원에서 근무 중이던 김선인은 그간의 경력을 거울삼아 1935년 7월 대구시 중구에서 지역 최초로 여의사가 운영하는 의원인 ‘선인의원’을 개원하고 단독으로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의료사업의 역사는 기독교 전교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선교 사업의 일환으로 외국인 선교사 겸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하는 것으로 의료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초기에는 여의사가 없었고, 일제 강점기에 서양인과 일본인 여의사들이 있었을 뿐이다.

‘한국의 여의사’(이화여대, 한국여성사 자료실) 등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의사의 역사는 1890년 선교사이자 여의사였던 미국인 로제타 홀이 내한해 보구여관(이대병원의 전신)에서 일하며 이화학당에서 생리학과 약리학을 강의하면서 시작됐다. 이 때 학생 중 김점동이 영어통역을 하고 약을 짓다가 의사가 되기로 결심해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에 입학해 한국 최초의 여의사가 됐다. 그는 박유산과 결혼해 이름을 ‘박에스터’라고 불렀으며, 귀국해 로제타 홀과 보구여관에서 함께 진료했다. 1906년부터는 로제타 홀과 함께 평양 광혜여원에서 진료하며 맹아학교를 돕다가 과로로 폐결핵에 걸려 1910년 35세로 요절했다. 박에스터가 요절한 후 1918년까지 뒤를

이을 여의사가 없다가 허영숙이 동경여자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하면서 명맥을 이었다. 허영숙은 1918년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서울에서 개업했는데, 춘원 이광수와 1912년에 결혼했다.

## 동경여의전 출신 여의사들

그 후 동경여의전에서 근대의학을 배우고 돌아온 많은 여의사들이 한국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주로 산부인과와 소아과를 담당하였다. 그 대열에 홍귀옥, 김선인도 끼였다.

1934년 동경여의전을 졸업한 ‘손치정’이 남긴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한국의 여의사’에 따르면 홍귀옥은 1933년에 의전을 졸업하고 귀국해 공부를 계속해서 해방 후 미군정 시기에 학위를 취득하고, 포항도립의원 산부인과에서 활동했다는 기록을 찾을 수 있다. 또 포항여성사에 따르면 홍귀옥과 의전동기로 북한이 고향인 변석화도 포항으로 내려와 활동했다. 변석화는 포항출신으로 의학을 공부한 남편과 혼인한 이후 시댁 부근에서 함께 병원을 개설해 운영했다. 그들이 언제 병원을 개설했는지 정확한 연도는 알려져 있지 않다. 변석화는 포항에서 여성지도자로 여성단체 활동을 활발하게 펼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손치정과 동기인 김선인은 1934년에 동경여의전을 졸업한 후 귀국해 바로 고향으로 왔으며, 당시 동경여의전을 졸업한 동문 중에서 유일하게 대구에서 개업했다.

‘손치정의 자료’는 일제시대부터 1950년 중반에 이르기까지 여의사의 활동상을 기록했는데 이 시기에 대구로 내려가 개업한 의사로 김선인을 기록하고 있다. 대구경북 교육기관에서 여의사가 배출된 것은 이보다 한참 뒤

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비춰 보면 김선인은 대구서 개업한 첫 여의사로 추정할 수 있다.

김선인은 대구에서 병원을 개업한 이후 5~6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의료봉사에도 힘썼다. 또 특강 등을 통해 여성들에게 건강한 지식을 심는데 주력했다. 그러다가 1945년 해방과 동시에 여성운동에 뛰어들었다.

### 해방직후 여성운동에 뛰어들어

해방 이후 독립되자 김선인은 여성단체 활동에 적극 나섰다. 기독교 신앙이 독실했기에 여성신자들이 중심이 된 기독교건국신우회(1945년 8월 16일 창립)에서 활동했고, 또 1945년 9월에 발족한 대구지역 최초의 여성단체인 한국애국부인회(여성동지회)의 총무를 맡아 지역의 우익 여성운동의 중심에 섰다.

한국애국부인회는 1945년 9월 서울에서 창립된 직후 바로 대구에서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고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해 10월에 발생한 대구역 열차 충돌 사고현장에 봉사활동을 펼치고 청송지방 한해투쟁 구호 사업 등에도 적극 나섰다. 특히 그해 12월에 거세게 진행됐던 신탁통치 반대를 위한 여성 쫓기대회에 많은 청중을 모으기도 했다.

김선인은 이듬해인 1946년 12월 3일 경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경북도부녀계 설치를 위한 좌담회에 참여해 부녀계 실행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경북도 부녀계가 설치되는데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 한국 최초 여성정당인 대한여자국민당 경북도당위원장 맡아

해방 이후의 시기는 좌우의 정치노선에 따라 단체 활동 역시 좌우익으로

양분되어 매우 적극적인 양상을 띠며 나타났다. 여성단체 활동 역시 좌우로 나뉘어 조직되어 서로 다른 노선을 걸었다.

1945년 식민지에서 벗어난 여성들은 민족 해방의 기쁨과 함께 여성해방의 욕구가 분출되었고, 새로운 국가사회건설에 참여할 희망과 기회를 맞았다. 당시 가장 앞서가는 신여성인 김선인도 해방 공간에서 여성지위 향상에 대한 사명감을 강하게 느끼고 정치에 뛰어들게 되었다. 특히 그는 해방 직후 1945년 9월 18일 임영신이 이끄는 대한여자국민당이 추진되자 여자로만 구성된 정치집단이라는 데 매력을 느꼈다.

『해방 후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현황과 향후 과제』(한국여성개발원)에 따르면 한국 최초의 여성정당으로 창당된 대한여자국민당은 강령으로 남자만 이루어질 수 없는 민주사회의 건설, 근로자와 여성생활을 향상시키는 민주경제의 실현, 민족문화 발전을 통한 세계평화 및 인류평화에의 기여 등을 채택했다. 총재는 임영신, 부총재는 이은혜·김선, 총무는 박현숙이 맡았고, 7개의 집행부서를 두었다.

김선인은 1945년 9월 18일 열린 대한여자국민당의 발기인대회에서 경북도당 발기위원장으로 지명받아 2개월 동안 도내 전역에 걸쳐 당 조직 결성에 나섰다. 당시 경북도당의 창당 주역들은 이명득, 한신덕 등이었으며 김선인은 이들과 함께 밤낮으로 경상북도 전역을 뛰어다녔다. 그리고 이 해 10월 3일 중앙의 창당대회에서 정식으로 경북도당위원장에 임명되었다.

김선인은 대한부인회가 발간한 『한국 여성운동 역사』에서 정치활동에 대해 술회하면서 “처음 정치활동을 하는 여성들로서는 정당의 정강정책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념이나 이념보다는 36년간 억눌렸던 자유를 되찾은 기쁨

에서 그저 정치단체의 성질이나 목표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파악치도 못한 채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상황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러기에 대한여자국민당 경북도당 결성식에서는 이승만 박사를 국부로 받들자는 결의까지 하였는데, 이는 중앙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사실 말이 정당이지 정강정책을 보면 여성단체에 지나지 않았다. 이때 당원들이 하는 일은 정치활동보다는 여성운동에 더 가까웠고, 여성단체 회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대한여자국민당은 총재를 맡았던 임영신이 제3·4·5대 부통령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로 당세가 기울었다. 당원의 이탈과 자유당에 의한 압박 등으로 간신히 명맥만 유지해오다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해체되었다.

## 제헌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구 출마, 낙선

김선인은 1948년 5월 10일,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국민이 주권자로서 직접 국민대표를 뽑는 제헌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자, 대한여자국민당 경북도당위원장으로서 출마를 결심하게 된다. 이때 여성후보자는 대한여자국민당, 독립촉성애국부인회 등의 단체를 배경으로 하여 출마하거나 무소속으로 나섰다. 대구경북에서만 김선인(대구 갑구), 최금봉(안동 갑구), 김철안(김천 갑구) 등이 출사표를 던져 여성후보자가 전체 후보자의 2.3%를 차지하였다. 그 이후로는 지역선거구에서의 여성입후보자 수는 급격히 줄어들어 12대 총선까지 10명 내외였다. 전체 후보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대~9대까지는 1%에 이르지 못하였고, 10대 이후에는 1.1%이상의 비율을 보였다.

당시 성광재단 이사장 부인이자 선인의원장이었던 김선인이 대한여자국민당 후보로 선거에 출마하자 그와 여성운동을 함께 한 동료들이 대거 선거지원에 나섰다. 김선인은 당시 해방직후 결성된 기독교건국신우회(1945년 8월 16일 창립) 활동을 펼치고 있었는데, 이 단체 회원들이 적극 나서 그를 도왔다. 또 김선인은 1946년에 발족한 독립촉성애국부인회에도 참여했으므로 그 회원들과 대한여자국민당 경북도당 당원들이 선거참모, 사무장 등을 맡아 유세지원에 나섰다.

그러나 역부족이었다. 김선인, 최금봉, 김철안 등 대구경북에서 출마한 여성 지도자 3명이 모두 낙선했고, 전국에서 단 한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했다. 이듬해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대한여자국민당의 당수인 임영신이 어렵게 안동에서 당선돼 한국 최초 여성 국회의원의 영예를 얻었다.

김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갖은 방해공작을 받았다. 여자가 정치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해괴한 일’로 받아들여지던 시절이라 이들의 도전은 높은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김선인의 선거홍보 간판이 감쪽같이 사라졌고, 선거사무소가 수십 차례 공격을 당하기도 했다. 사퇴 종용은 물론이고, 투표장에 나오면 사살하겠다는 무시무시한 협박까지 받았다고 한다.

낙선에 대한 후유증도 적지 않았다. 선거에서 떨어진 김선인은 낙심했고, 선거운동 기간 동안 있었던 방해 공작의 진원지를 추적했다. 그러는 과정에서 우익여성 단체의 수장 격이었던 김선인은 좌익계열 여성단체 회원들과의 갈등이 한층 깊어져 양측은 소송 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데올로기 갈등이 여성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던 사건이었다.

## 최대여성단체였던 대한부인회 경북본부 초대회장 피선

1948년 대한민국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국애국부인회가 발전적으로 해산하고 대신 1949년 4월 13일에 창립된 대한부인회가 창립되자, 김선인은 경북도 본부의 초대회장으로 뽑혀 다시 여성계에 투신하려는 열의를 불태웠다. 부회장으로는 한신덕과 노복선이 뽑혔다. 그런데 곧 6·25 전쟁이 터졌다.

이 시기, 대구는 부산과 함께 북한에 점령되지 않은 지역이었기에 여성단체 회원들의 역할은 참으로 중대했으며, 보람된 일을 많이 했다. 김선인은 수없이 밀려 내려오는 피난민과 이동해 온 군경들의 수용 및 부상병 치료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이 움직여야 했다. 대구회원들만으로는 손이 모자라 서울 등 외지에서 피난 온 부인회 회원들도 모두 나오도록 하고, 어려운 일은 손수 앞장서서 뛰었다. 그래서 회원들도 더 열성을 내었다.

부인회 회원들은 지금의 대구시민회관 마당에 커다란 솥을 걸어놓고 몇 가마씩의 보리를 볶아 미숫가루를 만들어 군 장병들에게 보내어 한 여름 더위에 영양을 보충시켰다. 또한 군인들의 피복사정이 아주 좋지 않아서 부인회의 회원들이 총동원되어 집집마다 다니면서 재봉틀을 빌려다가 학교 교실에 가져다 놓고서 매일같이 떨어진 군복을 수선하여 군인들에게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갈아입혔다. 집에서는 며느리나 자녀들의 시중을 받으며 편하게 어른대접을 받던 회원들도 모두가 하나 되어 위아래 구분 없이 개울에 나가서 군복과 상이군경들의 피 묻은 옷을 빨면서 마치 친자녀들 것을 빨는 것처럼 일했다. 귀찮거나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모습은 전혀 볼 수가 없이 서로 술선수범했다고 한다.

당시 경북도본부 군경원호부장이었던 이명숙(77년 사망)은 김선인이 애

국·애족하는 맘으로 정말 열심히 했다고 『한국 여성운동 역사』에서 숭회하고 있다. 이명숙에 의하면 김선인은 일선장병들의 사기를 격려하기 위해 예술학교 학생들을 동원해서 위문공연을 하고 명절이나 연말이면 위문대를 수없이 만들어 일선에 보내는 등 자신의 힘이 미치는 대로 동분서주하며 말보다 실천에 앞장섰던 여성이었다고 한다.

또한 경북 초창기 여성운동의 손꼽히는 유공자로서 영어에도 능통하여 서울 수복 후 유엔군이 왔을 때 그들과 의사소통을 능숙하게 가져 주위 사람들과 유엔군을 놀라게 했다. 그는 조그만 일이라도 자신이 희생을 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남들 앞에서 몸소 실천함으로써 사회생활 등에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

## 10년간 부인회 회장

김선인은 1949년부터 1959년까지 10년간 대한부인회 회장직을 맡아 지역 여성운동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 1986년 한국부인회 총본부에서 발행한 『한국여성운동 역사』에서는 경북의 여성운동과 부인회 조직 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김선인, 이명득, 한신덕 등 세 지도자의 공통점으로 가족의 절대적인 협조와 호응을 받았다는 점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선인은 병원을 운영하였기에 경제적인 여유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좋았다. 그런데다 남편과 자녀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1인 3~4역을 무난히 해냈다는 것이다. 또한 대인 관계가 좋아서 사람을 잘 포섭했고, 남성적인 활달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무슨 일이든지 일단 시작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밀고 나가는 박력이 있어 경북지역의 부인회사업이 더욱 활기

를 떨 수 있었다. 아울러 이명득과 한신태이 10여년을 부회장을 맡아서 희생적이고도, 열성적으로 회장 김선인을 보좌해 주었기 때문에 당시 여성 활동은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다.

김선인은 대한부인회 회장을 하는 동안 난제였던 경북도본부 사무실 문제를 해결하였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경북도로부터 대구시 북성로 1가 74번지의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 당당하게 단체 회관을 마련했던 것이다.

부인회는 이 건물에서 군경원호사업을 적극 펼쳤다. 6·25 당시 남하한 임산부를 위해 그 건물 전체를 무료 산원으로 개방했다. 김선인은 외국 원조단체인 국제기독교봉사단(Church World Service), 아메리칸 프렌즈 봉사단(American Friends Service), 천주교봉사단(Catholic Relief Service)의 3단체로부터 광목, 매트리스, 비누, 담요 등을 지원받고 부인회에서 각종 의료기구와 기타 잡비를 부담하는 등 갖가지 난제를 겪으며 이 사업을 진행했다.

1950년 후반기에는 경찰국장, 시장, 검찰지청장 및 지방법원장 등을 고문으로 위촉하고 자매단체인 여자청년단 경북지단 안에 부녀상담소를 설치, 윤락여성을 예방 단속하는 일을 전담하였다. 또 생활개선시범지역을 정하여 부업을 장려하고, 협동정신을 양양하는 등 농촌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사업을 전개했다. 김선인은 10년간의 회장직 수행을 끝내고 여성계 원로로 뒤에서 단체 활동을 지원하면서 조용한 생활을 보냈다.

## 남편과 함께 육영사업에도 헌신

의사로서, 여성운동가로서 활동하는 외중에도 김선인은 육영사업에도 헌

신하여 큰 업적을 남겼다. 일제 강점기말 김선인 자신의 모교인 신명여자교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남편 이규원을 도와 오빠 김충학과 함께 재단법인 대구남산여자학교 유지재단을 세워 훗날 대구남산여자고등학교와 신명여자중학교의 토대를 쌓았다.

특히 1945년 해방이 되자 남편 이규원과 뜻을 합하여 교육재단과 학원 설립에 나섰다. 남편 이규원이 교육계에서 재단과 학원설립을 주도했다면, 김선인은 재정적인 부담과 여성계 활동을 통해 이규원을 뒷받침했다. 김선인은 일찍이 선친이 물려준 재산과 오랜 세월 의술을 베풀며 모은 재산을 헌납하여 학원설립의 초석을 놓았다. 이것이 남산교육재단이다. 남산교육재단은 이후 성광재단으로 분화되었다. 성광 50년사에서는 “김선인이 내놓은 재산이 반세기까 지난 오늘날까지 성광학원을 지탱해준 가장 귀한 헌물”이라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김선인은 설립 초창기 재단이사과 재단이사장을 각각 역임하면서 학원의 발전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다. 김선인은 교육계에 헌신한 공로로 1965년 1월 교육자치제 실시 일주년을 맞아 문교부로부터 교육공로표창을 받기도 했다.

함께 교육재단을 일구었던 남편 이규원은 1967년에 사망했고, 김선인도 한해 뒤인 1968년 9월 1일 뜻하지 않은 병마로 소천했다. 그의 나이 60세였다. 슬하에 1남 4녀를 두었으며, 외아들인 이종진이 현재 성광재단이사장을 맡고 있다. 미국 MIT대학을 나온 이종진 이사장은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이영란(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 부국장)

## 경북 첫 개업여약사, 윤동한



여성들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대표적인 전문직이자 선호도가 높은 약사, 경북에서 약국을 개업한 여성1호는 윤동한이다. 안타깝게도 그녀의 행적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지 않았다. 일본의 오사카 약전을 졸업하고 포항에서 경동약국을 개업했다는 정도가 남아 있다. 후손들이 살아 있지만 어머니의 삶에 대한 기억이 많지 않아 더욱 안타깝다.

향후 더 많은 자료조사와 증언이 채록되어 그녀의 삶을 풍부하게 이해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

### 독립운동가문에서 태어나다

이들 배진철(75세, 1939년생)의 기억에 의하면 어머니 윤동한은 1911년 6월 2일 서울에서 태어났다.<sup>1)</sup> “외가와외 왕래가 거의 없어 정확하지는 않지만 외가가 양산에서 만석꾼 부자였는데 외할아버지의 동생 분이 독립운동

1) 출생일과 출생지에 대해서는 아들의 기억(명치 44년)을 따랐다. 경북약사회 오십년 사에서는 출생일을 1912년 혹은 1913년으로 기록하고 있다. 윤동한의 출생지에 대해서는 더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윤동한이 출생했을 즈음 그의 아버지인 윤현태는 양산에서 거주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을 했고, 외할아버지가 자금 지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부산대학을 설립한 윤인구 초대 총장과 친척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내용으로 추적해 본 결과, 윤동한의 아버지는 양산에서 일금상회, 의춘양행 등을 운영했던 소산所山 윤현태尹顯泰임을 알 수 있었다.

윤현태의 동생 윤현진은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재무차장과 재무위원장, 내무위원을 지냈던 독립운동가였고, 그의 형인 윤현태는 일금상회와 의춘양행 등을 운영하여 재정난에 허덕이던 상해 임시정부에 지속적으로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했던 인물이다. 윤현태와 4촌 관계인 윤인구의 아버지, 윤상은 역시 구포은행 설립 등을 통해 민족기업 육성에 헌신했던 금융인으로 윤동한은 독립운동 가문에서 태어나 성장과정에서도 이러한 환경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독립운동가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 외에 윤동한의 유년시절에 대해서는 거의 알 수 없었다. 아들의 기억에도 “공부는 서울에서 했던 것 같다.”는 것 외에 별다른 기억이 없었다.<sup>2)</sup>

### 오사카 약전 졸업, 경동약국을 개업하다

약사의 길을 걷게 된 이유 역시 알 수 없으나 결혼과 더불어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게 된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된 것 같다. 윤동한은 물리학자를 꿈꾸던 배재묵(1908.3.3. 출생)과 결혼하였는데, 당시 포항에서 인쇄업을 하던 시아버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남편과 함께 일본으로 떠나 오사카 약전(大板藥專)에서 약학을 공부하였다. 그녀는 힘든 유학생 생활 중에도 장남 배진

2) 독립운동가 윤현진의 손자 윤석우(69세, 1945년생)에 따르면 윤동한은 2남 4녀 중 셋째로 태어났다고 한다.

철을 출산하며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지만 결혼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촉망받던 물리학자였던 남편 배재묵이 장티푸스로 30대에 갑자기 요절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이후 시아버지가 인쇄업을 하던 포항으로 돌아와 살게 되었고, 1946년 인쇄소에서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경동약국'(포항읍 상원동 748번지)을 개업하여 생업으로 삼았다. 이 경동약국이 포항에서 문을 연 첫 약국이자, 도내 여약사가 개업한 1호 약국이다.

경동약국이 문을 열 당시 포항에는 약국이 한 군데도 없었고, 약방(약종상)만 2군데 정도 있었다고 한다. 사실 해방이 될 때까지 한국인이 경영하는 약국이나 약방은 도내에서 별로 찾아 볼 수 없었는데 이는 한국인의 약계 진출을 억제하고, 전시에 필요한 자원을 철저히 통제하고자 한 일제의 정책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해방되기 전까지 경북지역의 약제사(현 약사) 수는 불과 14~15명에 불과했다. 운동한은 도야마 약전(富山 藥專)을 졸업한 장익규(영남대 약대학장 역임)와 오사카 약전 출신인 김순성과 함께 대표적인 일본유학과 약사였다.

## 어머니는 조용하고 소박했던 분

약국 개업이후 드러나는 운동한의 활동은 '대한부인회' 회장, 선거관리위원 등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한 것이다. 개업 당시 포항에서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여성은 대흥병원 김원장의 부인이었던 여모뎀某 여사와 운동한 단 두 명뿐이었다고 하니 (경상북도 약사회 오십년사, 2005) 이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요구가 자연히 높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사회활동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 보다는 동

네일을 살피고, 어려운 일을 돌봐주는 상담원 역할을 하는 것을 좋아했던 소박하고 조용한 분이었다고 한다.

1961년 경북약사회 초대 포항지부장을 맡았던 것도 본인 스스로 원했던 것이 아니라 지역발전에 기여한 원로를 존중한 약사회원들의 바람 때문이었다고 한다. 자녀들의 교육방법 역시 억지로 강요하거나 간섭하지 않고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자녀의 뜻을 존중해 주었다고 하니 천상 인자한 어머니의 모습 그대로였을 것 같다.

건강한 체구에 필체가 굉장히 좋았던 운동한은 외유내강의 강인한 성격을 바탕으로 6·25를 거쳐 60년대 초까지 약종상들 틈에 끼어 홀로 지역의 약국가를 지키며 약사로서의 긍지와 맥을 이어온 선구자였다고 평가받는다. 1966년 8월, 54세의 일기로 타계했다.

김명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연구위원)

##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감독, 박남옥



박남옥은 걸출한 여성 영화감독을 많이 배출한 지금의 우리 영화계를 패기와 배포로 활짝 연 여장부이다. 미술공부를 하기 위해 일본 유학을 결심한 것이나 결혼을 중용하는 부모에게 맞서 이화여전을 자퇴한 것, 영화감독이 되기 위해 남성중심적인 영화현장에 뛰어들어 갖은 차별과 어려움을 이겨낸 모습 등은 남성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자신의 영화 「미망인」의 여주인공 ‘신’을 닮았다. 진취적이고 열정적이고 패기 넘쳤던 박남옥은 이제 ‘박남옥 영화상’을 통해 여성 영화인뿐만 아니라 우리 여성들에게 또하나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 영화 in 영화

1954년, 한편의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 영화 속에는 아이를 업고 치마, 저고리 바람에 고무신을 신은 여자가 연신 ‘레디 고’를 외치면서 동분서주하고 있다. 등에 매달린 아이는 연신 울어대지만 ‘레디 고’를 외치다가 현장정리를 하다가 조명기를 들기도 해야 했던 여자는 손으로 아이의 엉덩이를 한차례 때릴 뿐이다. 등에 매달린 아이는 울다가 지쳐 잠이 들고 다시 깨서 울기를 여러 번, 그제야 여자는 아이를 안고 구석으로 가서 젖을 물린



동경 아세아영화제 참석 당시 일본 배우 미후네 요시로가 담뱃불을 붙여주는 모습.

다. 아이는 등에 매달리기에 지나치게 작은 생후 2개월의 아기였고, 여자는 산후 조리도 제대로 끝내지 못한 부기 가득한 산모였다.

산고를 치른 지 두 달도 안 된 여성이 젖먹이 어린 딸을 등에 업고 또 다른 산고를 치러 세상에 내놓은 이 영화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전쟁미망인의 욕망과 갈등을 그려낸 「미망인」(1955, 16mm, 흑백)이다. 그 후 43년이 흐른 1997년, 제1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는 개막작으로 「미망인」을 상영하면서 열악한 제작 환경 속에서 젖먹이 딸과 함께 영화를 만든 박남옥朴南玉(1923.2.14~)에게 ‘최초의 여성 영화감독’이라는 타이틀을 헌정하였다.

## 다재다능한 셋째 딸, 박남옥

박남옥은 1923년 경북 경산군 하양의 유복한 가정에서 딸 여섯, 아들 넷의 10남매 가운데 셋째 딸로 태어났다. 말이 없고 잘 생긴 아버지는 데릴사위로 어머니와 결혼한 후 잡화 도매상으로 돈을 벌었고, 후에 경북지방의 생사조합 이사장을 역임할 정도로 성공한 사업가였다고 한다.

부유한 부모는 자식들이 원하는 만큼 책을 사주었고, 어릴 때부터 책읽기를 즐겼던 박남옥은 세계문학전집을 읽는 틈틈이 언니들이 읽는 영화잡지도 읽곤 했다. 다양한 책읽기를 통해 기른 문학적 소양은 그녀가 영화를 만드는 데 풍부한 토양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박남옥은 운동을 잘 했는데, 국민학교에 다닐 때 학교대표 달리기 선수로 선발돼 도도대회에 나갈 정도였다. 그 후 경북여고에 다닐 때는 단거리 달리기, 높이뛰기 등 육상선수로 활약했고, 특히 투포환 분야에서는 1939년부터 41년까지 제2, 제3, 제4회 전(全)조선종합경기대회에서 잇달아 한국 신기록을 수립할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자랑했다. 당시 박남옥이 얼마나 운동선수로 이름을 날렸는가 하면 육상인들 사이에서는 ‘해방 후에는 백옥자<sup>1)</sup>, 해방 전에는 박남옥’이라고 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런 그녀가 영화에 빠져들게 된 것은 순전히 스타에 대한 동경 때문이었다. 여학교에 다니던 당시 청초한 외모로 인기를 끌었던 여배우 김신재가 출연한 영화를 보고 영화에 대한 열망을 품기 시작한 것이다. 1956년 한 여성지에 기고한 박남옥 감독의 글을 보자.

1) 1970, 74년 아시안게임 투포환 금메달리스트. '아시아의 마녀'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집없는 천사’라는 영화가 있었다.....(중략)....꽃 피는 계집아이로 분扮한 김신재를 본 것은 내가 여학교 3학년 때였다.....(중략)....그 영화를 본 덕분에 학교에서 반성문을 쓰기는 했지만.....(중략)....학교공부의 몇 배의 정성을 기울여 기다란 팬레터를 내었다.....(중략)....영화에의 출발이 배우에의 연모戀慕로부터 비롯한다고 생각하면 철부지한 일이기도 하였다.”

박남옥은 그 후 꾸준히 김신재에게 편지를 보내고 사인도 받으면서 영화에 대한 사랑을 키웠지만, 김신재를 처음 만난 것은 그로부터도 또 몇 년이 지난 후였다.

여고시절 운동선수로 이름을 날렸지만 정작 박남옥은 미술에 관심이 많았던 모양이다. 화가 박래현과 천경자가 수학한 일본의 우에노 미술학교에 진학해서 미술공부를 하고 싶었던 그녀는 유학을 가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일본 유학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던 당시 교장 선생님과 집안의 반대로 유학이 무산되었다. 이때 박남옥의 생각으로는 밀수선을 타고서라도 일본에 가려고 했다고 하니 그녀의 낙심도 낙심이지만, 그녀가 얼마나 대담한 성격을 가진 여성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고향에 주저앉게 된 박남옥은 부모의 권유로 이화여전(현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과에 진학(1943년)했다. 원했던 공부가 아니니 당연히 학교공부에 재미를 붙일 수 없었던 박남옥은, 휴일이면 온통 보리밭이었던 염천교 부근의 헌책방을 찾아다니면서 영화나 미술 관련 책을 사보는 것으로 위안을 삼곤 했다.

그 외중에 좋아하는 영화도 닦치는 대로 보러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최



경남여성신문과의 인터뷰 중 미국에서의 모습(2006.12.13.기사)

고의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손꼽히는 레니 리펜슈탈(Leni Riefenstahl, 1902~2003)<sup>2)</sup>이 제작한 「올림피아」(1936)를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베를린올림픽을 소재로 한 「올림피아」의 압도적인 영상미와 획기적인 다큐멘터리 기법도 인상적이었지만, 무엇보다 그녀를 놀라게 한 것은 이렇게 멋진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감독이 여성이라는 사실이었다. 1919년, 우리나라 최초의 남성감독인 김도산이 「의리적 투구」를 제작한 이래, 조선영화에서 여성이 감독한 영화는 단 한편도 없던 시절이었다. 그러니 여성감독의 존재에 그녀가 얼마나 신선한 충격을 받았을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영화를 좋아해서 단지 열심히 보러 다니기만 했던 박남옥은 비로소 영화를 직접

2) 이 다큐멘터리는 아돌프 히틀러가 레니 리펜슈탈에게 명령하여 만든 것으로서 올림픽 다큐멘터리의 백미로 손꼽히지만 나치를 찬양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올림피아」에는 손기정 선수의 올림픽 마라톤 우승 장면도 담겨있다.

제작하고 싶다는 마음을 먹는다.

얼굴도 보지 않고 데려간다는 셋째 딸이었지만 박남옥은 결혼에 뜻이 없었다. 영화가 어떤 세상도 가능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무한한 상상력의 세계고 보면, 그런 영화 속에 깊게 빠져있던 그녀에게 가부장적인 결혼생활은 회피하고 싶은 현실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혼기가 찬 딸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부모는 박남옥에게 결혼을 강요했고, 그녀는 그에 대한 저항으로 부모가 원했던 학교를 자퇴하고 말았다. 박남옥은 부모 애를 많이 태운 자식이었다.

## 박남옥, 한국최초의 영화감독이 되다

1944년 고향으로 내려온 박남옥은 대구 매일신문사의 기자가 되었다. 책을 많이 읽고 글쓰기 재능을 가진데다 미술과 영화에 대한 관심이 컸던 그녀는 신문의 영화란을 맡으면서 영화에 대한 열정을 키워갔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했다. 마침내 본격적인 영화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박남옥은 1946년 서울로 올라간다. 나이 스물 넷되던 해였다.

서울로 올라와서 처음 본 영화 역시 김신재가 출연한 「거경전」이었다. 영화를 본 다음날 박남옥은 수선화를 시들고 여학교 때부터 줄곧 우상이었던 김신재를 만나러 갔다. 첫 대면이었다. 이때 맺은 김신재와의 우정은 그 후 줄곧 이어진다.

박남옥은 친구 남편인 윤용규 감독의 소개로 조선영화사 촬영소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영화 관련 일을 배우면서 버려진 필름을 편집해 남몰래 영화를 만들어보기도 하였다. 신경균 감독의 「새로운 맹세」에서는 스크

립터 일도 맡았다. 오랫동안 꿈꾸던 영화 일을 하게 되면서 누구보다 열심히었지만, 여자라고 무시를 당하거나 여자라서 지방출장에서 배제되는 등 남성 중심적인 영화현장에서 그녀가 겪어야 했던 어려움은 적지 않았다.

그러나 박남옥이 여자라는 이유로 이해받지 못한 곳은 영화 현장만이 아니었다. 혼기를 놓친 데다 영화관에서 남자들과 어울려 세월을 보내는 딸을 염려한 부모는 결국 딸을 끌고 대구로 내려왔다. 그 후 박남옥은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 선을 보러 다녔다. 그러던 중에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박남옥은 곧바로 국방부 촬영대에 입대해 뉴스를 편집하면서 전쟁을 몸소 겪어냈다.

남편이자 극작가인 이보라를 만난 것도 1953년 중군영화를 만들던 때였다. 결혼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그녀였지만 평생 속을 썩인 부모에 대한 미안함과 집 앞에서 결혼을 하자고 외쳐대던 이보라의 구애가 이어지면서, 서른한 살의 박남옥은 부산에서 신집살림을 차렸다. 결혼한 이듬해 예쁜 딸 경주를 낳았다. 그러나 딸을 낳은 지 3일 만에 영화를 보러갈 정도로 박남옥의 마음은 온통 영화에 가 있었고, 영화에 대한 그녀의 마음은 남편도 딸도 나눠가질 수 없었다.

남편 이보라는 1954년 6월, 산후 한 달이 막 지난 박남옥 앞에 시나리오를 던져주었다. 박남옥은 남편의 시나리오로 16mm 영화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35mm 영화가 쏟아져 나오던 때라 박남옥이 16mm 영화를 제작하려고 한 것은 제작비를 줄이기 위한 교육지책으로 보인다. 박남옥은 총 제작비 480만원 가운데 언니에게 280만원을 빌리면서 '자매영화사'를 차렸다. 제작비를 줄이기 위해 출연 배우들도 대부분 박남옥이 영화



박남옥의 등에 업혀 날마다 촬영현장을 지켰던 딸 경주.

일을 하면서 친분을 맺었던 사람들로 캐스팅했다. 여주인공인 이민자가 그랬고 남주인공인 이택균도 그랬다. 스태프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애초부터 적은 돈으로 시작한 영화인지라 이 영화를 완성하기까지 그녀가 겪은 고초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돈이 있으면 영화를 찍었고 돈이 떨어지면 촬영을 중단하고 돈을 구하러 다녔다. 마침 시작된 장마로 촬영은 자꾸 늦어졌고, 출연자나 스태프가 나오지 않는 날도 있었다. 한 번은 진주 영남예술제에서 이틀만 쓴다고 빌려간 카메라가 돌아오지 않은 일도 있었다. 사흘째 되던 날, 박남옥은 어린 딸을 업고 설 자리도 마땅찮은 입석 열차를 타

고 카메라를 찾으러 나섰다. 아이는 울어대고 사람들은 짜증을 내고, 자꾸만 질퍽대는 상황 때문에 역시 울고 싶은 심정이던 그녀는, 훗날 그때 아이를 창밖으로 던져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처럼 혼자만으로도 벅찬 상황에서 젓먹이 아이까지 업고 영화를 만드는 일은 상상 이상으로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자녀의 양육은 여성만의 책임이었다. 적은 돈으로 영화를 제작하면서 레디 고를 외치고 촬영장 청소를 하고 카메라를 빌리고 스태프들 밥을 해먹이고 제작비를 얻으러 다니느라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할 지경이었지만, 박남옥에게는 딸을 부탁할 곳이 없었고 부탁을 할 수도 없었다. 아이를 업고 일을 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누가 그 일을 하라고 했냐고 타박이 돌아올까 겁이 났고, 무엇보다도 어머니가 되어서 젓먹이를 내팽개치고 영화를 만든다고, 당장 일을 그만두라고 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딸을 등에 업고 촬영현장에 나가야 했다. 부모 가슴에 늘 걱정거리였던 박남옥은 어머니에게 특히 가슴 아픈 딸이었다. 돈이 없어 제작이 중단되면 어머니에게도 여러 번 손을 내밀었다. 서울에서 대구를 여섯 번이나 왕복하면서 어머니에게 도움을 받았는데, “아이라도 살려야지.”하며 대구역에서 돈을 쥐어주던 어머니의 눈물 젖은 얼굴을 두고두고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촬영은 6개월이나 걸려 끝났다. 그러나 촬영이 끝나자마자 엄마 등에 업혀 날마다 촬영현장을 지켰던 딸 경주가 폐렴에 걸리고 말았다. 딸에 대한 미안함과 자책감이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어렵사리 촬영이 끝나고 영화 녹음 작업이 남았다. 1954년 12월 18일 중

양청에 있던 녹음실을 방문했다. 그때 그녀는 “16mm 영화라 안된다.”, “여자라 재수가 없다.”면서 온갖 푸대접을 당했다. 그날의 떨시가 얼마나 상처가 되었던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날짜조차 잊지 않는 괴씸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우여곡절 끝에 녹음을 끝내고 나니 이번에는 개봉할 영화관을 잡을 수가 없었다. 여성감독이 만든 영화에 대한 선입견 때문이었다. 역시 딸 경주를 업고 영화 제작본이 든 께짜를 들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닌 끝에, 겨우 1955년 4월 영화를 개봉할 영화관(서울중앙극장)을 구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제작비 마련부터 카메라 대여, 스태프 관리, 조명 보조, 편집, 녹음, 영화 배급까지 박남옥의 손을 거치지 않은 과정이 하나도 없었으니, 당시 여성으로서 영화를 제작하는 일은 그야말로 아이를 낳는 일에 비견될 만한 힘겨운 산고였다고 하겠다.

그러나 서울중앙극장에서 개봉한 영화 「미망인」은 안타깝게도 4일 만에 막을 내렸다. 35mm 영화의 홍수와 여성감독이 만든 영화에 대한 편견이 빚어낸 명백한 흥행실패였다. 하지만 「미망인」은 당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전쟁미망인을 소재로 여성의 갈등과 욕망을 과감하면서도 절제 있게 묘사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평론가와 관객들 사이에서 화제를 불러 모으기도 하였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미망인」을 만들었다. 목숨이 들이고 셋이면 또 한다. 그렇지만 목숨이 하나니 하나로 끝났지.”



미망인 포스터

영화 한 편을 만들면서 박남옥은 거의 기진했던 것 같다. 영화에 대한 열정과 자신의 패기를 믿고 시작한 영화였지만 여성에게 허락된 것이 거의 없던 시절, 영화를 만드는 일은 목숨을 거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미망인」을 끝내고도 영화계 인사들과 교류하면서 영화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던 박남옥이지만, 그 뒤로 다시는 메가폰

을 잡지 못했다. 그녀의 말대로 목숨이 하나뿐이었기 때문이다.

### 여성의 욕망을 말하다, 여성주의 영화 「미망인」

「미망인」의 주인공인 ‘신’은 한국전쟁 중에 남편을 잃고 어린 딸 ‘주’와 어렵게 살아간다. 생활능력이 없는 그녀는 남편 친구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그의 애정공세는 물리친다. 그러던 어느 날 딸과 함께 바닷가로 놀러갔다가 물에 빠진 딸을 구해준 젊고 매력적인 청년 ‘택’과 사랑에 빠진다. ‘신’

은 어린 딸 ‘주’가 청년 ‘택’과 잘 지내지 못하자 여자로서의 욕망과 어머니로서의 모정 사이에서 갈등을 겪다가 결국 딸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그와 살림을 차린다. 모성보다 사랑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옛 애인을 잊지 못하던 ‘택’이 전쟁 중에 죽은 줄 알았던 애인 ‘진’을 다시 만나면서 ‘신’을 떠나자 ‘신’은 ‘택’에게 칼을 들이댄다.

「미망인」의 내용은 영화 뒷부분이 유실되어 여기까지만, 박남옥 감독의 회고에 따르면 마지막 부분에서 ‘신’이 딸 ‘주’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고 한다.

비록 「미망인」은 흥행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1950년대 영화로서 시사하는 점이 적지 않다. 한국전쟁 이후 사회문제로까지 제기되던 전쟁 과부를 소재로 삼으면서 순종과 희생하는 전통적인 여성상 대신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주체적인 근대 여성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주인공 ‘신’이 여자로서의 자신의 욕망과 딸에 대한 모성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라든지, 남편 친구로부터 경제적 도움은 받지만 그에게 당당하다든지, 결국 모성 대신 ‘택’과의 사랑을 선택한다든지 하는 ‘신’의 태도는, 분명 남성에게 복종하고 무기력하고 의존적인 여성의 모습에서 탈피한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미망인」은 단순히 ‘여성’ 감독이 제작했다는 것을 넘어 여성주의 영화로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최초의 여성감독’으로 돌아온 박남옥

일찍이 영화와 사랑에 빠졌던 박남옥은 결혼은 절대하지 않을 거라며 부



미망인 스틸컷

모 애를 태웠다. 그랬던 그녀가 이보라와 결혼을 한데는 남편의 열렬한 구애도 구애지만 부모에게 덜 미안한 딸이 되고 싶었던 이유가 컸다고 한다. 그러나 여성에게 아내와 어머니라는 이름만을 허락한 시대를 거부하고 ‘여성감독 박남옥’이라는 이름으로 살기를 희망했던 그녀에게 결혼생활은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다.

영화 「미망인」이 상영된 이듬해인 1956년, 박남옥은 남편과 이혼하고 딸 경주를 자신이 키우기로 한다. 그 뒤로도 박남옥은 《시네마 팬》이라는 월간 영화잡지를 창간해 해외영화제를 취재하는 등 영화계를 떠나지 않았으나, 1957년 아버지의 권유로 둘째 형부의 회사인 동아출판사에 입사하면서 결국 영화계를 떠

나게 되었다고 한다.

단 한편의 영화만을 남기고 잊혀졌던 남옥이 다시 돌아온 것은 1997년 제1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였다. 당시 ‘여성의 눈으로 세계를 본다’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 영화제에서 「미망인」은 개막 초청작으로 상영됐고, 박남옥은 ‘최초의 여성감독’으로 화려하게 컴백했다. 오랫동안 기억되지 못했던 그녀가 이 영화제를 통해 새롭게 조명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한국영화계에서 여성영화인들의 활약이 그만큼 뛰어났고 그 역량을 인정받

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제10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는 최초의 여성감독인 박남옥 감독을 기리는 ‘박남옥 영화상’을 신설하였는데, 애당초 박남옥이 ‘최초의 여성감독’이라는 영예를 안기 위해 영화를 만든 것은 아니었으나, 이제 새로운 길을 개척한 고난에 대한 보상이 후배 여성영화인들의 활약에 힘입어 제대로 주어졌다.

1992년, 박남옥은 일찌감치 유학길에 오른 외동딸 경주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녀는 그곳에서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신문을 보면서 일상을 보내고 있으며, 같은 아파트에 사는 노인들이 아름답게 늙어가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있다고 전해진다.<sup>3)</sup> 그녀가 세상에 남긴 영화는 단 한편뿐이었지만 그녀는 늘 카메라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자신만의 영화를 만들어오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 내놓지 못한 미완의 영화들이 그녀의 아쉬움으로 남아있는 것 같지는 않다. 멀찍이 서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나이의 노감독은, ‘100m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한 번도 옆을 보고 탄 생각을 한 적이 없던’ 오로지 영화에 미쳐 있었던 한 시절을 떠올리면서 “유감없지, 내 지난날에...”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생의 종착역에 섰을 때 유감없는 세월의 왕관을 스스로에게 자랑스럽게 씌워줄 수 있는 인생이라면 분명 박남옥의 인생일 것이다.

최경화(경북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3) 2001년 4월 제3회 여성영화제에서 여성감독 김재익이 박남옥 감독을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꿈」을 발표하였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박남옥의 아파트에서 함께 기거하며 촬영한 이 작품은 박남옥 감독의 일상을 담고 있다.

경북여성아카이브  
경북여성 1호 첫 번째 이야기

# 기록으로만든 경북여성

- 인물별 연보
- 참고문헌
- 도움을 주신 분

## 제1장. 독립운동으로 광복의 초석을 다지다

## 1. 남자현



- 1873년 (1세) 1873년 12월 7일 영양군 석보면 지경리에서 출생  
아버지 남정한南玟漢, 어머니 이씨부인
- 1891년 (19세) 안동시 일직면 귀미동 출신의 김영주와 혼인
- 1896년 (24세) 1896년 7월 11일 의병항쟁을 펼치던 남편 전사
- 1919년 (47세) 3·1독립만세에 참여  
만주로 망명, 여자교육회 조직 교육활동을 펼침
- 1927년 (55세) ‘길림사건’으로 독립운동가들이 체포 구금되자 구명운동에 나섬  
4월 사이토오(齋藤實)총독암살을 위해 서울로 들어옴
- 1931년 (59세) 하얼빈 주재 총영사관에 10월 김동삼이 체포되어 하얼빈  
주재 총영사관에 갇히자 구출작전에 나섬
- 1932년 (60세) 9월 국제연맹조사단(단장 릿튼)에 혈서를 전달
- 1933년 (61세) 2월 일본전권대사 부토처단 의거를 벌이다 체포  
가혹한 고문에 시달리다 단식투쟁  
병보석으로 석방되었으나 8월 22일 순국  
하얼빈 한국인묘지에 안장

## 2. 이희경



- 1894년 (1세) 1월 8일 대구 명치정 2정목(중구 계산동2가)에서 출생  
아버지 이중하, 어머니 김정원
- 1905년 (12세) 2월 13일 남편 권도인 하와이 호놀룰루 도착
- 1912년 (19세) 신명여학교 1회생으로 졸업  
10월 하와이 도착, 권도인과 혼인
- 1928년 (35세) 대한부인구제회 탈퇴, 영남부인회 조직
- 1930년(무렵) (30대 후반) 영남부인회를 영남부인실업동맹회로 개칭
- 1930년대(후반) (40대 초반) 영남부인실업동맹회장, 각종 의연금과  
독립운동자금 지원
- 1940년대(초반) (40대 후반) 부인구제회 승전후원금 모집위원,  
부인구제회 사료원으로 활동,  
대한민국민회의 회원으로 수십 차례  
독립운동자금 지원
- 1947년 (54세) 하와이에서 별세
- 2002년 - 건국포장 추서

## 제2장. 시대를 앞서 미래를 준비하다

## 1. 최송설당



- 1855년 (1세) 8월 29일 경북 김산군(현 김천시)에서 출생  
아버지 최창환, 어머니 정옥경
- 1886년 (32세) 아버지 사망
- 1894년 (40세) 상경하여 적선동에 기거
- 1897년 (43세) 고종으로부터 '송설당' 당호 수여. 왕세자 이은(영친왕)의 보모가 됨
- 1901년 (47세) 고종에게 상소하여 집안이 몰락한 지 89년 만에 명예회복
- 1908년 (54세) 대한매일신보에 의연금 전달
- 1912년 (58세) 경성 무교동 저택 설립, 옥호를 송설당이라고 현액  
김산교하 교동주민 구제에 벼 50섬 회사
- 1917년 (63세) 김천공립보통학교, 금릉유치원 및 금릉학원에 유지비 기부
- 1919년 (65세) 김천 고성산록에 정갈재 세움
- 1922년 (68세) 『송설당집』 3권 3책 간행. 세계 각국 도서관 배부
- 1930년 (76세) 김천고보 설립허가원 경북도 제출. 김천고보 후원회 조직
- 1931년 (77세) 김천고등보통학교(현 김천중고교) 설립
- 1935년 (81세) 안채로 쓰던 취백헌 건립, 조각가 김복진에 의해 송설당 동상 건립
- 1939년 (85세) 6월 16일 별세

## 2. 정철성



- 1897년 (1세) 대구에서 출생
- 1904년 무렵 (8세) 대구에서 기생학교 입학
- 1922년 (26세) 일본유학(동경 영어강습소)
- 1923년 (27세) 대구여자청년회 조직, 물산장려운동 참여
- 1924년 (28세) 조선여성동우회 창립, 집행위원
- 1925년 (29세) 일본유학, 여성단체 삼월회 조직
- 1927년 (31세) 근우회조직, 중앙집행위원
- 1929년 (33세) 신간회 북대표회의 중앙위원
- 1931년 (35세) 신간회 전체대회 중앙집행위원
- 1945년 (49세) 조선부녀총동맹 중앙위원

## 제3장. 언론·문학·예술 분야를 개척하다

## 1. 추애경



- 1900년 (1세) 7월 18일 대구에서 출생  
아버지 추영옥(秋永玉), 어머니 최복경(崔福卿)
- 1915년 (16세) 대구사립고등보통학교 졸업 및 신명여학교 입학
- 1919년 (20세) 신명여학교 졸업, 최정술과 함께 서문시장에서 3·1만세운동 주도
- 1921년~1923년 (22세~24세) 이화학당 대학예과(2년) 성악전공 및 졸업
- 1923년 (24세) 8월 만국기독교청년회 주최 하령회(夏令會)에 대구대표로 참석
- 1923년~1925년 (24세~26세) 이화학당 대학본과(2년) 성악전공 및 졸업
- 1925년~1926년 (26세~27세) 신명여학교 교사로 재직
- 1926년 (27세) 7월 하기음악무도(夏期音樂舞蹈) 개최
- 1926년 (27세) 8월 일본유학-규슈(九州) 나가사키현 가즈이(活水, Gatsuy)  
여자전문학교 음악과(피아노전공) 수학
- 1927년 (28세) 6월 미국 유학, 샤블 워싱턴대학교 음악과(성악전공) 수학
- 1927년 (28세) 8월 북미(北美)성악콩쿠르 출전
- 1928년 (29세) 8월 인디애나주 위노나 레이크(Winona Lake)에서 김태술과 결혼
- 1930년 (31세) 보스턴 뉴잉글랜드음악원(Boston New England Conservatory)에서  
성악전공(리릭소프라노)으로 입학
- 1932년 (33세) 보스턴 뉴잉글랜드음악원을 대표해 보스톤 추기음악대회 참가

- 1933년 (34세) 6월 뉴잉글랜드음악원 졸업. 보스턴에서 음악을 가르침
- 1968년 (69세) Ruth Kim, THE FAMILY OF CHUNG SONG (New York :  
VANTAGE PRESS, 1968) 출간(자전적 소설)
- 1969년 (70세) 5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자랑스런 졸업생(김옥길 총장)으로  
이화개교83주년 기념일에 공로상 수여
- 1973년 (74세) 난소암으로 별세

## 2. 백신애



- 1908년 (1세) 5월 20일 경북 영천시 청구동에서 출생  
아버지 백내유, 어머니 이내동
- 1915년 (8세) 소학, 중용, 대학 등 한학 배움
- 1918년 (11세) 영천공립보통학교 2학년에 편입학
- 1921년 (14세) 영천공립보통학교 3학년 중퇴,  
대구 순도소학교(현 종로초등학교) 중퇴
- 1922년 (15세) 백술동이란 이름으로 영천보통학교 4학년 편입
- 1923년 (16세) 영천공립보통 4년 졸업, 경북공립사범 단기 강습과 입학
- 1924년 (17세) 영천공립보통학교 교원
- 1925년 (18세) 경산 자인보통학교로 전입, 조선여성동우회,  
경성여성청년동맹에 가입하여 여성운동가 활동
- 1927년 (20세) 여성단체 가입이 탄로나 권고 사직  
경성여성청년동맹의 상임위원, 2주년 집회  
러시아 시베리아를 다녀오는 길에 일본 관헌에게 체포돼 고문당함
- 1929년 (22세) 단편 「나의 어머니」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
- 1930년 (23세) 일본으로 가서 예술과 문학공부. 연극 주연
- 1933년 (26세) 귀국 후 이근채와 결혼. 신여성지에 「꺼레이」발표
- 1934년 (27세) 개벽지에 「적빈」등을 발표
- 1935년 (28세) 「멀리간 동무」, 「의혹의 흑모」, 「악부자」발표
- 1938년 (31세) 중국 상해로 갔다가 귀국, 「광인수기」, 「소독부」 발표  
5월 남편 이근채와 별거 후 용계동 친정으로 돌아옴.  
11월 15일 상해 체류중 집사를 시켜 법적 이혼수속을 밟음
- 1939년 (32세) 6월 25일 취장암으로 요절

## 3. 조애영



- |             |   |  |
|-------------|---|--|
| 1911년 (1세)  | 3월 8일 경북 영양군 일월면 출생<br>아버지 조인석, 어머니 이호정             | 한국수필가협회 회원                               |
| 1926년 (16세) | 영양공립보통학교 졸업   | 1975년 (65세) 성균관 여성유도회 초대회장               |
| 1927년 (17세) | 개벽사 발간 월간지〈학생〉에 시조작품 발표                             | 1977년 (67세) 〈한국현대내방가사집〉 출간               |
| 1929년 (19세) | 9월 전조선학생작품전 수예부문 입선                                 | 1979년 (69세) 제4차 세계시인대회 참가 〈Mother〉 시조 발표 |
| 1931년 (21세) | 배화여자고등보통학교 졸업                                       | 2000년 (90세) 8월 별세                        |
| 1931년 (21세) | 이화여자전문학교 중퇴, 이담(李潭)과 결혼                             |  |
| 1940년 (30세) | 배화여자고등학교 학원재단 기성회원                                  |  |
| 1958년 (48세) | 조카 조지훈 시인이 붙여준 〈슬픈 동경〉 시조집을 엮었지만<br>남편의 반대로 출간하지 못함 |  |
| 1960년 (50세) | 남편 이담(李潭)과 사별                                       |  |
| 1965년 (55세) | 여성단체 가사원 이사, 여성단체 대한어머니회 회원                         |  |
| 1967년 (57세)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화요클럽 입회<br>주부클럽 중앙위원, 한국여성문제연구소 찬조 회원     |  |
| 1968년 (58세) | 여성단체협의회 종신회원  |  |
| 1970년 (60세) | 한국문인협회, 한국신화학회, 민속학회, 한국시조작가협회 회원                   |  |
| 1971년 (61세) | 회갑기념 〈은촌내방가사집〉 출간                                   |  |

## 4. 장덕조



- 1914년 (1세) 10월 13일 경북 경산군 자인면 출생  
아버지 장재수
- 1920년 (7세) 어머니와 함께 대구 진골목으로 이사
- 1929년 (16세) 대구여자고등보통학교(경북여고 전신) 일본교사 배척동맹휴학  
주동자로 퇴학
- 1931년 (18세) 배화여자고등보통학교 졸업
- 1932년 (19세) 이화여자전문학교 영문과 중퇴
- 1932년 (19세) 개벽사 기자로 입사
- 1932년 (19세) <제일선>에 단편<저회(低徊)> 발표하며 소설가로 등단  
<월간 야담>에 야담 기고, <청색지>, <백민> 등 동인지 활동
- 1950년 (37세) 영남일보 문화부장
- 1951년 (38세) 평화신문 기자·문화부장,  
대구매일신문·문화부장·논설위원
- 1951년 (38세) 육군중군작가단 합류
- 1953년 (40세) 육군소속 중군기자로 휴전협정 서명 현장  
여기자로 유일하게 취재
- 1973년 (60세)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1987년 (74세) 10월 보관(寶冠) 문화훈장 수여
- 1989년 (76세) 11월 <고려왕조, 5백년> 장편역사소설(14권) 출간
- 2003년 (90세) 2월 별세

## 제4장. 정치·행정·교육 분야의 유리천장을 깨다

### 1. 정복향



- 1910년 (1세) 출생  
경북여자고등학교 졸업  
경성사범대학(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전신) 졸업  
초등학교 교사 역임
- 1947년 (38세) 6월 초대대구여자경찰서장 취임
- 1950년 (41세) 9월 대한여자청년단 경상북도 단장
- 1956년 (47세) 11월 제2대 경상북도 도의원 당선  
대구시·경상북도 교육위원
- 1967년 (58세) 11월 대구시립 여성회관 초대관장 취임
- 1971년 (62세) 10월 경북여성제협의회(현 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전신)  
초대회장 취임
- 1973년 (64세) 2월 제9대 국회의원 선거 유신정우회(전국구 의원)으로 당선
- 1998년 (89세) 8월 12일 대구 서구 내당동 자택에서 별세

### 2. 박분악



- 1911년 (1세) 12월 20일 대구에서 출생  
아버지 박선옥, 어머니 김금래
- 1931년 (21세) 3월 대구공립여자고등학교(경북여고 전신) 졸업
- 1933년 (23세) 12월 소학교 및 보통학교 제2종 교원 시험 합격
- 1934년 (24세) 5월 장기 공립국민학교 첫 발령  
김중환(金重煥)과 결혼
- 1942년 (32세) 7월 남편의 간병을 위해 학교 그만 둠
- 1942년 (32세) 11월 남편 병환으로 타계
- 1944년 (34세) 4월 대구 달성공립국민학교로 재임용 발령
- 1956년 (46세) 3월 교감으로 승진 (교감 첫 발령지 대구 동덕국민학교)
- 1962년 (52세) 8월 교장으로 승진 (교장 첫 발령지 해안국민학교)
- 1971년 (61세) 경상북도 초등여교사 회장
- 1977년 (67세) 정년퇴임
- 1989년 (79세) 10월 병환으로 별세

3. 김철안



- 1912년 (1세) 4월 4일 대구에서 출생  
아버지 김영순  
영덕소학교 졸업
- 1931년 (20세) 김정고시 준비하며 일본 메이지대학 정치학과 교외생 입학
- 1934년 (23세) 최의원과 결혼
- 1939년 (28세) 일본 메이지대학교 정치학과 교외생 수료
- 1946년 (35세) 한국애국부인회 김천지부 조직 후 지회장 역임  
1950년 9월 대한여자청년단 부단장 피임
- 1954년 (43세) 5월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 자유당 소속으로  
금릉군 선거구에 입후보 해 당선
- 1956년 (45세) 2월 국회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 당선
- 1956년 (45세) 7월 대한부인회 총본부 최고위원
- 1958년 (47세) 5월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 자유당 소속으로 금릉군 선거구에  
입후보 해 당선(대구경북 첫 지역구 여성의원)
- 1964년 (53세) 2월 경제잡지 <산업과 생활사> 회장 취임
- 1970년 (59세) 만학도로 성균관대학원 정치학과 수료
- 1992년 (81세) 1월 4일 노환으로 서울대병원에서 별세

4. 김도연



- 1924년 (1세) 6월 경북 의성군 구천면에서 출생
- 1965년 (42세) 2월 대구대학교 특수교육학과 졸업, 경상북도 부녀아동과장
- 1976년 (53세) 11월 구미공단 내 부녀상담소 임시소장 겸직
- 1978년 (55세) 1월 구미시 부녀복지회관장 부임
- 1984년 (61세) 12월 구미시 근로청소년회관장 부임
- 1985년 (62세) 12월 정년퇴직
- 1986년 (63세) 3월 대구대학교부설 가정복지대학장 위촉
- 1986년 (63세) 8월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대구경북지부 회장 취임
- 1986년 (63세) 11월 사회복지법인 영생애육원장 취임
- 1987년 (64세) 3월 대구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취임
- 1990년 (67세) 2월 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장 취임
- 1991년 (68세)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 1992년 (69세) 국제라이온스클럽 309D지구 대구여성라이온스클럽 회장 취임
- 1995년 (72세) 7월 대구광역시의회 비례대표의원 당선
- 1997년 (74세) 대구대학교 동창회 부회장, 대구지방법원 가사조정위원,  
한일친선협회 오사카한일친선회 부녀회장,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위원
- 1998년 (75세) 뇌졸중으로 별세

## 제5장. 전문분야에 도전하다

## 1. 박경원



- 1897년 (1세) 6월 24일 대구 중구 덕산동에서 출생  
아버지 박업이, 어머니 장두례
- 1911년 (15세) 명신여학교 입학
- 1916년 (20세) 신명여학교 고등과 입학
- 1917년 (21세) 신명여학교 고등과 자퇴. 아버지 박업 사망  
9월, 일본 요코하마의 카사하라 공예강습소에 입소
- 1920년 (24세) 공예강습소를 그만두고 귀국. 비행사가 될 것을 결심
- 1920년 (24세) 10월, 자혜의원 조산부 간호부과에 입학  
일본 비행학교가 간행한 <비행기 강의록>을 구입해서  
비행기에 대해 독학
- 1924년 (28세) 12월, 비행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독일
- 1926년 (30세) 2월, 일본비행학교인 타치가와 분교 조종과 입학
- 1926년 (30세) 12월 10일, 첫 단독비행
- 1927년 (31세) 1월 25일, 3등 비행사 시험 합격. 조선 최초의 여류 비행사
- 1928년 (32세) 7월 12월, 비행경기대회 3등 입상
- 1932년 (36세) 5월, '일만친선 황군위문 연락비행' 비행사로 결정
- 1933년 (37세) 8월 7일, 일본 하네다 공항 출발. 약천후로 추락사

## 2. 김선인



- 1909년 (1세) 7월 19일 경북 풍기읍 금계동에서 1남 2녀 중  
막내로 출생, 아버지 김두립
- 1921년 (13세) 안동계명소학교 졸업, 대구신명여학교 입학
- 1928년 (20세) 일본 동경여자의학전문학교(일본 동경의과대학 전신) 입학
- 1934년 (26세) 2월 일본 동경여자의과전문학교 졸업.  
11월 남편 이규원과 결혼, 안동도립병원 내과 근무
- 1935년 (27세) 대구도립병원으로 옮김. 7월 대구 중심가에 선인의원 개원
- 1945년 (37세) 9월 한국애국부인회(여성동지회) 총무  
9월 대한여자국민당 경북도당 발기위원장으로 지명  
10월 대한여자국민당 중앙당 창당대회 참석 뒤 경북도당  
위원장 취임
- 1946년 (38세) 12월 경북도 부녀계 실행위원회 위원장
- 1948년 (40세) 5월 제헌국회의원 선거 대구 여성대표로 대구 갑구에  
출마했지만 낙선
- 1949년~1959년 (41세~51세) 대한부인회 회장직 역임
- 1965년 (57세) 교육계에 헌신한 공로로 문교부로부터 교육공로 표창
- 1968년 (60세) 9월 1일 별세

3. 윤동한



4. 박남옥



1923년 (1세) 2월 14일 경북 경산군 히양에서 출생. 딸 여섯, 아들 넷의 10남매 중 셋째 딸

1939년~1941년 (17세~19세) 제2회, 3회, 4회 전(全)조선종합경기대회 투포환 부문 한국 신기록 수립  
경북여자고등학교 졸업

1943년 (21세) 이화여자전문학교 가정과 입학

1944년 (22세) 이화여자전문학교 중퇴, 대구매일신문 기자로 입사

1946년 (24세) 상경 후 조선영화사 촬영소 입사

1950년 (28세) 한국전쟁(6·25) 발발 후 7월 국방부 촬영대 입대, 뉴스촬영반에서 활동

1953년 (31세) 종군영화 만들며 극작가 이보라의 구애 끝에 결혼

1954년 (32세) 7월 영화 <미망인> 촬영 시작

1955년 (33세) 4월 서울 중앙극장 영화 <미망인> 개봉

1957년 (35세) 동아출판사 입사 (23년 재직)

1959년 (37세) 11월 월간 영화잡지 <시네마팬> 창간, 취재기자로 활동

1992년 (70세) 유학 가는 외동딸과 함께 미국

1997년 (75세) 4월 제1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개막작으로 <미망인> 복원·상영

## 제1장. 독립운동으로 광복의 초석을 다지다

〈국민보〉, 〈매일신문〉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훈록』  
 강영심·김도훈·정혜경, 「1910년대 국외항일운동 II-중국·미주·일본」,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강윤정 외, 『이야기로 만나는 경북여성』, 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11.  
 김희곤 외, 『영양의 독립운동사』, 영양문화원, 2006.  
 강윤정, 「하얼빈에서 울린 메아리! 남자현」, 『역사에 길을 묻다. 사회정의의 멘토 33인』, 대구경북연구원, 2013.  
 김원모, 『개화기 한미교섭관계사』, 단국대학교출판부, 2003.  
 김원용 저, 손보기 엮음, 『재미한인오십년사』, 해안, 2004.  
 김희곤, 「하와이 노동이민자의 삶과 민족운동-경북영양출신 권도인의 경우」, 『안동학연구』제3집, 한국국학진흥원·하와이대학교한국학연구소·안동대학교안동문화연구소, 2004.  
 박영광, 『독립혈사』2, 대한문화정보사, 1956.  
 박영석, 『만주지역 한인사회와 항일독립운동』, 국학자료원, 2010.  
 박용옥, 「만주지역 항일여성운동」, 『3·1여성』 광복60주년 특집호, 3·1여성동지회, 2006.  
 박용옥, 『여성운동』, 독립기념관, 2009.  
 박환, 「만주지역 독립운동과 남자현의 독립운동」, 『2013 경북여성인물 재조명 심포지엄 자료집-경북여성 독립운동을 말한다』, 경상북도·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13.  
 서명훈, 『할빈시 조선민족 백년사화』, 민족출판사, 2007.  
 웨인 패터슨 저, 정대화 역, 『하와이 한인 이민 1세』, 들녘, 2003.  
 이덕희, 『하와이 이민 100년 그들은 어떻게 살았나』, 중앙M&B출판(주), 2003.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넷 유교문화지도 '안동학3집'  
 홍선표, 「제4장 미주지역 독립」, 『경북독립운동사3-국외지역 항일투쟁』, 경상북도, 2013.  
 홍선표, 『자주독립과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재미한인의 꿈과 도전』, 연세대출판부, 2011.  
 다음블로그 '바람이 머무는 곳' (<http://blog.daum.net/dolt0914/790>)

## 제2장. 시대를 앞서 미래를 준비하다

〈개벽〉, 〈삼천리〉, 〈조선지광〉, 〈조선일보〉, 〈영남일보〉

강만길, 성대경 엮음, 『한국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 창작과 비평사, 1996.  
 강윤정, 「남녀평등을 꿈꾸었던 여성운동가 정철성」, 『역사에 길을 묻다. 리더십의 멘토』, 대구경북연구원, 2013.  
 김성동, 「조선부녀총동맹 부위원장 정철성」, 『위클리경향』 812호, 2010.  
 김원용 저, 손보기 엮음, 『재미한인오십년사』, 해안, 2004.  
 김중순, 「근대화의 담지자 기생 I」, 『한국학논집』(제43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1.  
 김창겸 편, 『최송설당』, 경인문화사, 2008.  
 박용옥, 『한국독립운동의 역사31: 여성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전경옥 외, 『한국여성 정치사회사』,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2004.  
 최미화, 『여성백년』, 흥익포럼, 1999.

## 제3장. 언론·문학·예술 분야를 개척하다

〈동아일보〉, 〈시대일보〉, 〈매일신보〉, 〈신한민보〉  
 강윤정, 『삼불채(三不措)』, 지조의 주실마음, 〈기록인 in〉22, 국가기록원, 2013.  
 김희곤 외, 『영양의 독립운동사』, 영양문화원, 2006.  
 라정숙, 『은촌 조애영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백순철, 『은촌 조애영 기사의 문체와 여성의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22,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1.  
 손태룡, 「추애경, 김태술, 권영화, 그들은 누구인가」, 『한국 서양음악사 연구』, 도서출판 보고사  
 신명학원, 『신명구십년사』, 학교법인신명학원, 1998.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영양 주실마음』, 예문서원, 2001.  
 우연실, 『은촌 조애영의 시가연구』,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이강언·조두섭 『대구·경북 근대문인연구』, 태학사, 1999.  
 이유선, 『한국양악백년사』, 중앙대학교출판국, 1976.  
 이화여자대학교, 『이화100년사』, 1994.  
 추애경, THE FAMILY OF CHUNG SONG(『청송의 가족』), 1938.  
 허미자, 『현대 여성시기에 나타난 전통의식, 조애영·고단』, 『성신어문학』제8집, 성신어문학연구회, 1996.  
 허철희, 『은촌 조애영의 규방가사 고찰』, 『동국어문학』제7집, 동국어문학회, 1995.  
 허철희, 『은촌 조애영의 규방가사 고찰, 작품의 내용소개를 중심으로』, 『동국어문학』제7집, 동국어문학회, 1995.

## 제4장. 정치·행정·교육 분야의 유리천장을 깨다

〈동아일보〉, 〈경향신문〉

김도연, 『김도연 유고집, 다시 태어나도 이 길』, 흥익기획, 1999.

박건춘의 진해교육사 블로그 (<http://blog.daum.net/pc-gun/80>)

박금순(한국부인회 총본부), 『한국 여성운동 역사』, 한밤의 소리사, 1986.

숙명여대 한국어문화연구소, 『한국여성문인사전』, 태학사, 2006.

연합콘텐츠 인물정보 (<http://sales.yonhapnews.co.kr>)

## 제5장. 전문분야에 도전하다

〈경남여성신문〉

「서울 국제 여성 영화제 제 1회 박남옥 감독과 그의 작품 '미망인' 발굴/복원 작업의 의미,

주진숙 외, 『여성영화인사전』, 소도, 2001

카노 미키요, 『여자의 날개로 날고 싶다』, 프레스빌, 1996.

한국 여성사 지식 정보 시스템(구술사),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KMDB)

가을이 머무는 풍경 (<http://blog.chosun.com/nolboo54/5102437>)

네이버블로그 '더 필름 클래식' (<http://blog.naver.com/filmclassic/146901894>)

네이버카페 'SNS 3분 영화제' (<http://cafe.naver.com/ghogumafilm>)

씨네서울 기획시리즈 ([http://www.cineseoul.com/magazine/magazine.htm?magazine\\_id=155](http://www.cineseoul.com/magazine/magazine.htm?magazine_id=155))

<http://blog.daum.net/krkeh1117/18349268>

## 도움을 주신 분

김성미 (박분악의 딸)

김희곤 (안동독립운동기념관장)

박상훈 (전 청도군청 공무원)

박선희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배진철 (윤동한의 장남)

백승환 (김천중학교 교감)

신혜경 (경상북도여약사회 회장)

윤석우 (윤현진의 손자)

윤정자 (윤동한의 자부)

이봉숙 (김천시 남면 공무원)

이승석 (경상북도 약사회 회장)

이정화 (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 사무국장)

한정훈 (김도연의 아들)

경북여성아카이브  
경북여성 1호 첫 번째 이야기

기록만든  
경북여성

1판 1쇄 인쇄 2013년 12월 28일

1판 1쇄 발행 2013년 12월 30일

**발 행**  경북여성정책개발원

712-210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전 화 : 053-602-5410

팩 스 : 053-817-6018

홈페이지 : [www.forwoman.or.kr](http://www.forwoman.or.kr)

**출 판** 원컴

등 록 : 제25100-2013-000022호

주 소 : 대구시 중구 대봉로 238

전 화 : 053-424-9312

팩 스 : 053-424-9313

이메일 : [wonoh1329@hanmail.net](mailto:wonoh1329@hanmail.net)

ISBN 978-89-952-5882-8

※ 이 책은 비매품입니다.

※ 이 책의 내용을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